

기업경영분석해설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Handbook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머 리 말

한국은행이 1960년 이래 매년 편제해 오고 있는 「기업경영분석」은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은 물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와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초통계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경영분석통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통계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1995년에 처음으로 「기업경영분석 해설」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여 이용되고 있는 기업경영분석지표가 크게 변한 데다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여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2006년 1차 개정판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2차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자에서는 전년에 이어 유용한 신규 분석자료를 추가하는 한편 통계시계열을 확충하고,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재표의 구분표시를 변경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미흡한 부문에 대한 이용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12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최 춘 신

「기업경영분석해설」 발간 참여자

■ 초 판 : 1995. 8. 조사제2부 산업분석과

과장 최춘신, 조사역 박진옥, 행원 노충식,
행원 장운석, 행원 윤성업

■ 1차 개정판 : 2006. 12.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팀장 양재룡, 차장 김태석, 과장 박상우,
과장 송윤정, 조사역 신은미, 조사역 김현중,
조사역 신혜원, 조사역 이보라

■ 2차 개정판 : 2007. 12.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팀장 양재룡, 팀장 김태석, 차장 조필호,
과장 오권영, 조사역 신은미, 조사역 김현중,
조사역 신혜원

차 례

I. 기업경영분석의 개요	1
1. 기업경영분석의 의의	4
2. 기업경영분석의 활용	5
3. 기업경영분석의 기초자료	7
4. 기업경영분석의 방법 및 한계	16
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편제연혁 및 편제방법.....	22
6. 기업경영분석 통계 시계열의 단층	35
II. 기업경영분석 지표의 내용	49
1. 성장성분석 지표	51
2. 수익성분석 지표	58
3. 유동성분석 지표	76
4. 안정성분석 지표	81
5. 활동성분석 지표	89
6. 생산성분석 지표	98
III. 기업경영분석 지표의 응용	109
1. 종합지수분석	111
2. 현금흐름분석	122
3. 레버리지분석	135

4. 경제적 부가가치(EVA)분석	140
5.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150
6.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경영지표	160

IV.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한 분석자료 165

1. 우리나라 기업수익구조의 변화	167
2. 우리나라 기업의 유형자산 변동추이	172
3. 중위수통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기업경영분석 179	
4.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영성과 분포	186
5.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	196
6. 금리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209
7. 유가 및 환율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215
8. 주요 업종별 국내외 대표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220
9. 한·미·일 제조업의 경영성과 비교	229
10. 서비스산업의 경영분석지표 추이	244
11.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변동추이	253
12. 연결재무제표로 본 기업경영성과	258

<부 록> 275

1. 연간 주요 경영분석지표	276
2. 분기별 주요 경영분석지표	296
3.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업종별 모집단 및 조사업체수	298
4. 기업경영분석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주요항목	302

I . 기업경영분석의 개요

1. 기업경영분석의 의의
2. 기업경영분석의 활용
3. 기업경영분석의 기초자료
4. 기업경영분석의 방법 및 한계
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편제연혁 및 편제방법
6. 기업경영분석 통계 시계열의 단층

기업경영분석이란 투자자, 금융기관, 경영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재무이론의 발전과 전산화의 진전 등으로 분석기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의 기초자료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활용된다.

기업경영분석 기법에는 관계비율법, 구성비율법, 표준비율법, 지수법, 실수비교법 등이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수치 및 비율은 계량화의 한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등으로 기업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정부의 산업정책,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및 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0년부터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편제하여 오고 있다.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표본업체 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며 표본설계는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업체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1. 기업경영분석의 의의

기업경영분석이란 투자자, 금융기관, 경영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량적 또는 비계량적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기업경영분석은 금융회사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수집·분석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경영자나 투자자의 의사결정,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화신용 및 산업정책 수립,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와 행정기관의 건설용역·구매관련 입찰시 업체평가기준, 구조조정 대상기업 해당요건 판단기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분석의 중점도 재무유동성에서 기업의 수익성이나 현금창출능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종래 대차대조표 중심의 정태분석에서 손익계산서 중심의 동태분석으로 이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현금흐름분석이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기초한 새로운 투자안의 채택여부 결정이나 자금조달과 운용에 대한 재무계획 수립 및 통제에 활용되는 등 미래지향적 분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60년대까지는 각종 재무비율이 그 유용성이나 예측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등 이론체계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종래의 경영분석이론을 195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발전해 온 자본시장이론 등의 재무이론과 결합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전산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본시장의 발달로 부실예측, 채권평가 등 기업신용분석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분석기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2. 기업경영분석의 활용

기업경영분석은 경영자, 금융기관, 투자자, 정부기관 및 외부감사기관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며 사용자의 활용목적에 따라 중요시되는 분석내용에 차이가 있다.

가. 경영자

경영자는 내부통제, 업무계획 및 경영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경영분석을 행한다. 따라서 경영자의 경우 경영분석의 초점은 경영활동의 능률을 측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기업의 전체적인 효율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수익성 분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경영자의 기업경영분석에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자산의 시장가치나 미래이익 예측치 등과 같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료와 주가, 시장점유율, 조업도 등과 같은 비회계적 자료도 폭 넓게 활용된다.

나. 채권자

은행 등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영분석을 수행한다. 즉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차입자의 사업성격상 발생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전망, 해당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상의 부채상환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 및 안정성을 주로 분석하게 된다.

다. 투자자

투자자는 투자종목의 선택이나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을 위하여 해당기업의 미래수익창출능력, 배당능력, 사업위험도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대상기업의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 등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경쟁기업이나 관련업종 등의 재무비율과 비교분석 하는 등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와 회사 채 평가 등에 기업경영분석이 활용된다.

라. 외부감사 및 신용평가 기관

외부감사 및 신용평가 기관은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기업발전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비율분석은 물론 기업부실 예측모형과 같은 각종 계량적 경영분석기법 등을 활용한다.

마.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감독기관들은 각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기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기업의 담세능력 평가, 탈세방지 등을 위해 기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며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육성 등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명한 구매활동을 위해서도 경영분석 자료가 활용된다.

3. 기업경영분석의 기초자료

가.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란 일정시점에서의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및 자본 내용을 기록한 표이다. 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재원으로 하여 건물과 기계장치 등 설비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이나 예금 등 유동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면서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용상태를 한 표에 나타낸 것이 대차대조표이며 자본과 부채를 합한 금액인 총자본과 총자산은 항상 일치하게 된다. 자본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의 오른쪽인 대변에 기록되어 자금조달의 원천을 나타내며, 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왼쪽인 차변에 기록되어 조달된 자금의 운용상태를 나타낸다.

<표 I-3-1>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업의 대차대조표이다. 총자산은 519억원으로서 대변에 나타난 부채 389억원과 자본 130억원으로 조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산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등의 당좌자산이 147억원, 재고자산이 49억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장기투자증권 등의 투자자산이 80억원, 토지, 설비자산 등의 유형자산이 226억원, 영업권 및 개발비 등의 무형자산이 13억원,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등의 기타비유동자산이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채는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가 218억원,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가 171억원이며 자본은 주식발행으로 납입된 자본금 46억원과 자본잉여금 60억원, 자본조정 3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억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19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3-1

대차대조표
2007.12.31 현재

△△기업					(단위 : 억원)					
차				변	대				변	
유	동	자	산	196	유	동	부	채	218	
당	좌	자	산	147	매	입	채	무	48	
현금및현금성자산				34	단기차입금				123	
매출채권				75	기타유동부채				47	
기타당좌자산				38	비유동부채				171	
재고자산				49	장기차입금				75	
비	유	동	자	산	323	회사채				66
투자자산				80	부채성충당금				17	
유형자산				226	기타비유동부채				13	
토지				56	자본				130	
설비자산				110	자본금				46	
건설중인자산				58	자본잉여금				60	
기타유형자산				2	자본조정				3	
무형자산				1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기타비유동자산				4	이익잉여금				19	
자산총계				519	부채와자본총계				519	

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는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중요한 목적중 하나는 기업이 일정기간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또는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있으며, 손익계산서는 정확한 손익금액의 계산과 함께 그 손익이 경영의 어떤 활동에서 발생하였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된다. 생산이나 판매 등 기업의 고유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 영업외적인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러한 활동과는 관계없이 중단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이라 한다. 이때 중단사업손익

은 법인세효과 차감후 순액을 기재한다. 끝으로 기업이 얻은 모든 수익에서 기업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차감하여 순수하게 기업에 순익으로 남는 몫을 당기순손익이라 한다.

<표 I-3-2>의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기업의 손익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기업은 2007년 한해 동안 420억원어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제품의 매출원가로 332억원이 들어 매출총이익은 88억원이었다. 그런데 제품을 팔기 위해 광고비 및 영업사원 급여 등 판매비와 관리비로 52억원을 지급하여 영업이익은 36억원이었다.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자산 운용 등으로부터 얻은 영업외수익 33억원을 더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 영업외비용으로 지출한 37억원을 빼고 난 후의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은 32억원이었다. 그리고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고 중단사업손익을 감안한 당기순이익은 31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3-2

손익계산서

2007.1.1~2007.12.31

△△기업

(단위 : 억원)

매출액	420
(-) 매출원가	332
매출총이익	88
(-) 판매비와관리비	52
영업이익	36
(+) 영업외수익	33
(-) 영업외비용	3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2
(-) 법인세비용	3
(±) 중단사업손익	2
당기순이익	31

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조달한 현금 내역과 조달된 현금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하는 운용내역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정리한 재무보고서이다. 기업의 현금유입과 지출내역을 제품의 생산과 상품의 구매 및 판매 등과 같은 영업활동, 현금의 대여와 회수,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과 같은 투자활동, 그리고 현금의 차입 및 상환, 주식발행이나 배당금 지급 등과 같은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995년부터 종래의 재무상태변동표 대신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 장부상으로는 큰 이익을 기록하더라도 현금흐름관리를 제대로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흑자도산 등의 경영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 발생주의에 근거한 회계적 이익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표 I-3-3>을 통해 △△기업의 2007년중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과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으로 86억원의 현금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주식 및 회사채발행과 은행차입 등의 재무활동으로 32억원의 현금순유입이 있었다. 한편 건물, 기계장치 구입 등의 투자활동으로 115억원의 현금순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기말의 현금잔액은 기초의 현금잔액 31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34억원이 되었다.

표 1-3-3

현금흐름표

2007.1.1~2007.12.31

△△기업

(단위 : 억원)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6
1. 당기순이익	22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65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42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7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8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91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59
IV. 현금의 증가 (I + II + III)	3
V. 기초의 현금	31
VI. 기말의 현금 (IV + V)	34

라.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Statement of cost of goods manufactured)는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느 부분의 원가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제조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당기 총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재료비의 구성비가 동종의 다른 회사보다 높을 경우에는 원재료나 부품의 구매관리를 개선해야 하거나 생산설비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노무비나 경비의 구성비가 다른 회사보다 높다면 생산직 종업원의 생산능력관리나 전기, 수도 등 물자의 소비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3-4>를 예로 설명해 보면 △△기업은 1년 동안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 등 재료를 108억원어치 투입하고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12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전기, 수도요금 등 경비로 74억원을 지출함으로써 당기총제조비용은 이들을 모두 합계한 307억원에 달하였다. 여기에 기초에 제조공정에 남아있던 재공품재고액 12억원을 더하고 연말에 남은 재공품 9억원과 자사의 재공품을 자가소비한 부분인 타계정대체액 8억원을 뺀 결과 당기 제품제조원가는 302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조원가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와와는 다르다. 매출원가는 직접 생산한 제품의 원가(제조원가)나 상품매입액중 매출된 부분이다. 따라서 만약 A기업이 도매업만 영위한다면 생산활동이 없으므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상품매입액중 회계기간내 판매된 부분이 매출원가로 반영된다. 마찬가지로 제조업만 영위한다면 제품제조원가중 팔린 부분이 매출원가로 반영되며 팔리지 않고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반영된다.

표 I-3-4

제조원가명세서

2007.1.1~2007.12.31

△△기업

(단위 : 억원)

재 료 비	108
노 무 비	125
경 비	74
당 기 총 제 조 비 용	307
(+) 기 초 재 공 품 재 고 액	12
(-) 기 말 재 공 품 재 고 액	9
(-) 타 계 정 대 체 액	8
당 기 제 품 제 조 원 가	302

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는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로 처분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되거나 미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목적으로 또는 기업의 시설규모 확장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보되거나 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일정금액이 적립되기도 하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한편 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가 그 다음 회계연도초에 개최되므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 회계연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행해짐에 따라 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는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된다.

<표 I-3-5>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로부터 당기로 이월된 이익잉여금 90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 전기의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함에 따른 이익 1억원 및 기타 처분전 이익잉여금 7억원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방식 변경 등에 따른 이익 감소분 1억원 및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평가손실 2억원을 차감한 117억원이 처분전이익잉여금이다. 여기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0억원을 합산한 127억원이 처분대상 이익잉여금이 되며, 이중 115억원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배당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사내 유보하고 남은 12억원은 차기로 이월된다.

표 I-3-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08. 3. 31

△△기업	(단위 : 억원)
I. 처분전이익잉여금	11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0
당기순이익	2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1
지분법적용회사 잉여금변동	-2
전기오류수정손익	1
기타처분전이익잉여금	7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115
이익준비금	20
기타법정적립금	5
배당금	55
임의적립금	30
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5
IV. 차기이월이익잉여금(I + II - III)	12

<참고>

2007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거 재무제표의 종류 및 보고양식의 일부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자본변동표	—	신설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재무제표의 유용성 제고
용 어 변 경	고정자산	비유동자산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평가라는 목표에 보다 적합한 용어로 변경
	고정부채	비유동부채	
단기투자자산	—	신설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도가능증권, (단기)만기보유증권, 단기대여금 등을 통합
기타비유동자산	—	신설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을 신설된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으로 분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신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을 신설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분류
법정적립금	—	신설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을 통합
중단사업손익	—	신설	중단사업 ¹⁾ 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을 구분표시
특별손익	별도표시	특별손익 항목폐지	특별손익 항목 분류상의 자의적 요소 제거

주: 1) 사업중단계획에 따라 기업 일부를 일괄매각 또는 분할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처분·상환하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에 경영관리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사업별·지역별로 구분 가능한 사업

4. 기업경영분석의 방법 및 한계

가. 기업경영분석의 방법

(1) 관계비율법

재무제표상의 한 항목과 다른 항목간의 관계를 비율로 표시하여 기업의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석방법이다

(2) 구성비율법

재무제표 각 구성항목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총자산에 대한 구성비율을 표시하는 백분율대차대조표(Common-size balance sheet), 총매출액에 대한 구성비율을 표시하는 백분율손익계산서(Common-size income statement) 등이 주로 이용된다.

(3) 표준비율법

재무제표로부터 산출한 경영분석비율을 표준비율과 비교하여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분석방법이다. 표준비율은 동종기업의 수치를 평균하여 산출하거나 기업의 목표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4) 지수법

기업경영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방법이다. 앞에서 살펴 본 개별적 비율분석으로는 기업의 경영상태나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분석목적에 따른 중요비율을 산출한 후 각각의 중요비율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지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수비교법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경영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대상대조표와 비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항목의 증감률을 구하고 이를 통해 재무상태나 손익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차이가 있으면, 다른 기업과 비교하거나 또는 자기회사의 과거의 기간과 비교하여 양호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 이와 같은 절대액의 비교만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해 관계비율법 등의 비율법을 병용하게 된다. 그러나 흔히 비율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이와 같은 절대액의 크기 또는 변동상황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나. 기업경영분석의 한계

기업경영분석은 주로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금액 또는 비율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수치 및 비율은 기업의 경제적 실태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므로 이에 근거한 기업경영분석은 완벽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계량화의 한계

기업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영자의 능력, 종업원의 사기, 조직의 효율성, 우수한 판매망, 기업의 신용도 등은 재무제표상에 수치화하기 어려우므로 재무제표를 이용한 기업경영분석은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를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기업별로 실무적인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경

우 기업회계기준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교기업간에 다른 감가상각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감가상각비가 다르게 계상되어 동일한 영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재고자산의 평가시에도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을 적용하는 경우와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다르게 계상되므로 이익에 차이가 발생한다.

(3) 기타

채무제표중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므로 기업활동의 계절적 변동을 제대로 고려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음식료품, 의복 등 계절적 변동이 심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총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의 구성이 크게 바뀌게 되므로 회계정보가 과장되어 전달되기 쉽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부상의 가치와 실제가치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채무제표는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참고>

물가 수준변동과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에 활용되는 각종 재무비율은 재무제표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산출된 재무비율은 기업의 실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가수준이 크게 변동하는 시기에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재무비율을 기초로 한 기업경영분석은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킬 수 있다.

전반적인 물가의 변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A기업의 사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A기업은 상품을 단순히 매입하여 판매하며 매출원가외에 판매관리비 등은 발생하지 않고 상품은 연초에 구입하여 연말에 판매한다. 매년 물가는 20%씩 상승하며 상품의 가격은 10%씩 상승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연도별 A기업의 당기 손익을 살펴보면 물가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2003년(1,000원), 2004년(1,100원), 2005년(1,210원) 3년간 총 3,31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연도별 물가상승률 20%를 감안할 경우(즉 2003년 1월1일 물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A기업은 매년 적자를 보여 3년간 총 2,297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단위 : 원)

연 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당 기 순 이 익
2 0 0 3	11,000	10,000	1,000
2 0 0 4	12,100	11,000	1,100
2 0 0 5	13,310	12,100	1,210
합 계	36,410	33,100	3,310

불변물가(2003.1.1) 기준

(단위 : 원)

연 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당 기 순 이 익
2 0 0 3	9,167 ¹⁾	10,000	-833
2 0 0 4	8,403 ²⁾	9,167 ³⁾	-764
2 0 0 5	7,703 ⁴⁾	8,403 ⁵⁾	-700
합 계	25,273	27,570	-2,297

주: 1) $11,000 \div 1.2$ 2) $12,100 \div 1.2 \div 1.2$,3) $11,000 \div 1.2$ 4) $13,310 \div 1.2 \div 1.2 \div 1.2$ 5) $12,100 \div 1.2 \div 1.2$

재무비율중에서 수익성과 활동성관련 비율이 물가변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는 매출액 등 수익관련 항목은 현행 물가를 반영하는 반면 유형자산 등 자산구성 항목은 취득원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클 경우 총자산이익률 등 자산관련 수익성비율과 총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등 활동성비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고자산도 물가변동에 따라 각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고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기업간의 재무비율 비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입선출(LIFO)의 경우 비싼 가격에 구입한 최근 재고상품이 우선적으로 매출되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매출원가가 늘어나 장부상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생긴 세금효과의 영향으로 현금흐름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한 기초재고상품이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운전자본 등은 과소평가된다.

재고자산평가기준이 재무제표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후 입 선 출 (LIFO)	선 입 선 출 (FIFO)
매 출 원 가	↑	↓
세 금 공 제 전 이 익	↓	↑
세 금	↓	↑
현 금 흐 름	↑	↓
재 고 자 산	↓	↑
운 전 자 본	↓	↑

주) ↑은 과대계상, ↓은 과소계상을 의미

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편제연혁 및 편제방법

가. 편제연혁

한국은행은 정부의 산업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및 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0년부터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편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 오고 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을 계수화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으나 1959년 1월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이 시행되어 기업활동을 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1960년대 초에는 경제자립의 기반조성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이 계획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기업활동의 계수적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62년에 최초로 광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분석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기업경영분석(1960~1961)」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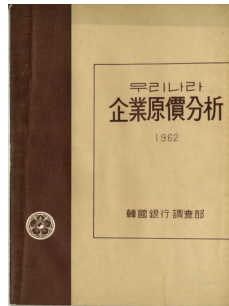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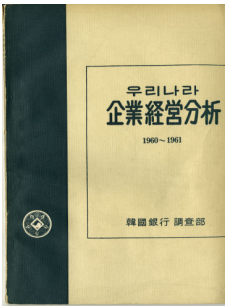
이 책자의 발간 이래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편제방법 개선, 대상업종 정비 및 분석지표 확충 등 통계의 정도 및 유용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2001년부터는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의 분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누적분기(1~3월, 1~6월, 1~9월) 기업경영분석통계를, 그리고 2003년부터는 당해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한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산업별 경영분석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국내자료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외에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재무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경영지표」 등이 있으며 해외자료로는 미국 상무부의 「분기재무보고서」(Quarterly Financial Report), 일본 재무성의 「법인기업통계」 등이 있다.

<참고>

「우리나라 기업경영분석(1960~1961)」

- 한국은행이 광업 및 제조업을 대상으로 1962년에 최초로 발간한 「우리나라 기업경영분석(1960~1961)」 책자



국내외 기업경영분석통계 편제현황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주 요 내 용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www.bok.or.kr)	업종별 재무제표, 경영분석비율 주요국 경영분석지표
기업재무분석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업종별 기업경영지표, 주요국 경영지표
중소기업경영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kfsb.or.kr)	중소기업 업종별 재무제표, 경영지표
Quarterly Financial Report	미국 상무부 (www.census.gov)	업종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경영지표
법인기업통계	일본 재무성 (www.mof.go.jp)	업종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경영지표
Annual Accounts of West German Enterprises	독일 연방은행 (www.bundesbank.de)	업종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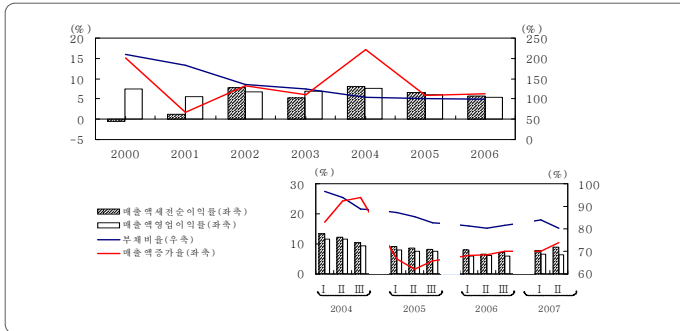
표 I-5-1

기업경영분석 통계편제 주요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62	- 1960년 및 1961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 분석 통계 책자 최초 발간 * 조사대상업체: 486개(광업 30개, 제조업 456개)
1963	- 전기업(電氣業) 추가 - 기업원가분석(1962) 발간
1964	-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서비스업 추가
1965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대기업 구분 기준을 종래의 상시종업원 100인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변경
1969	- 「기업원가분석」을 「기업경영분석」에 흡수 통합 - 표본추출방식을 광업 및 제조업은 층화임의추출방식으로, 여타산업은 단순임의 추출방식으로 변경
1972	- 종래의 경영지표별 수록체계를 산업별, 업종별 수록체계로 개편
1973	- 제조업의 특수분류별 경영지표(수출·내수기업, 중화학·경공업)를 추가수록
1977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대기업 구분 기준을 종래의 상시종업원 200인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변경
1979	- 국제청법인세신고업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체계적인 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통계의 정도제고는 물론 시계열의 연속성 유지 등에서 진일보
1989	-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편제
1996	- 현금흐름표 편제 수록
2000	- 자금운용표를 수록대상에서 제외
2001	-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 금감위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누적분기 기업경영분석통계 편제 시작
2003	-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 금감위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당해분기 기업경영 분석통계 편제 시작
2005	- 서비스업 경영분석지표 신규 편제 - 기술수준별, 산업형태별 특수분류 신설

<참고>

연간 및 분기 기업경영분석통계(제조업) 추이



	성장성관련지표		수익성관련지표		재무구조관련지표	
	매출액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유형자산 증가율 (전기말대비)	매출액세전 순이익률 (기간중)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간중)	부채비율 (기말)	차입금 의존도 (기말)
2000	15.2	2.4	-0.5	7.4	210.6	41.2
2001	1.7	-1.5	1.2	5.5	182.2	39.8
2002	8.3	-2.2	7.8	6.7	135.4	31.7
2003	6.1	1.7	5.2	6.9	123.4	28.3
2004	17.1	4.8	8.1	7.6	104.2	24.0
2005	5.9	6.2	6.6	6.1	100.9	22.9
2006	6.3	6.0	5.8	5.3	98.9	22.4
2004. I	17.3	1.3	13.5	11.7	96.7	23.9
II	24.4	1.3	12.3	11.6	93.9	23.0
III	25.4	1.2	10.4	9.4	88.9	21.7
2005. I	4.9	1.9	9.2	7.9	87.4	20.2
II	1.7	1.5	8.6	7.5	85.5	20.1
III	4.3	1.7	8.2	7.6	82.7	20.4
2006. I	6.1	1.7	8.0	5.9	81.3	19.0
II	6.3	1.9	6.7	6.2	80.4	19.5
III	7.6	1.7	7.0	6.0	81.5	19.3
2007. I	7.5	1.1	7.7	6.6	83.8	18.7
II	10.4	0.6	8.8	6.4	80.4	18.8

주 : 1) 연간자료는 매출액 25억원이상 제조업체, 분기자료는 상장·등록법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2) 4분기 자료는 분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아 편제하지 않음

나. 표본설계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표본업체 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됨에 따라 표본설계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당행은 국세청의 법인세신고업체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설계를 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의 표본설계 내용을 2006년에 실시한 표본설계 개편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집단은 2004년 국세청법인세신고업체 327,819개중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기업¹⁾을 제외한 66,513개 업체로 정하였다.

표본추출과정을 살펴보면 통계조사의 정도제고 및 표본추출 작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모집단에 의한 표본추출방법을 병행하였다. 전수조사업체로는 ① 2004년중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1,466개), ② 1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2004년말 현재 상장기업 및 금감위등록기업(907개), ③ 2004년중 업종별 매출액 상위 기업으로서 1,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기업(932개) 등 3,305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모집단에서 위 전수조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63,208개)을 부모집단으로 하고 층화계통추출법(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에 의하여 표본업체를 선정하였다. 표본설계를 위한 대표변량으로는 매출액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대표변량 선정을 위하여 조사대상 주요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매출액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 1) ① 조사대상업종 이외의 업종(농업, 임업, 수도사업,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27,203개
 ②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법인)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 4,806개
 ③ 결산일이 1.1~5.31인 기업 : 2,337개
 ④ 매출액이 25억원 미만인 영세기업 : 226,960개

표 1-5-2

목표정도 및 표본추출률

(단위 : %)

	신뢰도	허용오차	표본추출률
제조업	95	5	4.9
비제조업	95	5	1.9
전산업	95	5	3.0

효율적인 표본설계를 위하여 업종별로 1차 층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의하여 2차 층화를 하였다. 즉, 업종별로는 조사의 편의성 및 조사자료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97개 업종으로 층화한 후 업종내 층화층수는 층내 분산을 최소화하도록 정하였으며 층내 표본 수는 최소 5개를 유지하도록 정하였다.

총표본수는 우선 업종별로 표본업체수를 결정한 후, Neyman 배분방식을 이용하여 매출액규모에 따른 층별로 표본업체를 배분하였으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업체는 각 층별로 단순계통추출하였다.

① 업종별 표본업체수 결정

업종별로 전수조사층을 포함하여 총 L개의 층으로 구분할 경우 변이계수²⁾(CV : Coefficient of variation)를 만족하는 조사업체의 수 (n)는 다음 식으로 결정하였다.

$$n = N_L + \frac{\sum_{h=1}^{L-1} N_h^2 S_h^2 / a_h}{(N_{cv} \bar{Y})^2 + \sum_{h=1}^{L-1} N_h S_h^2}$$

2)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상대적 산포도(散布度) 측정에 활용된다.

② 업종내 층별 표본업체수 배분

업종내 총 조사업체수(n)의 각 층별 배분은 다음식에 의해 결정

$$n_h = (n - N_L)a_h$$

단. L : 업종내 총 층수 (전수층(L)포함)

n : 총 조사업체수

n_h : h 층의 표본업체수 ($h = 1, 2, 3, \dots, L-1$)

N : 모집단 업체수

N_L : 전수조사대상(전수층 L) 업체수

N_h : h 층의 모집단 업체수

S_h : h 층의 매출액 표준편차

\bar{Y} : 모집단 매출액 평균

cv : 변이계수

$$a_h: h\text{층의 가중치} (= \frac{N_h S_h}{\sum_{h=1}^{L-1} N_h S_h})$$

다. 모집단 추계방법 및 분류기준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로 집계하여 표본추출시에 정해진 확대배율(가중치)을 적용하여 부모집단치를 추계하고 이에 전수조사치를 합산하여 모집단추계치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각종 분석지표를 산출하였다.

업종별모집단추계치 = 표본에 의한 부모집단추계치 + 전수조사치

$$X_h = A_h + B_h = \sum_i^m \sum_j^n X_{ij} \frac{N_i}{n_i} + B_h$$

단, X_h : h 업종의 추계치

A_h : h 업종의 부모집단추계치

B_h : h 업종의 전수조사치

N_i : h 업종 i 층의 부모집단수

n_i : h 업종 i 층의 표본수 ($i = 1, 2, 3, \dots, m$)

X_{ij} : h 업종 i 층 j 번째 표본치 ($j = 1, 2, 3, \dots, n$)

업종별, 규모별 및 특수 분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1) 업종별 분류기준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업종을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업체의 업종결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일 기업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2) 규모별 분류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인 업체는 대기업, 300인 미만인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부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위와 달리 분류하였다.(<표 I-5-3> 참조)

(3) 특수 분류기준

제조업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및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분류하였다. 수출기업은 총매출액중 수출의 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내수기업은 총매출액중 수출의 비중이 50%미만인 업체로 정하였다.

표 1-5-3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 류 부 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이하
4	중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청소관련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이하

주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표 I-5-4

산업구조별 분류

분류명	해당업종
중화학공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D21),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D23), 화합물 및 화학제품(D24), 비금속광물제품(D26), 제1차금속(D27), 조립금속제품(D28), 기타기계 및 장비(D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D30),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D3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D3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D33), 자동차 및 트레일러(D34), 기타운송장비(D35),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종(D37)
경공업	중화학공업 업종을 제외한 여타 제조업

아울러 기술수준³⁾에 따라 첨단기술(High-tech)업종, 고기술(Medium high-tech)업종, 중기술(Medium low-tech)업종, 저기술(Low-tech)업종으로, 산업형태⁴⁾에 따라 기초소재형산업, 가공조립형산업, 생활관련형산업으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정보통신기기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별도 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표 I-5-5

기술수준별 분류

분류명	해당업종
첨단기술업종	의약품(D242),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D3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D3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D33), 항공기
고기술업종	화합물 및 화학제품(D24, 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D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D31), 자동차 및 트레일러(D34), 철도 및 기타운송장비(D352, 항공기 제외)
중기술업종	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D2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D25), 비금속광물제품(D26), 제1차금속(D27), 조립금속제품(D28), 선박 및 보트건조업(D351)
저기술업종	음식료품(D15), 담배(D16), 섬유제품(D1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D18), 가죽·가방 및 신발(D19), 목재 및 나무제품(D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D21),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D22), 가구 및 기타제조업(D36),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D37)

3) 생산에 대한 R&D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4개업종으로 분류(OECD, 「STAN Indicators: Industry Coverage」, 2004.9)

4) 통계청 분류기준 사용

표 1-5-6 산업형태별 분류

분 류 명	해 당 업 종
기초소재형 산업	섬유제품(D17), 목재 및 나무제품(D20), 펄프 및 종이제품(D21),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가공(D23), 화합물 및 화학제품(D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D25), 비금속광물제품(D26), 제1차금속(D27),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D37)
가공조립형 산업	조립금속제품(D28), 기타기계 및 장비(D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D30),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D3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D3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D33), 자동차 및 트레일러(D34), 기타운송장비(D35)
생활관련형 산업	음식료품(D15), 담배(D16),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D18), 가죽·가방 및 신발(D19),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D22), 가구 및 기타제조업(D36)

표 1-5-7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

분 류 명	해 당 업 종
정 보 통 신 기 기 체 조 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D30), 절연선 및 케이블 (D313, 단 D31303제외)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D32), 측정·시험·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D3321), 산업처리공정 제어정비(D3322)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업	정보통신기술관련 도·소매업, 통신업(J64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M72)

라. 연간 기업경영분석통계 이용상의 유의사항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표본설계에 의해 선정된 표본업체를 조사하여 모집단을 추정하므로 통계이용 및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증화계통추출법에 따라 각 층별로 선정된 표본업체의 재무제표 집계결과를 표본설계시에 정해진 확대배율(가중치)을 적용하여 모집단을 추정, 분석한 것이므로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나타난 수치는 모집단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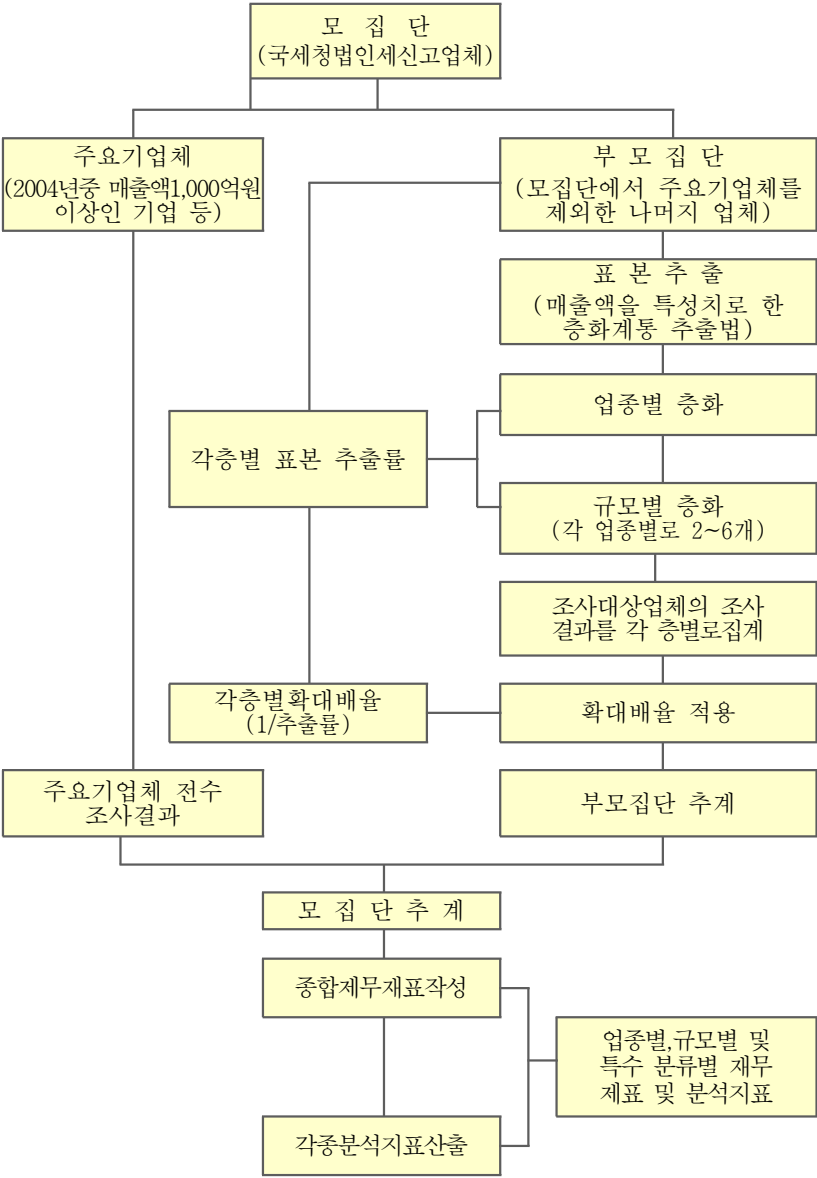
둘째, 조사대상업체의 휴·폐업 등 조사자료 수집상의 애로로 매년 일부 조사대상업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분석통계에 수록된 재무제표 각 항목들의 금액수치는 각 항목의 비율분석에는 유용하나 각 항목의 절대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서는 다소 제약을 갖는다.

셋째, 성장률 관련지표는 매년 조사된 2개년 비교대차대조표에 의해 산출된 것이므로 단순히 전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 책자에 수록된 각 항목의 금액수치와 비교한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다.

넷째, 손익의 관계비율중 배당성향지표와 이익잉여금처분상의 모든 지표는 이익잉여금처분내역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업체는 제외)으로 하여 관련비율을 산출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해당항목과 연계하여 비교할 수 없다.

다섯째, 조사대상업체의 업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단일 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 속한 업종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 특정제품의 국내 1위 생산업체라도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업종별 경영지표의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I-5-1 연간기업경영분석 조사작업 내용



6. 기업경영분석 통계 시계열의 단층

가. 표본설계방법 개선에 따른 시계열

1979년 조사시부터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표본추출방법을 종래의 단순유의추출방법에서 층화임의추출방법으로 개선하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업체 및 조사결과의 집계방법이 달라져 1977년과 1978년 사이에 기업경영분석 통계 시계열의 연속성에 일부 계층이 생기게 되었다.

나. 기업회계기준(재무제표규칙) 개정 및 조사표 양식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

1981년 6월의 재무제표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투자자산,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 전기손익수정항목 등 일부 계정과목의 분류 및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됨으로써 1981년을 전후해 기업경영분석 통계 시계열상의 연속성에 일부 단층이 생겼다. 특히 당좌비율 및 당기순이익 관련지표의 경우 비교적 큰 단층이 생겼는데 당좌비율은 재무제표규칙 개정에 따른 조사표양식 변경시 종래 기타유동자산에 일괄 계상되어 있던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당좌자산으로 별도 구분처리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으며(1981년 제조업기준으로 약 6%포인트 상승), 당기순이익 관련지표의 경우도 전기손익수정손익 처리방법 등의 변경으로 다소 영향(1981년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 약 0.04%포인트 상승)을 받게 되었다.

또한 여타 지표의 경우에도 재무제표규칙 개정의 영향을 다소 받게 되었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제약상 과거시계열의 소급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거시계열은 그대로 수록하였다.

한편 재무제표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계정과목의 신설 및 통합 등으로 1982년도 조사시부터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수록되는 재무제표

상의 계정과목 및 분석지표 항목이 다소 조정되었다.

1996년 3월의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계정과목 분류, 회계처리 방법 및 계정과목명 등이 <표 I-6-1>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시계열상의 연속성에 일부 단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특히 수익성 관련지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1997년 12월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거액의 환산손실을 이연자산(환율조정차)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익성 관련지표와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등에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1997년도 조사시부터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수록되는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이 일부 조정되었다.

1998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표 I-6-2>와 같이 일부 계정과목이 신설 및 통합되고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판 「기업경영분석」부터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이 일부 변경되었다.

다. 업종포괄범위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층

1985년 조사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 1984.1.26)에 의거 일부 업종의 포괄범위 및 명칭을 조정함으로써 시계열의 단층이 생기게 되었다. 직물제조업(3217)에 포함되었던 모직물제조업이 모방직제조업(3214)으로 분류되는 등 포괄범위가 상호 조정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모방직(3214)과 직물(3217)
- 석유정제(353)와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354)
- 가정용전기제품(3822)과 음악·영상·통신장비 및 전자부품 (3833)
- 도로화물운수(712), 운수관련 서비스업(79)과 기타 서비스업(99)

표 I-6-1 기업회계기준 개정(1996.3, 1997.12) 내역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계 정 과 목 분 류 변 경	자 산 분 류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과 기타 자산, 이연산을 정자산에 통합
	유 동 자 산 분 류	당좌자산, 채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당좌자산 채고자산	기타유동자산을 당좌자산에 통합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 금에 가감	손익계산서상특별 손익항목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투자자산처분손익 유가증권평가손익	특별손익	영업외손익	
	외 화 환 산 손 실	자본조정	이연자산 (환율조정차)	중요한 외화환산손실을 이연처리
회 계 처 리 방 법 변 경	유 가 증 권 평 가	취득원가 (또는저가법)	시가법	
	건 설 자 금 이 자	이자비용	해당자산 취득원가	이자비용의 자산화
	건 설 도 급 공 사 수 익 인 식 시 점	공사완성기준 또는 공사진행기준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시점 단일화
계 정 과 목 명 변 경	과 목 명 통 합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출채권	통합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매입채무	통합
		지급이자와 할인료, 회사채이자	이자비용	통합
	과 목 명 변 경	유형(무형)고정자산	유형(무형)자산	
		건설가계정	건설중인자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	
		수입이자	이자수익	
		수입배당금	배당금수익	

표 1-6-2

기업회계기준 개정(1998.12) 내역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계정과목분류변경	고정자산 분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삭제
	부 채 분 류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 삭제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익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손익 항목	이익잉여금 계산상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항목	
회 계 처 리 방 법 변 경	외 환 손 익	중요한 외환손실 (이익)은 이연자산 (이연부채)으로 처리하여 균등상각	당기손익처리	
	자 본 화 용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 제조에 장기간 소요시 관련 금융 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투자자산과 무형자산 의 취득시 소요된 금융비용도 포함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확대
	중 대 한 영 향 력 을 행 사 할 수 있 는 투 자 주 식 의 평 가	지분법 또는 원가법	지분법	투자주식 평가방법 단일화
	회 계 처 리 기 준 변 경 시 회 계 처 리	전진법	소급법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처분전이익잉여 금에 반영
	자 산 재 평 가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 인정	삭제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불인정
	파 생 상 품 회 계 처 리	주식으로 기재	파생상품을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차 대조표에계상	
	자 산 평 가	자산가치 하락시 취득원가 적용	자산가치 하락시 시가평가	자산가치 하락시 평가손실 인정
	연구개발비 회 계 처 리	연구비와 개발비 중 미래의 이익을 형성하는 비용은 연구비용으로 처리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개발비 중 미래의 이익을 형성하는 것은 무형 자산으로 처리	연구비의 당기비용화

1986년 조사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종의 분류체계, 배열순서 및 명칭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오락 및 문화 서비스업(99)의 포괄범위 및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시계열의 단층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1983년 산업 「센서스」 업종별 출하액 비중, 업종의 특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 업종이 분리, 통·폐합되었는데 조정내용은 <표 I-6-3>과 같다.

1988년 조사시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종을 분리함으로써 시계열의 단층이 생기게 되었는데 조정내용은 <표 I-6-4>와 같다.

표 I-6-3

업종분류 조정내역(1986년)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3114	국수 및 빵제품	3114	빵·과자 및 국수
3116	과자		
3212	끈 및 끈가공품	3219	기타섬유
3219	기타		
3833	음향·영상·통신 장비 및 전자부품	3832	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3834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391	장신구 및 관련제품	399	기타
399	기타		
711	도로여객운수	711	도로여객운수
712	도로화물운수	712	도로화물운수
		713	육상운수보조「서비스」업

표 1-6-4

업종분류 조정내역(1988년)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3111	낙농품 및 육지동물 고기가공	3111	육지동물고기가공 및 저장
		3112	낙농품
3122	기타식료품	3114	동식물유지
		3122	기타식료품
32114	인조섬유방직	32114	인조섬유방직
		32119	기타제사 및 방직
3212	직조업	3212	직조업
		3214	직물제품(의복제외)
3511	산업용기초화학	3511	유기화학제품
		3512	무기화학제품
		3513	염료·안료 및 유연제
3512	화학섬유·「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	(3511)	(유기화학제품)
		3514	화학섬유
3513	화학비료 및 농약	3515	화학비료
		3516	농약
3699	기타비금속광물	3693	「콘크리트」제품
		3699	기타비금속광물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3819	기타 조립금속제품
3829	기타기계	3822	농업용기계 및 장치
		3825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3826	「서비스」산업용기계
		3829	기타기계
3859	기타정밀기계	3851	의료용기구 및 광학용품
		3859	기타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비
399	기타	393	인형 및 장난감
		399	기타

표 I-6-5

업종분류 조정내역(1990년)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32111	제사 및 견방직	(세세분류 폐지)	
32112	면방직		
32113	모방직		
32114	인조섬유방직		
32119	기타 제사 및 방직업		
31221	커피 및 차가공업	(세세분류 폐지)	
4	전기·가스업	41	전기업
		42	「가스」 및 증기업
622	종합소매업	6221	백화점
		6229	기타종합소매업
7	운수·창고업	7	운수·창고 및 통신업
71	육상운수업	71	운수·창고업
711	도로여객운수업	711	육상운수업
712	도로화물운수업	7111	도로여객운수업
713	육상운수보조「서비스」업	7112	도로화물운수업
72	수상운수업	7113	육상운수보조「서비스」업
721	해상 및 내륙수상운수업	712	수상운수업
722	수상운수보조「서비스」업	7121	해상 및 내륙수상운수업
73	항공운수업	7122	수상운수보조「서비스」업
79	운수관련「서비스」업	713	항공운수업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7191	운수부대「서비스」업
		7192	보관 및 창고업
		72	통신업
82	사업「서비스」업	821	광고업
		829	기타사업「서비스」업

1990년 조사시에는 통신업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 변동에 따라 산업내 비중이 낮아진 일부 업종의 세세분류를 폐지하고 비중이 높아진 업종은 세분하였는데 이러한 조정내용은 <표 I-6-5>와 같다.

1994년 조사시에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9.9)에 의거 업종의 포괄범위와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시계열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지하고자 1990~1992년 기업경영분석 시계열 자료를 변경된 업종분류체계에 따라 소급·보정하여 1994년 기업경영분석 책자에 수록하였다. 한편 <표 I-6-6>의 32개 업종은 신·구업종의 92년도 기업경영분석 지표를 작성·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정된 시계열에 과거시계열을 연장·이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되어 이 내용을 책자에 별도로 명기하였다.

2001년 조사시에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 2000-1호, 2000. 1. 7, 시행 2000. 3. 1)에 따라 일부 업종의 포괄범위가 변경되어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거나 업종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업종 포괄범위가 변경된 경우는 시계열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1998~1999년 시계열 자료를 변경된 업종분류체계에 따라 소급 보정하여 2001년 기업경영분석 책자에 수록하였다. 시계열 보정 결과 업종 포괄범위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매출액 차이가 근소하여 과거 시계열과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전 시계열(1997년이전)과는 불연속이나 보정된 시계열(1998, 1999, 2000년) 내에서는 연속인 업종을 제외한 <표 I-6-7>의 17개 업종은 시계열 단층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업종이 신설되어 2001년 최초로 조사를 실시한 9개 업종은 2002년 책자부터 수록하였다.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D37)
- 일반소매업(G5280), 통신판매업(G5281)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M72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M724),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M721,3,9),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43), 사업지원서비스업(M75)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R90)

표 I-6-6

시계열 연속업종¹⁾(1994년)

신분류 업종	명 칭	구분류 업종
B	어업	1
D	제조업	3
D15	음식료품	31
D152	낙농품	3112
D192	신발	324
D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341
D2321	원유정제처리업	353
D2423	의약품,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3522
D2424	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3523
D251	고무제품	355
D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3551
D2694	시멘트,석회 및 프라스터	3692
D27	제1차금속	37
D2921	농업용 기계	3822
D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3842
D369	기타제조업	39
E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
E401	전기업	41
F	건설업	5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6
G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61
G5191	무역업	612
G5211-9,52199	종합소매업	6229
H551	숙박업	63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7
I6021,2	도로여객운수업	7111
I61	수상운송	7121
I62	항공운송	713
I64	통신업	72
K743	광고업	821
O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
O9213	방송업	92

주 : 1) 매출액 차이가 8%범위 이내이면서 각종 주요지표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업종

표 1-6-7

업종분류 조정내역(2001년)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D1541,3,4	빵,과자,코코아국수 및 유사식품	D1541	빵류 및 곡분과자
D1542,5	설탕,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D1545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D1548,9	식료품임가공업 및 기타식료품	D1549(2,3,4,9)	기타 식료품
D1711	제사,방직 및 직조업	D171 D172	제사 및 방직업 직물직조업
D221,2 D223	출판 및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D221 D223(2,3)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D231,3 D232 D2321	코크스 및 관련제품, 핵연료가공업 석유정제품 원유정제 처리업	D231 D232(2,3) D232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가공업 원유정제 및 핵연료가공업
D313~5,9	절연선 케이블 및 기타 전기장비	D313 D319(4,5,9)	절연선 및 케이블 기타 전기장비
D323	방송수신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D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K74 K741,2,9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광고업제외)	M74 M749(1,2,4,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O9211,2,4,9 O924	영화 및 기타 공연관련산업 운동, 경기 및 기타오락관련산업	Q873(1,3) Q88	영화 및 공연산업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표 I-6-8

업종분류 조정내역(2003년)

조 정 전 업 종		조 정 후 업 종	
		D16	담배제조업
D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분류폐지	
D232,3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		
D2321, D233	원유정제 및 핵연료 가공업		
D23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G511-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무역업 제외)		
G5191	무역업		

2003년 조사시에는 담배 제조업이 추가되었고, 업종의 매출액 비중, 특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 업종이 통·폐합되었는데 조정내용은 <표 I-6-8>과 같다.

라. 재무제표 및 분석지표의 시계열 단절

1996년 이후 현금흐름표 편제가 정착됨에 따라 2000년 조사시에는 자금운용표를 수록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용도가 낮은 일부 경영분석지표를 수록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경영분석지표를 <표 I-6-9>와 같이 확충하였다.

표 I-6-9

주요 분석지표 변동내역(2000년)

구 분	수 록 중 단 지 표	신 규 수 록 지 표
성장성에 관한 지표		경상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손익의 관계비율	경영자산영업이익율 감가상각비/총비용 수지비율 조세공과/총비용 인건비/총비용 적립금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인건비/매출액 재료비/매출액 순금융비용부담률 순외환손익/매출액 이자보상비율 EBIT/매출액 EBITDA/매출액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매출채권/상(제)품 매입채무/재고자산	현금비율 차입금 대 매출액
자산·자본의 회전율	원재료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생산성에 관한 지표	기계장비율	
현금흐름에 관한 지표		현금보상비율 금융비용보상비율 영업활동현금흐름/매출액 당기순이익/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유형자산투자지출 영업활동현금흐름/투자활동현금지출 영업활동현금흐름/총부채 영업활동현금흐름/차입금

2001년 조사에서는 이용도가 낮거나 기초자료의 정확성 부족으로 지표의 정도가 떨어지는 일부 지표를 수록 중단하고, 이자보상비율 편제기준을 변경(1998, 1999년 지표도 변경된 기준에 의해 보정)하는 등 수록지표를 <표 I-6-10>과 같이 일부 변경하였다.

표 I-6-10

주요 분석지표 변동내역(2001년)

구 분	주 요 내 용
수록 중단	경상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1인당부가가치증가율, 1인당매출액증가율 1인당인건비증가율
신규 수록	유형자산회전율
이자보상비율 편제기준변경	(경상이익 + 이자비용)/이자비용×100 → 영업이익/이자비용×100

2005년 조사에서는 인건비부담률 및 재료비부담률 편제시 OEM(주문자상표부착) 매출 증감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비중 변동성을 제거하여 볼 수 있도록 매출액대신 영업총비용을 이용하여 지표들을 추가로 작성하였으며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보조지표로 순이자보상비율을 신규 수록하였다.

표 I-6-11

주요 분석지표 변동내역(2005년)

구 분	지 표 변 경 내 역
신규 수록	순이자보상비율 재료비/영업총비용 인건비/영업총비용

주 : 영업총비용=당기총제조비용+판매비와관리비

Ⅱ. 기업경영분석 지표의 내용

1. 성장성분석 지표
2. 수익성분석 지표
3. 유동성분석 지표
4. 안정성분석 지표
5. 활동성분석 지표
6. 생산성분석 지표

1. 성장성분석 지표

성장성분석은 일정기간 중에 기업의 경영규모와 활동성과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를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성장성이란 기업의 규모나 영향력 등이 커져가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주로 계량화가 가능한 총자산, 유형자산, 매출액 등의 변동으로 측정된다. 기업의 자산, 매출규모 등의 성장 정도는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이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성장성은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등이 있다. 총자산증가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투자, 운용된 총자산의 전체적인 증가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매출액증가율 또한 외형적 신장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로서 경쟁력 변화의 척도로도 이용된다. 유형자산증가율은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잠재성장력을 추정할 수 있다.

성장률이 매우 높은 기업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 불능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성장성 분석시 유동성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장률 자체의 측정뿐만 아니라 제품 및 사업의 특성, 산업내의 경쟁구조 등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질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가. 성장성분석의 의의

성장성이란 기업의 규모나 영향력 등이 커져가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와 같으므로 성장이 정지된 기업은 활동력을 상실하여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노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을 평가할 때에는 성장성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성장은 외형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경영분석에서는 계수비교가 가능한 총자산, 유형자산, 매출액 등 외형적 성장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장성분석은 일정기간 중에 기업의 경영규모 및 기업 활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를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의 건전성 및 적정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장성 관련지표에는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등이 있다. 이중 대차대조표항목인 총자산이나 유형자산의 증가율은 기준시점에 대한 비교시점의 증가율이며, 손익계산서항목인 매출액증가율은 기준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비교기간 중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낸다.

기업의 정보이용자들은 성장성분석을 통해 기업의 미래 이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성장성 지표를 경쟁업체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 기업성장의 적정성 여부와 경쟁력 정도를 파악하며 이를 기초로 기업의 성장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투자가는 성장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게 되므로 투자종목 선택시 업종 및 기업간 성장성을 비교·분석하게 된다.

성장성을 분석할 때 특정업종이 산업체의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 유망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정기업의 성장률이 동

일업종내의 다른 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경쟁기업보다 시장지위의 확보가 빠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성분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심한 기간에는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실질성장률에 의한 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성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분별한 성장전략은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악화시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을 지급불능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현금흐름분석을 포함한 유동성분석과 수익성분석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성장률 자체의 측정뿐만 아니라 제품 및 산업의 특성, 산업 내의 경쟁구조 등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질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나. 성장성 관련지표 해설

(1) 총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total assets)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100$$

(2) 유형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설비투자동향 및 성장잠재력

을 측정할 수 있다.

$$\text{유형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유형자산}}{\text{전기말 유형자산}} \times 100 - 100$$

(3) 유동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current assets)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유동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유동자산}}{\text{전기말 유동자산}} \times 100 - 100$$

(4) 재고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inventories)

기업이 판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등의 재고자산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재고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재고자산}}{\text{전기말 재고자산}} \times 100 - 100$$

(5) 자기자본증가율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내부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자기자본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자기자본}}{\text{전기말 자기자본}} \times 100 - 100$$

(6) 매출액증가율 (Growth rate of sales)

전기 매출액에 대한 당기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text{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100$$

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성 변동추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981년 33.9%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 이후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외환위기이전에는 기업들이 외형성장을 중시하여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더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매출액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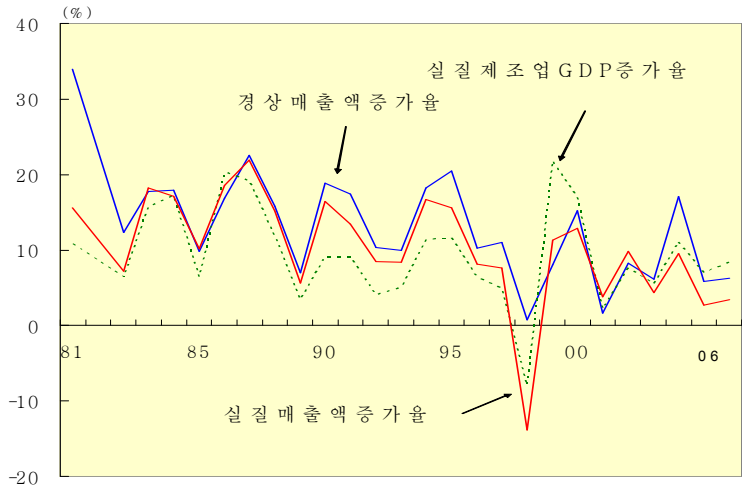
특히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는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액증가율이 0.7%를 기록하여 매출액이 전년수준에서 정체되기도 하였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매출이 다시 큰 폭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수출호조로 매출액증가율이 17.1%를 기록,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실질매출액증가율은 물가가 1980년대 이후 안정세를 보임⁵⁾에 따라 경상매출액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업규모별로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중화학업종의 매출신장세가 둔화되어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대기업을 상회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을 매출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 생산자물가상승률 : 1971~1980년 17.5%, 1981~1990년 2.7%,
1991~2000년 3.3%, 2001~2006년 2.0%

그림 II-1-1 제조업의 매출증가율 추이



주 : 실질매출액증가율 = 경상매출액증가율 - 생산자물가상승률

표 II-1-1 기업규모별 매출액증가율¹⁾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6	06
제 조 업	17.3	13.9	6.4	8.7	6.3
대 기 업	17.2	15.1	6.5	9.2	6.5
중소기업	18.1	11.1	6.2	7.9	5.9

주 : 1) 기간중 연평균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증가율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1-2

기업규모별 유형자산증가율¹⁾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6	06
제 조 업	18.1	15.6	4.5	3.3	6.0
대 기 업	18.1	16.7	3.3	2.5	5.5
중소기업	19.0	11.0	8.7	5.6	7.2

주 : 1) 기간중 연평균

유형자산증가율은 1980년대와 외환위기 이전(1991~1997년)에는 각각 연평균 18.1% 및 15.6%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1년중에는 4.5%로 낮아졌으며, 2002~2006년중에는 3.3%로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추진 및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차입경영에 의한 외형성장 보다는 수익성위주의 경영으로 전환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수익성분석 지표

수익성분석은 기업의 경영성과 및 이익창출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익성비율의 경우 분자에는 이익항목이, 분모에는 투하된 자산 또는 매출액이 사용되는데 이는 생산·판매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높은 수익성은 고율의 배당, 재투자를 통한 기업규모 확대, 임금 인상 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수익성지표는 경영자, 주주, 채권자, 종업원, 세무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수익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활동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매출액경상이익률 등이 있다.

수익성분석은 발생주의 개념하의 회계적 이익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큰 경우에도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분석을 하는 경우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및 현금흐름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 수익성분석의 의의

기업활동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이익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영분석의 초점은 수익성분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수익성분석은 기업의 경영성과 및 이익창출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수익성 비율은 분자에는 이익항목이, 분모에는 투하된 자산 또는 매출액이 사용되는데 이는 생산·판매 등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손익계산서 이익항목은 영업활동과의 연관성 또는 경상적 거래여부 등에 따라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수익성을 판단하는 항목으로 사용된다. 기업회계기준 개정(2007년 1월 시행)으로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 매출액경상이익을 대신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대체지표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익⁶⁾은 경영활동의 최종성과이므로 이익규모는 클수록 유리하지만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간의 수익성을 비교할 경우에는 이익의 절대금액을 직접 비교하여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익성지표로는 총자산세전순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이 있으며, 이중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지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익성지표 중 이익항목을 투하된 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할 때는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s) 이라고도 하며, 투하자산과 이익의 결합방법에 따라 총자산세전순이익률,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등 다양한 투자수익률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6) 수익(收益, revenue)이란 재화의 생산·판매, 용역의 제공 및 그 밖의 주요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현금, 매출채권 등의 증가)을 말하며, 이익(利益, income)이란 수익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희생된 가치인 비용(費用, expenses)을 차감한 금액이며,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손실(損失, loss)이라 한다.

투하된 총자산의 단위당 이익 금액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우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로 분해함으로써 변동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판매마진을 의미하며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의 활동성을 나타낸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rac{\text{순이익}}{\text{총자산}} = \frac{\text{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총자산순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수익성지표는 기업이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등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나타내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경영자는 사업확장이나 신규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주주는 주식 종목 선택의 기준으로, 채권자는 장기적 안정성의 판단기준으로, 종업원은 임금교섭의 기준으로, 또한 세무당국은 담세능력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수익성분석은 손익계산서상의 회계적 이익을 기초로 하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큰 경우에도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익성분석을 통해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익성분석을 하는 경우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분석 및 현금흐름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 균형있는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수익성 관련지표 해설

수익성지표 산출시 저장(貯量, stock) 개념의 대차대조표 항목과 유량

(流量, flow) 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1) 매출액영업이익률 (Operating income to sales)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2) 매출액세전순이익률 (Net income before tax to sales)

매출액경상이익률(Ordinary income to sales)*

기업경영활동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활동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 2007년부터 한국회계기준서 변경으로 매출액경상이익률 폐지

$$\text{매출액세전순이익률}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경상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경상이익률)

(3) 금융비용부담률 (Interest expenses to sales)

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경영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비용에는 대출이자, 회사채이자 등이 포함되며 금융비용부담률은 차입

금평균이자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높고 총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낮다.⁷⁾

$$\text{금융비용부담률} = \frac{\text{이자비용}}{\text{매출액}} \times 100$$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매출수준에 관계없는 고정비 성격의 항목이므로 불황에 대비한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호경기에는 재무레버리지효과(Financial leverage effect)에 의해서 차입금 비중이 클 경우 주당이익의 증가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향후 성장가능성 및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외부차입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차입금평균이자율 (Interest expenses to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회사채, 금융기관차입금 등과 같은 이자부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로서 차입금에 대한 종합적 평균이자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과 다른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봄으로써 타인자본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text{차입금평균이자율} = \frac{\text{이자비용}}{\text{회사채} + \text{장·단기 차입금}} \times 100$$

7) 이자비용/매출액 = 이자비용/차입금 × 차입금/총자산 × 총자산/매출액
(금융비용부담률) (차입금평균이자율) (차입금의존도) (총자산회전율의 역)

<참고>

재무레버리지효과 (Financial leverage effect)⁸⁾

재무레버리지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 가운데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타인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타인자본을 사용하게 되면 영업이익의 증가나 감소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금융비용이 지급되고 그 나머지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계상된다. 이와 같이 금융비용의 고정비적 성격으로 인하여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영업이익의 증감에 정비례하여 변화하지 않으며 이를 재무레버리지효과 (Financial leverage effect)라고 한다

재무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화

(단위 : 억원)

영업이익	100 (50% 감소)	200 (현재)	300 (50% 증가)
이자 (-)	100 (고정)	100 (고정)	100 (고정)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0 (100% 감소)	100 (현재)	200 (100% 증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이익이 50% 변동할 때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0%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타인자본을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지급이자, 즉 금융비용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무레버리지효과는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차입금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8)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III-3. 레버리지 분석」 참조

<참고>

금융비용부담률의 변화 요인

금융비용부담률은 금융비용 및 매출액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은 다시 금리요인과 잔액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비용부담률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봄으로써 재무활동상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은 1.16%로 2004년보다 0.15%p 하락하였는데 이를 금융비용요인과 매출액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금융비용면에서는 차입금감소로 0.05%p 하락효과를 보았으나 차입금평균이자율의 상승으로 0.01%p 상쇄되어 총0.04%p의 하락효과를 나타냈다. 여기에 매출액 증가에 따른 0.11%p 하락효과가 가산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금융비용부담률이 0.15%p 낮아졌다.

금융비용부담률의 변화 요인

(단위 : %, %p)

		2003	2004	2005
금융비용부담률		1.87	1.31	1.16
(전년대비 변화폭)		(-0.72)	(-0.56)	(-0.15)
요인별 가여도	금융비용 요인	-0.58	-0.34	-0.04
	금리 요인	-0.26	-0.24	0.01
	잔액 요인	-0.32	-0.10	-0.05
	매출액 요인	-0.14	-0.22	-0.11

(5) 이자보상비율 (Interest coverage ratio)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이자부담능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100%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지급이자분만 감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수입이자(상당한 규모⁹⁾)에 이를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능력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이자비용을 이용하여 산출한 순이자보상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6) 총자산세전순이익률 (Net income before tax to total assets)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측정한다.

$$\text{총자산세전순이익률}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한편 이 비율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매출액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과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곱으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총자산세전순이익률} &= \text{매출액세전순이익률} \times \text{총자산회전율}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총자산}}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end{aligned}$$

예를 들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높으나 총자산회전율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마진은 높았으나 기업의 판매활동이 부진하였음을 나타낸다.

9) 2006년의 경우 제조업의 수입이자금액은 지급이자금액의 40.3%에 해당

(7) 총자산순이익률 (Net income to total assets)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된다.

$$\text{총자산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8)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Ordinary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text{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9) 자기자본순이익률

(Net income before tax to stockholders' equity)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ROE(Return on equity)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본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 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text{자기자본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10) 자본금세전순이익률

(Net income before tax to capital stock)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비율이다. 앞에서 설명한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금 외에도 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자자의 지

분에 상응하는 정확한 이익률의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자본금세전순 이익률은 이에 대한 보조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text{자본금세전순이익률}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text{자본금}} \times 100$$

(11) 자본금순이익률 (Net income to capital stock)

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기업의 배당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시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에 참고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text{자본금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본금}} \times 100$$

(12) 매출액순이익률 (Net income to sales)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13) 매출원가 대 매출액 (Cost of goods sold to sales)

매출액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원가율 또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매출원가 대 매출액} = \frac{\text{매출원가}}{\text{매출액}} \times 100$$

(14) 고정비 대 매출액 (Fixed costs to sales)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조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경기불황시에는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지출은 줄지 않아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

료, 이자비용 등은 고정비로 분류된다.

$$\text{고정비 대 매출액} = \frac{\text{고정비}^*}{\text{매출액}} \times 100$$

* 고정비¹⁰⁾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 (노무비의 1/2 + 제조경비 - 외주가공비 + 재고조정중의 고정비^{**})

** 재고조정중의 고정비¹¹⁾ =

$$(\text{매출원가} - \text{당기총제조비용}) \times \frac{(\text{노무비의} 1/2 + \text{제조경비} - \text{외주가공비})}{\text{당기총제조비용}}$$

(15) 변동비 대 매출액 (Variable costs to sales)

변동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조업도가 낮거나 설비가 지나치게 많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것은 고정설비의 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은 적정조업도 및 투자설비규모의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은 변동비로 분류된다.

$$\text{변동비 대 매출액} = \frac{\text{변동비}^*}{\text{매출액}} \times 100$$

* 변동비 = 총비용 - 고정비 - 특별손실

(16)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to sales)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등과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10) 비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와 관련된 고정비는 발생하지 않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만 고정비에 포함된다.

11) 재고조정액 = (기초제품재고 - 기말제품재고) + (기초재공품재고 - 기말재공품재고)
 = (기초제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재고 + 당기총제조비용 - 기말재공품재고 - 당기총제조비용)
 = (매출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비용)
 = 매출원가 - 당기총제조비용

$$\text{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 \frac{\text{연구개발비}^*}{\text{매출액}} \times 100$$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개발비상각액 등

(17) 인건비 대 매출액 (Employment costs to sales)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무관리 및 인건비 결정에 이용된다.

$$\text{인건비 대 매출액} = \frac{\text{인건비}}{\text{매출액}} \times 100$$

(18) 재료비 대 매출액 (Material costs to sales)

매출액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재료 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text{재료비 대 매출액} = \frac{\text{재료비}}{\text{매출액}} \times 100$$

(19) 순외환손익 대 매출액 (Net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nd translation to sales)

환율변화에 따라 발생한 순손익이 매출액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순외환손익 대 매출액

$$= \frac{\text{외환차익} + \text{외환환산이익} - \text{외환차손} - \text{외환환산손실}}{\text{매출액}} \times 100$$

(20) EBIT 대 매출액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to sales)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타인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이 금융비용 발생으로 타인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수익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즉 EBIT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금융비용을 더해 산출되므로 자금의 조달방법과 관계없는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다.

$$EBIT \text{ 대 매출액}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 \text{이자비용}}{\text{매출액}} \times 100$$

(21) EBITDA 대 매출액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o sales)

EBITDA는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된다. 회계상의 순이익이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비해 EBIT와 EBITDA는 이러한 영향이 배제된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수익성 판단지표로 유용하게 쓰인다.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 \text{이자비용} + \text{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text{매출액}} \times 100$$

(22) 금융비용 대 부채 (Interest expenses to liabilities)

기업의 부채에는 차입금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충당금 등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이자부부채가 있다. 금융비용 대 부채비율은 이러한 비이자부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text{금융비용 대 부채} = \frac{\text{이자비용}}{\text{부채}} \times 100$$

(23) 금융비용 대 총비용 (Interest expenses to total expenses)

총비용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차입금의 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text{금융비용 대 총비용} = \frac{\text{이자비용}}{\text{매출원가} + \text{판매비와관리비} + \text{영업외비용} + \text{특별손실}} \times 100$$

(24) 순금융비용 대 매출액 (Net interest expenses to sales)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잔액 즉 금융거래로 지급한 순이자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다.

$$\text{순금융비용 대 매출액} = \frac{\text{이자비용} - \text{이자수익}}{\text{매출액}} \times 100$$

(25) 손익분기점률 (Break-even point ratio)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란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총영업비용이 일치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매출량 또는 매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손익분기점률이란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과 실현된 매출액과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의 채산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높을수록 채산성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손익분기점분석이란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여 조업도 변동에 따른 기업의 수익, 비용 및 이익의 상호변동관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매출 및 이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경영분석에서의 손익분기점분석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text{손익분기점률} = \frac{\text{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text{매출액}} \times 100$$

$$\text{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 \frac{\text{고정비} - \text{영업외수익}}{1 - \frac{\text{변동비}}{\text{매출액}}}$$

(26) 사내유보율 (Accumulated earnings ratio)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사내유보분의 비중을 표시하는 비율로 당기에 이룩한 경영성과 중에서 사내유보된 비율을 나타내는 플로우(Flow) 개념이다.

$$\text{사내유보율} = \frac{\text{사내유보}^*}{\text{처분전이익잉여금} + \text{임의적 적립금이입액}} \times 100$$

*사내유보 = 당기에 처분된 이익준비금 + 기타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7) 배당률 (Dividends to capital stock)

주식발행총액(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의 비율로서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이 되므로 투자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text{배당률} = \frac{\text{배당금}}{\text{자본금}} \times 100$$

(28) 배당성향 (Dividends to net income)

기업이 당기순이익중 어느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외배당률(payout ratio)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배당률만으로는 배당지급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률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배당성향} = \frac{\text{배당금}}{\text{당기순이익}} \times 100$$

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익성 변동추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80년대 이후 7% 내외를 기록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1년(평균)에는 6.4%로 낮아졌으며, 특히 2001년에는 미국의 테러 영향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5.5%까지 하락하였다가 2002년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면서 2004년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7.6%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 이후 다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금융비용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동기복을 보이고 있다.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2% 내외의 경상이익률을 보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1.8%를 기록,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차입금평균이자율과 금융비용부담률이 크게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경상이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1965년의 7.9%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7.8%를 기록하였다.

한편 기업규모별 수익성을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80년 이후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외환위기 직후 잠시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 다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직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대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던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금융비용부담도 낮아짐으로써 대기업의 경상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2-1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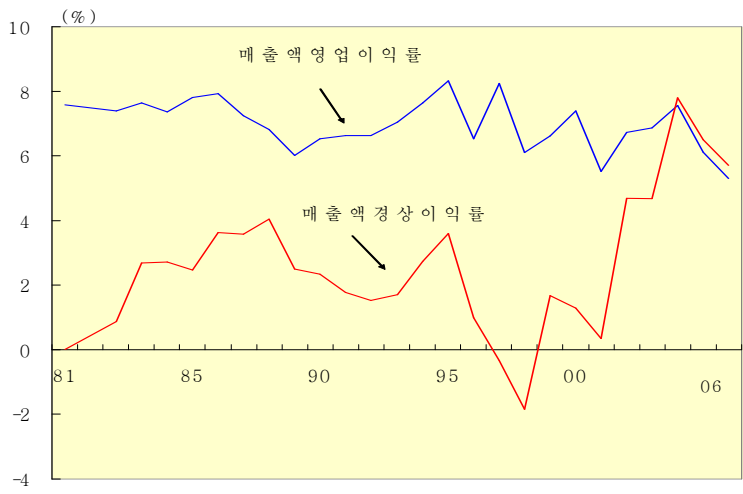


표 II-2-1 기업규모별 수익성¹⁾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6	06
매출액 영업 이익률	제 조 업	7.2	7.3	6.4	6.5	5.3
	대 기 업(A)	7.6	8.3	7.0	7.7	6.0
	중소기업(B)	5.7	4.8	5.2	4.5	4.3
	A - B	1.9	3.5	1.8	3.2	2.8
매출액 경 상 이익률	제 조 업	2.5	1.7	0.4	5.9	5.7
	대 기 업(C)	2.4	1.9	-0.6	7.3	7.0
	중소기업(D)	2.7	1.2	2.2	3.3	3.5
	C - D	-0.3	0.7	-2.8	4.1	4.2

주 : 1) 기간중 연평균

<참고>

손익분기환율을 이용한 수출채산성 분석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추정한 손익분기환율을 연평균환율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부문의 수익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 손익분기환율 추정방법 >

- 수출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0이 되는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환율)을 계산

수출영업이익(g)

= 수출액 - 수출관련 제비용

= 달러표시수출액(a)×환율(E) - 달러표시수입재료비(b)×환율(E) - {국산재료비(c)+노무비(d)+경비(e)+판매관리비(f)}

수출영업이익(g)을 0으로 두고 다시 정리하면

$$E \times (a - b) - (c + d + e + f) = 0$$

$$E_p = \frac{c + d + e + f}{a - b}$$

$$\text{손익분기환율} = \frac{(\text{국산재료비} + \text{노무비} + \text{경비} + \text{판매관리비})}{(\text{달러표시수출액} - \text{달러표시수입재료비})}$$

< 추정의 전제 >

- ① 제조업 수출부문의 영업이익 기준에 국한하며, 수출과 내수의 비용구조는 동일
- ② 환율의 영향을 받는 손익항목을 수출액과 수입재료비로 국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입물량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
- ③ 수출입대금은 전액 미 달러화로 결제

3. 유동성분석 지표

유동성(Liquidity)이란 보유자산을 단기간 내 정상적인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데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으로 흑자도산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 유동성분석이란 이와 같이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자의 경우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기업의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영분석지표는 유동비율로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거나 진부화가 빠른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기업은 당좌비율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당좌비율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한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유동성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 기업 규모, 분석자의 입장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 즉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유동성을 선호하게 되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동자산의 과다보유는 기업 수익성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유동자산에는 현금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단기 지급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분석이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유동성분석의 의의

유동성분석은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또는 신용평가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재무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성(Liquidity)이란 단기간 내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유동자산(Current assets)이란 1년 또는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구분하며, 유동자산은 다시 현금화의 용이성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유동성분석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거나 진부화가 빠른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당좌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동성 관련지표를 판단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유동비율은 200%, 당좌비율은 100% 이상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절대적인 평가기준 대신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 기업규모, 분석자의 입장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으므로 높은 유동성을 선호하는 반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동자산의 과다보유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관련비율을 분석하는 경우에 유동자산의 현금화 속도 및 과정에 대해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동자산 중에 현금이 아닌 재고자산이나 선급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동성이 양호하게 나타난 경우에도 실질적인 단기지급능력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동성 분석 시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과 현금흐름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단기지급능력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나. 유동성 관련지표 해설

(1) 유동비율 (Current ratio)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한다.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2) 당좌비율 (Quick ratio)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서 유동자산중 현금화되는 속도가 늦고 현금화의 불확실성이 높은 재고자산 등을 제외시킨 당좌자산을 유동부채에 대응시킴으로써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산성시험비율(Acid test ratio) 또는 신속비율이라고도 하는 이 비율은 기업의 유동성분석을 위한 보조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text{당좌비율} = \frac{\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3) 현금비율 (Cash ratio)

유동부채에 대한 현금과 예금의 비율로서 당좌자산중 현금과 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 포함) 등으로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초단기 채무지급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text{현금비율} = \frac{\text{현금 및 현금등가물}}{\text{유동부채}} \times 100$$

(4)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Receivables to payables)

기업간 신용관계를 나타내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대비시킨 것으로 기업의 자금관리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유동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매출채권의 과다한 보유는 오히려 자금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text{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 \frac{\text{매출채권}}{\text{매입채무}} \times 100$$

(5)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Net working capital to total assets)

기업 지급능력의 기초가 되는 순운전자본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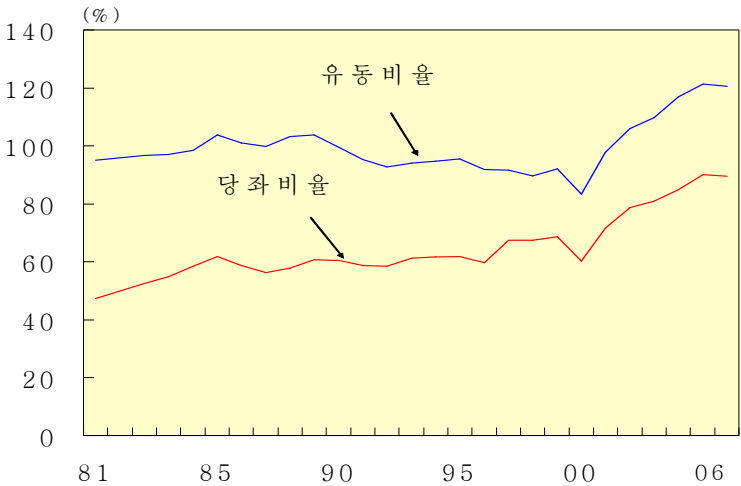
$$\text{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 \frac{\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text{총자본}} \times 100$$

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유동성 변동추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유동성지표를 유동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100% 내외의 수준을 보이다가 1990년대 들어 9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는 83.2%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일부 부실대기업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한 데 힘입어 유동비율이 100% 수준을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121.4%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유동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현금 등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려는 유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좌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가 점차 효율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3-1

제조업의 유동성 지표 추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유동비율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유동비율이 대기업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주기가 짧아 활동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단기지급불능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동성(현금·예금 보유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3-1

기업규모별 유동비율¹⁾ 추이

	(단위:%)				
	81~90	91~97	98~01	02~06	06
제 조 업	99.8	93.7	90.7	114.9	120.5
대 기 업	98.9	94.1	81.7	111.9	118.1
중소기업	104.2	92.6	111.7	119.9	124.0

주 : 1) 기간중 연평균

4. 안정성분석 지표

안정성분석이란 기업이 장기성 타인자본을 사용함에 따른 채무 이행불능위험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이용자들은 안정성분석을 통하여 장기채무의 상환능력과 조달된 자본이 기업의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에 적절히 분배되었는가를 측정하며, 기업지배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 및 경기변동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등이 있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과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장기 안정성 판단에 주로 이용되며 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과 고정장기적합률(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은 자금운용측면에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업이 타인자본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재무구조가 부실해져 경영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단기 유동성의 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더 높은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성장을 무리없이 추진할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익성과 장기부채의 추가 조달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안정성분석의 의의

기업의 안정성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적정성장과 수익을 실현하면서 장기채무상환을 무리없이 이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정성은 일차적으로 기업활동에 투하된 자금중에서 장기성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비중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황기에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레버리지효과에 의해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확대되지만 불황기에 타인자본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급불능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안정성분석은 대차대조표 항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태비율분석으로서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과 같이 타인자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레버리지비율이 주로 사용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레버리지비율을 통해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다. 한편 타인자본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도 지배가 가능하므로 투자자는 안정성분석을 통해 기업지배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이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과 같이 대차대조표 항목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채의존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며 금융비용부담률(이자비용/매출액)과 같이 손익계산서 항목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채의존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안정성은 레버리지비율 이외에 조달된 자본이 기업의 자산에 얼마나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즉 자금운용 측면에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정비율이나 고정장기적합률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고정비율과 고정장기적합률의 표준비율은 100% 이하인데 이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장기성 자금은 가급적 상환부담이 없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

람직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설비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 발생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타인자본은 장기성 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타인자본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재무구조가 부실해져 경영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단기 유동성의 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더 높은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기회를 상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성장을 무리없이 추진할 정도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장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의 차입금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에 대한 분석과 장기부채 추가조달능력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안정성 관련지표 해설

(1) 자기자본비율 (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소유자지분(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지분)이라고 하며 기업의 소유자가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주주지분은 조달원천에 따라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자본금은 기업의 정관에서 확정된 자본금 중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잉여금은 다시 주주지분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발행, 증자 또는 감자와 같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불가능하다. 이익잉여금은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 나타난 잉여금중 사외유출분을 제외하고 내부에 유보된 이익을 말한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

본이므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의 손비처리가 인정되는 외부차입에 의한 자금 조달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발행, 내부유보 등과 같이 자기자본 증대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배당금의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절감효과(Tax shield effect)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외부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 비율이 낮으면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불황이 계속될 경우 도산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기업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

(2) 고정비율 (Fixed ratio)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정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고착되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상환기한이 없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text{고정비율} =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

(3) 고정장기적합률

(Fixed assets to stockholders' equity and long-term liabilities)

고정장기적합률은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자금 조달의 적정성과 투자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안

정적이나, 실제로 거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부족한 자금을 모두 자기자본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더라도 단기부채보다는 비교적 상환기간이 긴 장기부채로 조달하게 되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text{고정장기적합률} =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 \text{고정부채}} \times 100$$

(4) 부채비율 (Debt ratio)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고정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 + \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5) 유동부채비율 (Current liabilities ratio)

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측정

하는 보조지표이다.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자본구성의 안정성은 물론 재무유동성도 불안정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text{유동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6) 고정부채비율 (Fixed liabilities ratio)

자기자본에 대한 고정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이다.

$$\text{고정부채비율} = \frac{\text{고정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7) 차입금의존도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to total assets)

총자본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text{차입금의존도} = \frac{\text{장·단기차입금} + \text{회사채}}{\text{총자본}} \times 100$$

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안정성 변동추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차입경영에 의한 외형성장위주의 경영정책으로 외환위기전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노력과 수익성위주의 경영 등으로 부채비율이 1997년 396.3%에서 2006년에는 98.9%로 급속히 하락한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20.2%에서 2006년 50.3%로 크게 상승하였다.

차입금의존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및 1998년에 50%를 상회하였으며 금리까지 크게 상승하여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 9.0%

에 달하는 등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금융비용부담 증가가 경상이익 적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정부는 40여개의 대기업계열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2001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이행토록 하는 등 강제성을 띤 기업채무구조 개선계획을 추진한 데다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에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보다는 부채상환에 주력함에 따라 2006년에는 차입금의존도가 1998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2.4%로 크게 낮아졌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체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주식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한 데다 수익성도 중소기업보다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4-1

제조업의 안정성관련 주요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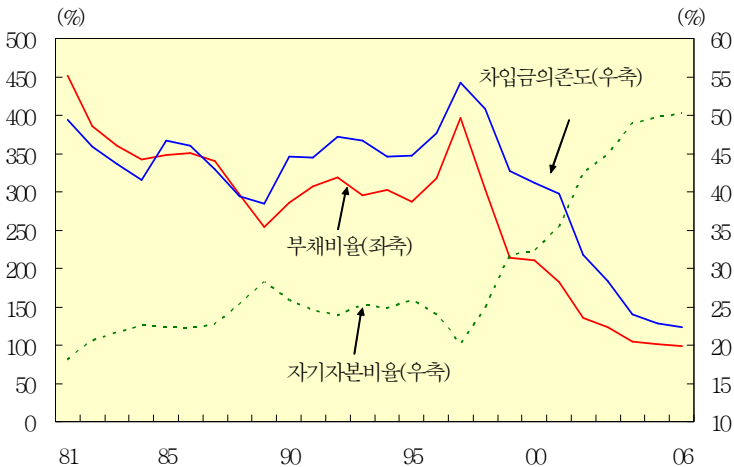


표 II-4-1 제조업의 안정성관련 주요지표¹⁾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6	06
부채비율	341.6	317.6	227.6	112.6	98.9
대기업	336.0	301.0	232.6	101.1	85.5
중소기업	372.4	400.1	222.8	142.4	132.6
자기자본비율	23.0	24.1	31.1	47.3	50.3
차입금의존도	43.9	47.1	43.6	25.9	22.4

주 : 1) 기간중 연평균

한편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2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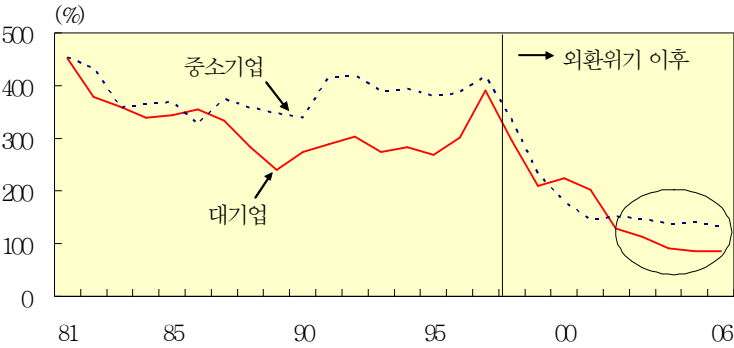


표 II-4-2 2001~2006년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01	02	03	04	05	06
제조업	182.2	135.4	123.4	104.2	100.9	98.9
대기업	201.6	128.9	113.5	91.7	86.1	85.5
중소기업	144.7	152.1	147.6	138.7	140.9	132.6

5. 활동성분석 지표

활동성분석은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산을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활동성의 측정에는 매출액을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회전을 지표가 이용된다.

활동성분석을 통해 영업활동 단계별로 자금이 고정화되어 있는 정도와 자금의 회수기간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회전율의 역수를 취하여 365일을 곱하면 판매액의 회수기간 또는 특정자산이 현금화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회전율은 계절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간중 평균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의 활동성에 관한 정보는 다른 평가기준과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저가판매를 통한 판촉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판매이익률은 하락하는 반면 회전율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투자가 부진하면 활동성지표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미래의 이익확대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활동성분석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 활동성분석의 의의

기업의 활동성, 즉 기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측정하려면 자산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된다.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을 막론하고 기업에 투하된 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되어 수익을 발생시키며 이 수익은 다시 기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자본의 회전이며 이 회전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본의 이용률은 높아지게 된다.

활동성분석은 기업이 조달한 자본 또는 투하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투입된 자본을 끊임없이 회전시키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매출액으로 대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성은 매출액과 각 자산, 부채, 자본항목 등에 대한 회전배수로 측정되는 회전율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성비율을 이용하면 영업활동 순환과정의 각 단계(현금→재고자산→매출→외상매출금→현금)별로 자금의 회수기간 또는 자금이 묶여있는 기간을 알 수 있다. 회전율의 역수에 365일을 곱하면 회수기간의 의미가 있으므로 특정자산이 현금화되는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재고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등은 투하된 자산 1단위가 매출실현에 어느 정도 활발히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므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요운전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측정하는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등은 동일산업내의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자사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 외상매입금의 상환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적정한 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전율 지표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회전율 지표 산출시 계절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중 평균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업의 활동성에 관한 정보는 다른 평가기준과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 저가판매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판매이익률은 하락하게 되나 자산회전율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경기호전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설비투자가 부진한 경우 유형자산의 활동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래의 성장가능성과 이익창출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의 투자수익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이익률과 자산의 회전율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정책 및 마케팅전략의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활동성 관련지표 해설

활동성지표 산출시 저장(Stock)개념의 대차대조표 항목과 유량(Flow)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매출액)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1) 총자산회전율 (Total assets turnover)

총자산이 1년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경상이익률과 함께 기업의 총자산경상이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총자산회전율이 높으면 유동자산, 고정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낮으면 과대투자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총자산회전율이 높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text{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2) 자기자본회전율 (Stockholders' equity turnover)

자기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기자본 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자기자본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

(3) 자본금회전율 (Capital stock turnover)

납입자본금의 회전속도, 즉 자본금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자본금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자본금}}$$

(4) 경영자산회전율 (Operating assets turnover)

영업활동에 직접 투입·활용되고 있는 경영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이다.

$$\text{경영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 (\text{건설중인자산} + \text{투자자산})}$$

(5) 고정자산회전율 (Fixed assets turnover)

고정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판단하는 수단이 되며 유동성분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보조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text{고정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고정자산}}$$

(6) 유형자산회전율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urnover)

유형자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자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이 비율이 높으면 고정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등의 고정비가 제품단위당 체감적으로 배분되어 원가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영업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text{유형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유형자산}}$$

(7) 재고자산회전율 (Inventories turnover)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현금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재고손실 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의 절약 등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재고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기업이나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로 후입선출법(LIFO)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재고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생산기간이 단축되어 재공품이 감소하였는지, 기업의 재고보유 방침이 바뀌었는지, 또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ext{재고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8) 상(제)품회전율 (Merchandise turnover)

상(제)품에 투하된 자금의 회전속도, 즉 상품이 일정기간 동안 몇 번 당좌자산으로 전환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상(제)품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상(제)품}}$$

(9) 매출채권회전율 (Receivables turnover)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채권회전율의 역수를 취하여 365일을 곱하면 평균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판매자금이 매출채권에 오래 묶여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전략을 강화하는 경우 매출채권회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목표회수기간이나 판매조건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text{매출채권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매출채권}}$$

(10) 매입채무회전율 (Payables turnover)

매입채무의 지급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의 부채중에서도 특히 매입채무가 원활히 결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매입채무회전율이 높을수록 결제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나 회사의 신용도가 저하되어 신용 매입기간을 짧게 제공받는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매출채권 회전율과 함께 분

석함으로써 운전자본의 압박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text{매입채무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매입채무}}$$

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동성 변동추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자산회전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경제개발로 1980년대 중반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1980년대 후반에는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와 경공업부분의 구조조정투자 등으로 총자산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경기부진으로 매출신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인 1990년대 후반에 가장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반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총자산회전율은 상승추세를 보였다.

그림 II-5-1 제조업의 활동성 관련 주요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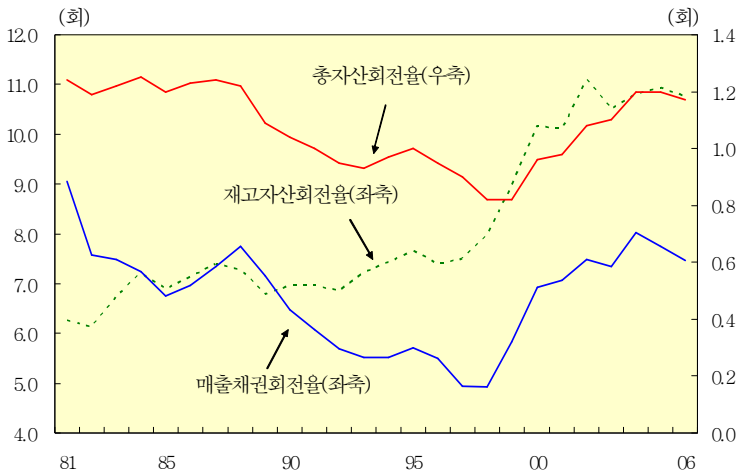


표 II-5-1 제조업의 활동성 관련 주요지표¹⁾ 추이

(단위 : 회)

	81~90	91~97	98~01	98~06	06
총 자산 회 전 율	1.19	0.96	0.90	1.15	1.17
대 기 업	1.12	0.87	0.80	1.07	1.10
중 소 기 업	1.58	1.28	1.19	1.32	1.31
재 고 자 산 회 전 율	6.88	7.29	9.31	10.82	10.77
매 출 채 권 회 전 율	7.38	5.56	6.19	7.61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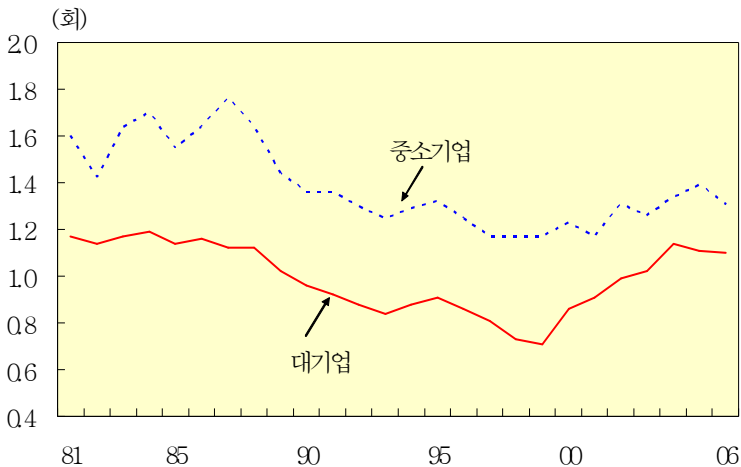
주 : 1) 기간중 연평균

재고자산의 운용효율을 나타내는 재고자산회전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기업들이 재고관리기법을 향상시켜 적정재고를 보유하는 등 과도한 재고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거듭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매출채권회전율은 할부 신용판매 증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매출채권 증가로 1990년대 후반 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결제관행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총자산회전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장치산업의 비중이 큼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자산회전율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5-2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총자산회전율 추이



6. 생산성분석 지표

생산성이란 투입(Input)에 대한 산출(Output)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가 됨에 따라 중요시되고 있는 개념이다. 생산성분석은 기업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평가하고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근래에는 경영 성과를 부가가치생산성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부가가치는 기업이 제조·가공하여 판매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가산법과 차감법이 있는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통계에서는 가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성분석을 통하여 입수되는 생산요소별 부가가치 생산성에 대한 정보는 합리적인 부가가치의 분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산성 지표로는 부가가치율과 각 생산요소별 생산성을 측정하는 노동생산성지표와 자본생산성지표가 있다.

생산성지표인 부가가치율 등이 증가한 경우에도 기업의 이익은 변하지 않고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등의 항목만 더 크게 증가하였다면 생산성의 증가로 기업의 성장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생산성을 분석할 때에는 부가가치의 항목별 구성비와 각각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고 수익성분석의 결과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 생산성분석의 의의

생산성이란 일반적으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 1단위에 대한 산출 수준을 의미한다. 기업은 자본, 노동, 기술,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 내므로 생산성 또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과 같이 각 생산요소별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성이란 본래 물량적 개념이었다. 즉 ‘1인 1시간당 면직물 10kg’의 경우와 같이 투입과 산출을 물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이 여러 종류이거나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품질이 다른 경우에는 물량기준으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공통 단위로서 합산이 가능한 화폐단위에 의한 산출수준으로서 기업이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가가치로 측정된 생산성을 부가가치생산성이라고 한다.

생산성분석을 통하여 입수되는 생산요소별 부가가치 생산성에 대한 정보는 합리적인 부가가치의 분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산성 관련지표로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율과 각 생산요소별 생산성을 측정하는 노동생산성 지표, 자본생산성 지표가 있다.

생산성지표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율 등이 증가한 경우에도 기업의 이익은 변하지 않고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등의 항목만 더 크게 증가하였다면 생산성의 증가로 기업의 성장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생산성을 분석할 때에는 부가가치의 항목별 구성비와 각각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고 수익성분석에 의한 결과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부가가치의 개념 및 측정

부가가치(Value added)란 ‘최종생산자가 중간생산자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에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새로이 창출한 제품의 증식된 가치’를 말한다. 부가가치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즉 주주, 근로자, 채권자, 정부, 기타 자본가 등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액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가산법과 차감법이 있다.

먼저 가산법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각 생산요소에 대한 분배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해당항목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기업경영분석에서는 가산법을 부가가치의 측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가산법은 계산이 간편하고 능률적이며 기업간 비교가 용이한 반면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부가가치의 창출과정을 분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통계에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 = 경상이익+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가산법)

* 인건비 : 판매비와 관리비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중 노무비, 복리후생비 항목

** 순금융비용 : 차입금이나 회사채발행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잔액

한편 부가가치 창출측면에서 접근한 차감법은 총산출액(매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국민계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감법은 이론적인 부가가치 개념에 근접하고 개별기업의 원가절감이나 경영계획 수립에 적합한 방식이기는 하나 중간투입항목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text{부가가치} = \text{총산출액} - \text{중간투입액} \\ (\text{차감법})$$

다. 생산성 관련지표 해설

생산성지표 산출시 저장(stock)개념의 대차대조표 항목과 유량(flow)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1) 부가가치율 (Gross value-added to sales)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같은 기간중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매출액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소득률이라고도 한다. 부가가치액은 매출액에서 다른 기업이 생산한 중간투입물인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차감한 것이므로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율은 높아지게 된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times 100$$

(2) 총자본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총자본투자효율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본생산성(Productivity of capital)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text{총자본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본}} \times 100$$

또한 총자본투자효율은 아래와 같이 ‘총자본투자효율 × 자본집약도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표시되어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자본생산성이 향상되면 자본집약도에 변화가 없는 한 노동생산성도 높아진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총자본투자효율 × 자본집약도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본}} \times \frac{\text{총자본}}{\text{종업원수}}$$

(3) 설비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설비투자효율은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자산 (유형자산-건설중인 자산)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설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 \times 100$$

또한 설비투자효율은 다음과 같이 ‘설비투자효율 × 노동장비율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표시되므로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 분석에도 유용하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설비투자효율 × 노동장비율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 \frac{\text{부가가치}}{\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 \times \frac{\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text{종업원수}}$$

(4) 기계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투자효율은 설비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부가가치의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기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기계장치}} \times 100$$

(5) 노동소득분배율 (Employment costs to gross value-added)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분배된 몫의 비중을 나타내며 성과배분의 합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text{노동소득분배율} = \frac{\text{인건비}}{\text{부가가치}} \times 100$$

(6) 노동장비율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er capita)

생산과정에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동장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노동장비율} = \frac{\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text{종업원수}}$$

또한 앞서 설비투자효율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7) 기계장비율 (Machinery and equipment per capita)

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종업원 1인당 보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장비율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기계장비율} = \frac{\text{기계장치}}{\text{종업원수}}$$

(8) 자본집약도 (Total assets per capita)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본액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장비율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자본집약도} = \frac{\text{총자본}}{\text{종업원수}}$$

(9)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Gross value-added per capita)

종업원 한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산출한 지표로서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을 말하며 임금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활동은 크게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성과도 노동요인과 자본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자본생산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text{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10)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증가율

(Growth rate of gross value-added per capita)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은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종업원 한 사람이 산출한 부가가치액이 전기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가가치는 노동 외에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투입비율,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경영효율, 노사관계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지표가 노동만의 능률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이 높을수록 산업내에서 경쟁력이 강

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임금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frac{\text{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text{부가가치증가율}} = \frac{\text{당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text{전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times 100 - 100$$

(11) 종업원 1인당 매출액증가율

(Growth rate of sales per capita)

노동력 단위당 매출액이 전기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출액증가율이 종업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반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증가율은 종업원수로 나눈 매출액에 대한 연간 증감률을 나타낸다.

$$\frac{\text{종업원 1인당 매출액증가율}}{\text{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종업원 1인당 매출액}}{\text{전기 종업원 1인당 매출액}} \times 100 - 100$$

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변동추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추이를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설비투자효율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가가치율을 보면 생산성 향상으로 1980년대 후반 크게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2002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중에서 노동에 분배된 몫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상승이 두드러졌던 1980년대 후반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까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외환위기로 하락하여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설비투자효율을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부가가치율의 하락

과 함께 내림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경영에 따른 설비투자 둔화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II-6-1 제조업의 생산성관련 주요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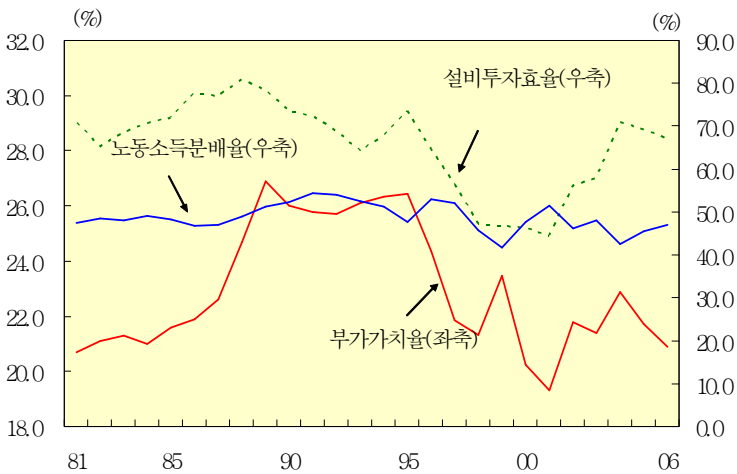


표 II-6-1 제조업의 생산성관련 주요지표¹⁾ 추이

(단위:%)

	81~90	91~97	98~01	02~06	06
부 가 가 치 율	22.8	25.2	21.1	21.7	20.9
노동소득분배율	48.7	52.1	46.7	45.9	47.1
설비투자효율	73.5	66.8	46.2	64.3	67.2
대 기 업	67.2	60.4	38.9	58.7	60.7
중 소 기 업	111.6	91.4	71.6	78.4	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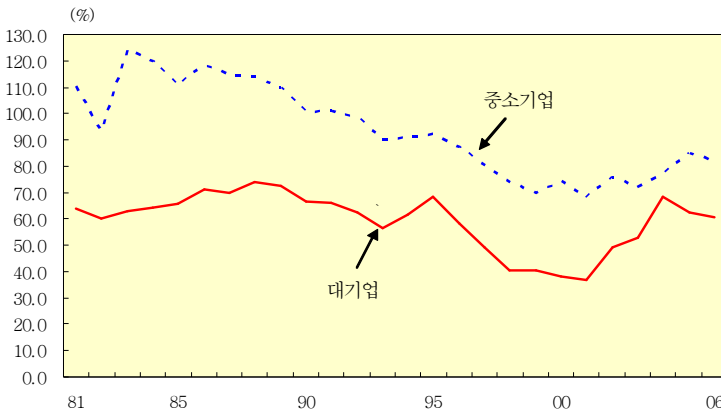
주 : 1) 기간중 연평균

기업규모별로 설비투자효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효율이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설비활용도가 생산구조의 특성상 대기업보다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의 설비투자효율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면서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6-2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설비투자효율 추이



Ⅲ. 기업경영분석 지표의 응용

1. 종합지수분석
2. 현금흐름분석
3. 레버리지분석
4. 경제적 부가가치(EVA)분석
5.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6.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경영지표

1. 종합지수분석

종합지수분석은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단일지수로 나타내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전통적인 비율분석에 이용되는 개별 재무비율로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하므로 부문별로 중요 재무비율을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정보이용자가 해당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구체적인 분석기법으로는 월(A.Wall), 트랜트(J.B. Trant) 및 브리체트(F.F. Burichet)가 개발한 종합지수분석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방법간에는 선정된 중요 재무비율의 내용 및 부여된 가중치의 크기면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지수분석은 먼저 분석목적에 적합한 중요재무비율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점을 구한 후 평점들의 합계(종합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금융기관에서 여신결정시 적용하는 신용평점제도(Credit scoring system)의 기본내용도 종합지수분석법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 종합지수분석의 의의

전통적인 비율분석에서는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시 개별 재무비율을 이용하고 있어 성장성은 높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든지, 수익성은 양호한데 활동성이 저조한 경우와 같이 각 재무비율 상호간의 해석이 엇갈리게 나타나면 기업 전체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종합지수분석은 가중비율총합법(Weighted ratio method)이라고도 하며 월(A.Wall)에 의하여 최초로 제시된 종합적인 비율분석 방법이다. 각종 재무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표준비율과 비교하는 개별적인 비율분석은 분석대상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이용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갖는다.

예를 들어 개별비율을 표준비율과 비교할 때 유동성비율은 양호하나 수익성비율이 불량하다든가 또는 활동성비율은 양호하나 안정성비율이 불량하다든가 하면 해당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양호한 지 또는 불량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각 비율들이 표준비율보다 양호 또는 불량하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요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별 비율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합지수분석이 이용된다. 종합지수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몇몇 주요비율을 선정하고, 선정된 비율들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해서 구한 종합평점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종합지수분석에 의한 비율분석의 종합적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재무비율의 선정

: 분석목적에 따라 몇 개의 주요비율을 선정한다.

② 가중치의 부여

: 선택된 주요비율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때 가중치의 합계는 100점이 되도록 한다.

③ 관계비율의 계산

: 선택된 주요비율의 실제비율과 이에 대응하는 표준비율을 비교하여 관계비율을 산출한다.

④ 종합지수의 산출

: 산출된 관계비율에 비율별 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계산하고 비율별 평점을 합하여 지수를 구한다.

⑤ 종합평가

: 지수가 100점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100점 이하이면 불량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종합지수분석법의 종류

종합지수분석으로 월(A.Wall)의 지수법과 트랜트(J.B. Trant) 및 브리체트(F.F. Burichet)의 지수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이 선정한 주요비율과 가중치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월과 트랜트 및 브리체트가 선정한 주요비율은 서로 유사하나 그들이 부여한 가중치는 크게 다르다. 먼저 월은 기업의 신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등 3개의 정태비율과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등 4개의 동태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트랜트의 지수법은 중요재무비율로서 월의 자기자본회전율 대신 매입채무회전율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과 고정자산회전율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표 III-1-1 월과 트랜트 및 브리چه트 지수법의 주요비율과 가중치

주요비율	월	트랜트	주요비율	브리चे트	
				금융기관	사채권자
유 동 비 율	25	15	유 동 비 율	20	3
부 채 비 율	25	10	당좌자산/유동자산	20	3
고 정 비 율	15	10	매출채권/재고자산	5	3
매출채권회전율	10	10	부 채 비 율	5	20
재고자산회전율	10	20	재 고 자 산 회 전 율	10	4
고정자산회전율	10	20	매출채권회전율	25	4
자기자본회전율	5	—	총 자 산 회 전 율	5	20
매입채무회전율	—	15	이 자 보 상 비 율	2	30
			매출액순이익률	5	8
			총 자산순이익률	3	5
합 계	100점	100점	합 계	100점	100점

월의 지수법은 재무유동성을 비롯한 재무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어 여신제공자 입장에서의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트랜트의 지수법은 기업자산의 활용정도, 즉 활동성을 중시하고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의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브리चे트는 기업의 지급능력 분석시 분석주체에 따라 관심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생각에서 주요비율의 선정과 가중치 부여를 분석주체에 따라 다르게 하였다. 브리चे트는 월과 트랜트와는 달리 수익성비율도 주요비율로 선정하였다.

브리चे트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유동비율, 당좌자산구성비율, 재고자산회전율 그리고 매출채권회전율 등의 단기지급능력비율과 활동성비율에 큰 가중치(75%)를 두었다. 그리고 사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및 이자보상비율에 큰 가중치(70%)를 두었다.

다. 종합지수분석법의 한계

종합지수분석은 중요 재무비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수의 작성과 해석이 비교적 쉬워 실무에서의 활용이 용이한 분석기법이다. 그러나 종합지수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중요 재무비율의 선정과 가중치가 임의로 결정되기 쉽다. 즉 중요 재무비율과 가중치가 체계적인 이론이나 실증적인 증거의 뒷받침 없이 분석자의 경험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되기 쉬워 작성된 지수의 객관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둘째, 표준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산업평균비율을 표준비율로 사용하고 있지만 경쟁기업의 재무비율이나 동종업종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재무비율이 보다 적절한 표준비율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선정된 재무비율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과 고정비율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두 비율이 중요비율에 중복되어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월과 트랜트 및 브리체트의 지수법에서 주요비율과 각 비율별 가중치는 그들이 보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어떤 객관적 기준이나 이론적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석자는 각자의 분석목적에 따라 주요비율과 가중치를 적절히 선정·부여함으로써 분석목적에 보다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종합지수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다.

라. 종합지수분석의 사례

월(A.Wall)의 지수법을 이용하여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와 「기타운송장비」의 2005년중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비교하면 <표 III-1-2>와 같다. 먼저 종합평점을 산출하기 위하여 두 업종의 2005년 재무비율을 비교의 기준이 되는 2005년 제조업의 재무비율(표준비율로 가정)로 나누어 지수를 산출한다.

각 재무비율의 지수에 가중치를 곱하면 각 재무비율의 평점이 계산되며 이러한 평점들을 합하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와 「기타운송장비」의 종합평점이 산출된다.

표 III-1-2 「전자부품, 영상 및 통신장비」와 「기타운송장비」
종합 지수 비교

	가중치	제조업	전자부품			기타운송장비		
	(A)	(B)	지표 (C)	지수 (D=C/B)	평점 (D×A)	지표 (E)	지수 (F=E/B)	평점 (F×A)
유 동 비 율	25	121.4	140.1	1.15	28.9	83.0	0.68	17.1
부채비율 ¹⁾	25	100.9	67.2	1.50	37.5	269.1	0.37	9.4
고정비율 ¹⁾	15	116.0	107.1	1.08	16.3	186.2	0.62	9.3
매출채권회전	10	7.7	11.2	1.45	14.5	4.6	0.60	6.0
재고자산회전	10	10.9	15.1	1.38	13.8	12.4	1.13	11.3
고정자산회전	10	2.1	1.9	0.92	9.2	1.7	0.82	8.2
자기자본회전	5	2.4	2.1	0.86	4.3	3.1	1.30	6.5
종합 평 점	100				124.6			67.9

주 : 1) 이 비율들은 낮을수록 양호함을 뜻하므로 이 비율과 관련된 지수는 여타 지수들과 달리 표준비율(제조업 비율)을 업종비율로 나누어 산출함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의 중요 재무비율들의 수준을 제조업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단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고정투자 재원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고정비율이 모두 양호하여 재무구조가 제조업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동성면에서도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의 종합평점은 124.6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타운송장비」는 재고자산회전율과 고정자산회전율을 제외한 나머지 중요비율들이 모두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종합평점이 67.9점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종합지수분석의 응용사례

Altman의 Z-Score

기업 부실예측을 위한 대표적인 판별식으로 1968년 Altman 교수에 의하여 발표(Journal of Finance)된 모델이다. Altman의 Z-score라 불리는 이 모델은 66개 상장기업(33개의 부실기업 및 33개의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판별식이다. Z값이 1.81 이하일 경우 부도가능성이 높으며 2.99이상일 경우 부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Z = 1.2X_1 + 1.4X_2 + 3.3X_3 + 0.6X_4 + 1.0X_5$$

$Z < 1.81$: 부실기업, $Z > 2.99$: 정상기업

단, X_1 = 운전자본/총자산, X_2 = 유보이익/총자산
 X_3 = EBIT/총자산, X_4 = 주식의 시장가치/부채의 장부가치
 X_5 = 매출액/총자산

Altman의 모델은 부실예측모형(不實豫測模型)으로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가 소규모 기업을 제외한 상장 제조기업이라는 점에서 모델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Altman 교수는 비상장 기업과 비제조업에 적용할 판별식을 개발하였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의 시장가치를 알기 어려우므로 X_4 를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부채의 장부가치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판별식을 구성하였다.

$$Z = 0.717X_1 + 0.847X_2 + 3.107X_3 + 0.420X_4 + 0.998X_5$$

$Z < 1.23$: 부실기업, $Z > 2.90$: 정상기업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X_5 (총자산회전율)가 제조업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존 판별식을 적용할 경우 비제조업 Z 값이 높게 나오게 된다. 따라서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X_5 를 제외하고 판별식을 구성하였다.

$$Z = 6.56X_1 + 3.26X_2 + 6.72X_3 + 1.05X_4$$

$Z < 1.1$: 부실기업, $Z > 2.6$: 정상기업

그러나 Altman의 모델이 총자산 1백만달러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소규모 기업의 부실판정에 Altman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Altman 모델이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적용이 간편할 뿐 아니라 비교적 정도가 높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 및 신용분석가들이 이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건전성 평가지수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별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관련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편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별 건전성지수를 「해당산업 전체기업의 자산 대비 건전한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의 자산비중」으로 정의하고 건전한 기업을 구분하기 위한 판단지표와 기준을 정하여 이 지표별 기준을 상회하는 건전기업의 자산이 전체기업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지표별 지수를 산출한다.

판단지표별 지수를 산술평균 또는 가중평균하여 기업건전성 종합 지수를 편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업부실 판단지표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업건전성지수 구성 사례

	구성 지표	산 식	부실판단기준
안정성 지 수	자기자본비율지수	$(\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	10% 미만
	부채상환계수지수	$(\text{당기순이익} + \text{감가상각} + \text{기타상각} + \text{금융비용}) / (\text{단기차입금} + \text{금융비용}) \times 100$	10% 미만
	유 동 비 율 지 수	$(\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60% 미만
수익성 지 수	매출액순이익률지수	$(\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2년연속 0%미만
	이자보상비율지수	$(\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2년연속 100%미만
	금융비용부담률지수	$(\text{이자비용}/\text{매출액}) \times 100$	10% 이상
활동성 지 수	차입금회전율지수	$\text{매출액}/\text{차입금}$	1회 미만
	총자산회전율지수	$\text{매출액}/\text{총자산}$	0.5회 미만
	투하자산회전율지수	$\text{매출액} / (\text{매출채권} - \text{매입채무} + \text{재고자산} + \text{투자자산} + \text{유형자산})$	0.7회 미만

한편 판단지표별 지수를 종합하여 종합지수를 편제할 경우 단순히 각 지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판단지표별 지수의 시계열의 증감률 차이가 클 경우 증감률의 진폭이 큰 구성지수가 기업건전성지수를 좌우하지 않도록 지수의 진폭 차이를 감안하여 이는 경기종합지수(CI : Composite index) 편제시 개별구성지수를 종합할 때 활용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① 구성지표별 지수의 전년비증감률(대칭변화율)을 산출

$$\text{금년증감률} = \frac{\text{금년치} - \text{전년치}}{(\text{금년치} + \text{전년치})/2} \times 100$$

- ② 구성지표별 지수의 표준화증감률 산출

$$\text{표준화증감률} = \text{전년비증감률} \times \text{표준화인자값}^*$$

* 표준화인자값 : 전년비증감률(대칭변화율)의 표준편차의 역수를
각 구성지표 표준편차의 역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

$$k_i = \frac{\frac{1}{SD_i}}{\sum_{i=1}^n \frac{1}{SD_i}}$$

k_i : i 지표의 표준화인자

SD_i : i 지표의 표준편차

- ③ 기업건전성지수 증감률 산출 : 구성지표들의 표준화증감률의 합

- ④ 기업건전성지수 산출 :

$$\text{전년도 기업건전성지수} \times (1 + \text{기업건전성지수 증감률})$$

2. 현금흐름분석

현금흐름분석은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기업이 일정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잔액 및 그 증감요인을 파악하는 재무분석기법의 하나이다.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기업의 채무상환, 배당금지급, 투자활동 등이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조달능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높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도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흑자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유용한 의사 결정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현금흐름분석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제품의 생산,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투자활동, 그리고 현금의 차입 및 상환, 신주발행이나 배당금 지급 등의 재무활동 등의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단기적인 현금조달능력 및 현시점에서의 현금보유수준과 추가적인 자금소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흐름분석은 비용의 기간배분, 회계추정 및 평가손익 인식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금흐름분석은 유가증권의 보유 또는 처분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현금보유액이 변동될 수 있어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가. 현금흐름분석의 개요

현금흐름분석이란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기업이 일정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잔액 및 그 변동요인을 파악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재무분석 기법의 하나이다.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조달한 현금 내역과 조달된 현금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하는 운용내역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995년부터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종래의 재무상태변동표 대신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금흐름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현금(cash)의 개념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금(현금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실제 유출입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금잔액 및 그 증감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1996년부터 외부감사대상법인¹²⁾에 대한 현금흐름표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현금흐름표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나. 현금흐름표의 작성내용

현금흐름분석의 기초가 되는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기업의 현금 변동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 중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나타내는 표로서 기업의 제반활동, 즉 생산·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처분 등

12)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선정기준은 98년 사업년도부터 종전 총자산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됨

의 투자활동, 소요자금의 차입 및 상환과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지급 등의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잔액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잔액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표 III-2-1, 표 III-2-2> 참조)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활동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 활동을 말한다. 현금흐름표에 기록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는 원재료 및 상품 등의 구매활동과 제품의 생산·판매활동 뿐만 아니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이외의 현금이 수반되는 모든 거래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판매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과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영업활동의 현금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접법은 현금의 유출입을 발생시키는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그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외화환산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등)은 차감하는 한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산 또는 차감(매출채권 감소, 재고자산 감소, 매입채무 증가 등은 가산하고 매출채권 증가, 재고자산 증가, 매입채무 감소 등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투자활동이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을 말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유가증권의 처분,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되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유가증권의 취득,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표 III-2-1

현금흐름표 양식(직접법)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매출 등 수익활동으로부터의 유입 2. 매입 및 중업원에 대한 유출 3.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의 유입 4. 이자비용, 법인세 등 유출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대여금의 회수, 유가증권·토지·건물·기계장치 처분 등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현금의 대여, 유가증권·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 등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장·단기차입금의 증가, 주식발행 등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장·단기차입금의 감소, 유상감자, 배당금 지급 등
IV. 현금의 증가(감소) [I + II + III]
V. 기초의 현금
VI. 기말의 현금

표 III-2-2

현금흐름표 양식(간접법)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
 - 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 등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 외화환산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등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 감소, 재고자산 감소, 매입채무 증가 등 가산
 - 매출채권 증가, 재고자산 증가, 매입채무 감소 등 차감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대여금의 회수, 유가증권·토지·건물·기계장치 처분 등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현금의 대여, 유가증권·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 등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장·단기차입금의 증가, 주식발행 등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장·단기차입금의 감소, 유상감자, 배당금 지급 등

IV. 현금의 증가(감소) [I + II + III]

V. 기초의 현금

VI. 기말의 현금

재무활동이란 현금의 차입, 상환, 증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등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의 유입에는 장·단기 차입금의 차입, 회사채의 발행, 주식발행 등이 포함되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유상감자, 배당금의 지급, 자기주식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은 기업의 각 부문별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순환하게 된다. 즉, 기업은 생산된 제품에 대한 매출을 통해 결국 현금을 유입시키며, 이 현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고 판매 및 관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한다. 또한 기업은 다시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기계구입 등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게 되며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한편 현금흐름분석시 투자활동 현금흐름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차감하면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자금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업은 투자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영업활동에서 충분히 창출하지 못함에 따라 부족한 현금자금을 주식발행, 외부차입 등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다. 현금흐름분석의 유용성 및 한계

현금흐름분석은 비용의 기간배분, 회계추정 및 평가손익 인식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흐름표의 구체적인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흐름표는 기업경영 활동별로 현금흐름의 원천과 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기업경영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 현금의 조달 및 운용상황을 나타냄으로써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회계의 결과인 이익흐름은 잘 나타내는 반면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완함으로써 재무제표 전체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킨다. 셋째, 현금흐름표를 통해 기업의 단기적인 현금창출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회계분식을 하여 이익을 낸 경우에도 현금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얼마의 현금이 창출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 부채 상환능력, 배당금 지급능력, 외부차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현금흐름분석은 유가증권의 보유 또는 처분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현금보유액이 변동될 수 있어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현금흐름 예측에도 한계가 있다.

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금흐름분석

우리나라 제조업의 2006년중 현금흐름(외감법인 업체평균기준)을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과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나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등에 의해 118억원의 현금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주식 및 회사채발행과 은행차입 등의 재무활동으로는 2억원의 현금순유입이 있었다. 한편 건물, 기계장치 구입 등의 투자활동으로 117억원의 현금순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기말의 현금잔액은 기초의 현금잔액 62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65억원이 되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2006년 현금흐름을 앞에서 설명한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III-2-3

제조업 현금흐름표(간접법)
(2006.1.1~2006.12.31)

(단위 : 백만원)

내역	금액 ¹⁾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772
1. 당기순이익	6,323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10,961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3,730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78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72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7,61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339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73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5,502
IV. 현금의 증가 (I + II + III)	285
V. 기초의 현금	6,235
VI. 기말의 현금 (IV + V)	6,520

주 : 1) 외감법인 업체당 평균수치임

(1) 영업활동 현금흐름

2006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수입은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당기순이익이 감소(9.5억원)하였음에도 2005년(108.6억원)보다 9.1억원(8.4%) 증가한 117.7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감가상각비 등)의 증가(9.4억원) 및 기타 영업활동에서의 현금유출 감소(9.7억원) 등에 기인한다.

표 III-2-4

제조업 영업활동 현금흐름 추이
(업체당 평균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영업활동현금수입(A+B-C+D) (전년대비 증감률, %)	8,493 (-189)	12,698 (49.5)	11,605 (-8.6)	14,283 (23.1)	10,862 (-240)	11,772 (8.4)
당기순이익 (A)	-653	8,394	5,196	9,259	7,275	6,323
현금유출 없는 비용 (B) < 감가상각비 >	14,122 5,772	14,560 5,992	11,486 5,439	10,891 5,509	10,023 5,462	10,961 6,009
현금유입 없는 수익(C)	3,515	8,640	2,752	4,373	3,684	3,730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부채변동 (D)	-1,461	-1,617	-2,326	-1,494	-2,752	-1,781
<매입채무 증가>	-1,281	981	1,098	1,317	1,278	448
<매출채권 증가(△)>	-534	1,654	1,642	1,299	2,285	1,694
<재고자산 증가(△)>	-385	972	1,692	1,980	1,091	831

(2) 투자활동 현금흐름

2006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지출은 117.2억원으로 2005년 (98.7억원)보다 18.6억원(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항목별로는 유동자산(-6.7억원→1.8억원), 투자자산(18.5억원→22.0억원), 유형자산(83.5억원→88.9억원) 등에 대한 순지출규모가 모두 2005년보다 확대되었다.

한편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에 대한 순지출 규모가 업체당 평균 88.9억원으로 2005년(83.5억원)보다 5.4억원(6.4%) 증가하여 2003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율은 다소 하락하였다.

표 III-2-5

제조업 투자활동 현금흐름 추이
(업체당 평균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자활동 현금지출 (A + B + C + D)	5,949	7,363	8,638	10,993	9,867	11,724
유동자산 증가 (A) (단기투자증권 증가)	-497 -261	1,593 642	770 75	1,124 108	-666 -293	175 -1
투자자산 증가 (B) (장기투자증권 증가)	949 930	619 510	1,285 1,156	1,696 1,491	1,853 1,415	2,203 2,003
유형자산 증가 (C) (유형자산 구입) (유형자산 매각)	4,918 6,307 1,389	4,810 6,629 1,819	6,048 7,226 1,178	7,794 8,913 1,119	8,354 9,366 1,012	8,890 10,056 1,166
무형자산 증가 등 (D)	580	341	535	379	326	456

(3) 재무활동 현금흐름

2006년 제조업의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은 2.4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여 2005년(순유입 1.4억원)에 비해 순유입 금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11.3억원)에 이어 2006년(14.0억원)에도 차입금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편 2006년 배당지출(17.6억원→16.9억원)은 전년보다 3.8%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I-2-6

제조업 재무활동 현금흐름 추이
(업체당 평균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재무활동현금조달 (A-B)	-2,127	-4,758	-1,902	-3,153	142	236
재무활동현금유입(A)	43,770	35,703	30,764	28,031	32,617	35,738
재무활동현금유출(B)	45,898	40,461	32,666	31,184	32,475	35,502
자 본 증 가 (순)	942	-70	29	-319	903	341
차 입 금 증 가 (순)	-1,403	-3,965	-820	-1,182	1,133	1,402
배 당 금 지 급	-817	-905	-1,133	-1,489	-1,756	-1,689

(4)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및 투자안정성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 및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흐름지표로는 현금흐름보상비율(Cash flow coverage ratio)이 사용된다. 부채상환계수라고도 불리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조달한 현금으로 이자비용과 단기차입금을 얼마만큼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ext{현금흐름 보상비율} = \frac{\text{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text{이자비용}}{\text{단기차입금} + \text{이자비용}} \times 100$$

위 산식의 분자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에 이자비용을 더한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주된 항목인 당기순이익의 계산시 이자비용이 차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금흐름보상비율 추이를 보면 2001년 56.0%에서 2006년 89.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다 단기차입금을 많이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현금흐름보상비율의 보조지표로 사용되는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Cash flow interest coverage ratio)은 영업활동에서의 현금수입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 비율도 2002년 이후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차입금축소 및 금리하락 등으로 2001년 275.8%에서 2006년에는 848.5%로 급등하였다.

$$\text{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text{이자비용}}{\text{이자비용}} \times 100$$

표 III-2-7

제조업의 현금흐름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현금흐름보상비율	56.0	77.6	72.8	102.0	86.4	89.1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275.8	457.5	647.8	899.3	858.8	848.5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수입으로 유형자산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인 투자안정성비율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유형자산 순투자지출로 나눈 것으로서 이 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것은 외부자금에 의존 하지 않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만으로도 유형자산 투자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투자안정성비율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100% 미만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로는 100%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투자안정성비율} = \frac{\text{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text{유형자산 순투자지출}} \times 100$$

표 III-2-8

투자안정성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영업활동 현금수입(A)	44.6	34.2	85.9	115.4	104.8	84.9	127.0	116.1	142.8	108.6	117.7
유형자산 순투자지출(B)	121.4	103.7	58.0	48.4	68.5	49.2	48.1	60.5	77.9	83.5	88.9
투자안정성 비율(A/B)	36.8	33.0	148.2	238.3	152.9	172.7	264.0	191.9	183.3	130.0	132.4

3. 레버리지 분석

지렛대의 의미를 가진 레버리지(Leverage)란 기업경영분석에서는 고정비의 비중이 클수록 경기호황기에는 이익이 확대되고 불경기에는 반대로 손실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레버리지의 종류에는 영업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결합레버리지가 있다.

영업레버리지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의 비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인 기업이 노동집약적인 기업에 비해서 고정비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레버리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text{영업레버리지} = \frac{\text{영업이익의 변화율}}{\text{매출액의 변화율}}$$

재무레버리지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이자비용)의 비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타인자본의존도가 클수록 이자비용의 부담도 늘어남으로써 재무레버리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text{재무레버리지} = \frac{\text{주당이익의 변화율}}{\text{영업이익의 변화율}}$$

결합레버리지는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를 결합한 레버리지로서 매출액의 변화에 따른 주당순이익의 확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text{결합레버리지} = \frac{\text{주당이익의 변화율}}{\text{매출액의 변화율}}$$

지렛대의 의미를 가진 레버리지(Leverage)란 기업경영분석에서는 고정비의 비중이 클수록 경기호황기에는 이익이 확대되고 불경기에는 반대로 손실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레버리지의 종류에는 영업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결합레버리지가 있다.

가. 영업레버리지 분석(Operating leverage)

영업레버리지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의 비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인 기업이 노동집약적인 기업에 비해서 고정비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레버리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경기호전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비도 증가하지만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영업비용중 고정비의 비중이 클수록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이 더욱 확대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축소되면 변동비는 매출감소와 비례하여 줄지만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손실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즉 영업레버리지효과란 영업비용중의 고정비에 의해 발생하는 손익확대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text{영업레버리지} = \frac{\text{영업이익의 변화율}}{\text{매출액의 변화율}}$$

나. 재무레버리지 분석(Financial leverage)

재무레버리지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이자비용)의 비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타인자본의존도가 클수록 이자비용의 부담도 늘어남으로써 재무레버리지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경기변동으로 영업이익이 변동하더라도 재무활동의 고정비용이라 할 수 있는 이자비용은 이에 비례하여 변동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한다. 즉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주당순이익의 변화율은 영업이익의 변화율보다 더 확대되어 나타나며 이를 재무레버리지효과라 한다.

$$\text{재무레버리지} = \frac{\text{주당이익의 변화율}}{\text{영업이익의 변화율}}$$

다. 결합레버리지 분석(Combined leverage)

결합레버리지는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를 결합한 레버리지로서 매출액의 변화에 따른 주당순이익의 확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결합레버리지는 영업레버리지 산식과 재무레버리지산식을 서로 곱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가 있다.

$$\text{결합레버리지} = \frac{\text{주당이익의 변화율}}{\text{매출액의 변화율}}$$

<참고>

레버리지도의 계산방법

영업레버리지도(DOL :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DOL = \frac{\text{영업이익의 변화율}}{\text{매출액의 변화율}} = \frac{\frac{\Delta EBIT}{EBIT}}{\frac{\Delta Q}{Q}} \dots\dots\dots ①$$

EBIT: 영업이익
 $\Delta EBIT$: 영업이익증가분
 Q : 매출량(또는매출액)
 ΔQ : 매출량(또는매출액)증가분

여기서 EBIT 와 $\Delta EBIT$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EBIT &= TR - VC - FC \dots\dots\dots ② \\ &= P \times Q - V \times Q - FC \\ &= Q(P - V) - FC \end{aligned}$$

$$\Delta EBIT = \Delta Q(P - V) \dots\dots\dots ③$$

TR: 매출액 VC: 영업변동비
FC: 영업고정비 P: 단가
Q: 매출량 V: 단위당변동비 (VC/Q)

식②와 식③을 식①에 대입하면 아래의 식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DOL &= \frac{\frac{\Delta Q(P - V)}{Q(P - V) - FC}}{\frac{\Delta Q}{Q}} = \frac{Q \cdot \Delta Q(P - V)}{\Delta Q(Q(P - V) - FC)} \\ &= \frac{P \cdot Q - V \cdot Q}{P \cdot Q - V \cdot Q - FC} = \frac{TR - VC}{TR - VC - FC} \end{aligned}$$

따라서 DOL은 아래와 같다.

$$DOL = \frac{\text{영업이익의 변화율}}{\text{매출액의 변화율}} = \frac{TR - VC}{TR - VC - FC}$$

재무레버리지도(DFL : Degree of financial leverage)

$$DFL = \frac{\text{주당순이익의 변화율}}{\text{영업이익의 변화율}} = \frac{\frac{\Delta EPS}{EPS}}{\frac{\Delta EBIT}{EBIT}} \dots\dots\dots ④$$

EPS: 주당순이익
 ΔEPS : 주당순이익 증가분

여기서 EPS 와 ΔEPS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PS = \frac{(EBIT - I)(1 - t)}{n} \dots\dots\dots ⑤$$

$$\Delta EPS = \frac{\Delta EBIT(1 - t)}{n} \dots\dots\dots ⑥$$

$$\frac{\Delta EPS}{EPS} = \frac{\frac{\Delta EBIT(1 - t)}{n}}{\frac{(EBIT - I)(1 - t)}{n}} \dots\dots\dots ⑦$$

I: 이자비용
 n: 발행주식수
 t: 법인세율

식⑦을 식④에 대입하면 DF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DFL = \frac{\frac{\Delta EBIT}{EBIT - I}}{\frac{\Delta EBIT}{EBIT}} = \frac{EBIT}{EBIT - I}$$

앞의 식②에서 $EBIT = TR - VC - FC$ 이므로 DFL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DFL = \frac{\text{주당순이익의 변화율}}{\text{영업이익의 변화율}} = \frac{TR - VC - FC}{TR - VC - FC - I}$$

4. 경제적 부가가치(EVA) 분석

경제적 부가가치(EVA : Economic value added)란 기업이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가치의 증가분으로 정의되며 세후영업이익에서 기업본연의 영업활동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잔여이익(Residual income)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는 달리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타인자본비용외에 주주의 위험부담에 대한 기회비용인 자기자본비용도 감안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영업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기업이 주주의 위험부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책임이 있음을 경영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다.

EV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후영업이익, 투하자본, 가중평균자본비용 등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후영업이익과 투하자본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문만 포함한다. 그리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은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각 자금조달 원천별 자본의 구성비율로 가중하여 계산하는데 타인자본비용은 이자부부채의 실효차입금리*, 그리고 자기자본비용은 주주들의 주식보유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 차입금리 \times (1-실효법인세율)

그러나 영업활동과 관련된 세후영업이익과 투하자본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고 큰 폭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EVA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 경제적 부가가치의 정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 Economic value added)란 기업이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가치의 증가분으로 정의되며 세후영업이익에서 기업본연의 영업활동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잔여이익(Residual income)으로 나타낼 수 있다.

$$EVA = \text{세후영업이익} - \text{투하자본비용액}$$

$$= (\text{영업이익} - \text{법인세}) - (\text{타인자본비용액} + \text{자기자본비용액})$$

이러한 잔여이익은 세후영업이익에서 채권자에 대한 타인자본비용 외에 주주에 대한 자기자본비용까지 차감한 순수한 이익으로서 주식회사의 최종적 위험부담자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부가가치가 플러스(+)이면 현시점에서 자본제공자의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경제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EVA와 당기순이익 비교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수단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중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영자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만을 고려하여 산정된 순익이다. 기업이 당기순이익에 근거하여 영업성과를 측정·평가하게 되면 주주들의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는 주주의 위험부담에 대한 기회비용인 자기자본비용도 감안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영업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기업이 주주의 위험부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책임이 있음

을 경영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잔여이익은 기업의 최종적인 위험부담자인 주주에게 귀속됨으로써 기업 경영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주부(株主富, Shareholder wealth)의 극대화로 연결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EVA의 계산방법

EV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후영업이익, 투자자본, 가중평균자본비용 등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EVA = \text{세후영업이익} - \text{투자자본} \times \text{가중평균자본}$$

(1) 세후영업이익(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

세후영업이익은 기업본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세후순현금유입액을 의미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 기타영업관련 수익 및 비용을 가감하고 조정법인세를 공제하여 산출되는 금액이다.

$$\text{세후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pm \text{기타영업관련수익 및 비용} - \text{조정 법인세}$$

그림 III-4-1

EVA의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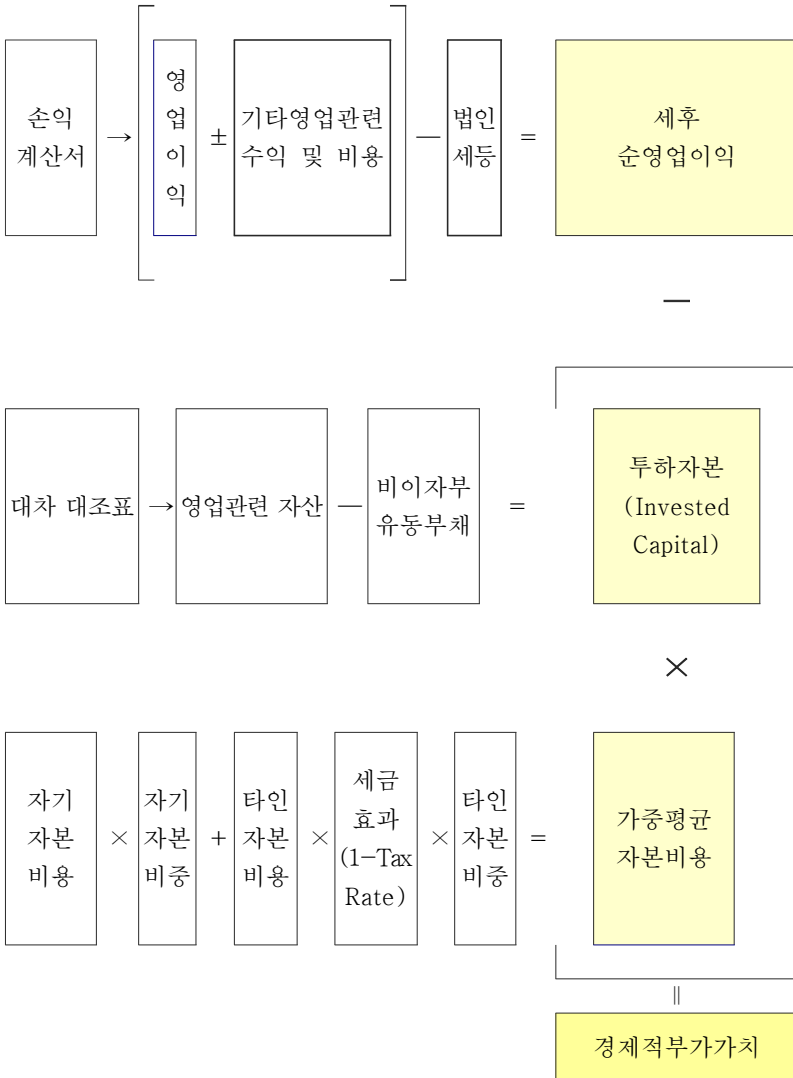


표 III-4-1

손익계산서와 세후영업이익

(단위 : 원)

손익계산서		조정사항	세후영업이익	
영업이익	300	· 임대료수입은 전액 영업 관련 수익 · 법인세율 30%	영업이익	300
이자비용	100		기타영업관련수익	50
임대료수입	50		순영업이익	350
경상이익	250		영업관련법인세	105
법인세	75		세후영업이익	245
당기순이익	175			

$$\begin{array}{rcll} \text{세후영업이익} & = & \text{영업이익} & + \text{임대료수입} - \text{조정법인세} \\ (245\text{원}) & & (300\text{원}) & + (50\text{원}) - (105\text{원}) \end{array}$$

(2) 투자자본(Invested capital)

투자자본은 기업본연의 영업활동에 투자되어 영업이익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자본을 의미하므로 투자자본에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만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관련 비이자부 유동부채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본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투자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는 초과보유 현금·예금, 투자부동산, 건설중인 자산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이자부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등이 있다.

$$\text{투자자본} = \text{영업관련자산} - \text{비이자부 유동부채}$$

아래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투자자본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영업관련자산 = 2300원 + 5,000원 + 500원 + 7,500원

비이자부 유동부채 = 1,500원

투하자본 = 7,500원 - 1,500원 = 6,000원

즉, 이 기업은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6,000원의 자본투자가 있었다고 해석된다.

표 III-4-2

대차대조표

(단위 : 원)

영 업 유 동 자 산	2,000	영 업 유 동 부 채 (비이자부유동부채)	1,500
영 업 고 정 자 산	5,000	이 자 발 생 차 입 금	2,000
영 업 기 타 자 산	500	자 기 자 본	6,500
비 사 업 용 자 산	2,500		
총 자 산	10,000	부 채 및 자 본	10,000

(3)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기업의 자본비용은 각 원천별 자본비용의 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 즉 부채가 전혀 없는 기업의 경우는 주식의 자본비용이 그 기업의 자본비용이 될 것이고 만약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이 혼재되어 자본조달원이 다양할 경우에는 각 자본의 구성비율로 가중하여 자본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타인자본비용은 이자부부채의 평균차입금리로 볼 수 있다. 이때 평균차입금리는 반드시 이자부부채의 기말잔액 대신 기간중 평균잔액을 사용해서 계산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기업의 비용으로 취급되어 법인세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자본비용 계산시에는 한계

법인세율이 감안된 타인자본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물론 면세기업이나 적자기업은 세금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기자본비용은 주주들의 주식보유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원리금상환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타인자본에 비해 자본비용의 측정이 더욱 어렵다. 그래서 자기자본비용은 배당성장모형(Dividend growth model),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차익거래가격결정모형(APM : Arbitrage pricing model)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다만 주식거래자료가 부족한 비공개기업에 사용할 수 없는 CAPM이나 APM과 달리 배당성장모형은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타인자본비용에 비해 최소한 주식보유에 따른 위험프리미엄 만큼 더 높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기자본비용을 기업의 납세전 타인자본비용에 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을 합산해서 간단히 추정할 수도 있다.

표 III-4-3

가중평균자본비용 계산

(단위 : 원)

조달원천	조달액	비용률	비용액
부채	23,500	10%	2,350
자기자본	76,500	15%	11,475
총조달액	100,000		13,825

가중평균자본비용 =

$$\text{부채비용} \times \frac{\text{부채}}{(\text{부채} + \text{자본})} + \text{자기자본비용} = \frac{\text{부채}}{(\text{부채} + \text{자본})}$$

<표III-4-3>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법인세율은 30%라고 가정)

가중평균자본비용

$$\begin{aligned}
 &= 10\% \times (1-0.3) \times \frac{23,500}{(23,500+76,500)} + 15\% \times \frac{76,500}{(23,500+76,500)} \\
 &= \quad 7\% \quad \times \quad 0.235 \quad + 15\% \times \quad 0.765 \\
 &= \quad 13.12\%
 \end{aligned}$$

라. EVA의 한계점

EVA는 기업 본연의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부문과 비영업부문을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본을 계산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활용해야 하는데, 대차대조표상에서 영업 및 비영업 부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동일한 계정과목에 영업과 비영업 부문이 혼재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손익계산서 관련 항목의 영업과 비영업 부문의 구분도 매우 어렵다.

또한 EVA는 큰 폭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나 기업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경영지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후영업이익에서 투자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EVA는 투자액이 커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띠게 되어 이를 성과지표로 사용할 경우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한 EVA분석 사례

투자자본이익률이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상회하여야만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 added)가 플러스를 보이며 투자자본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본을 조달하여 계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율은 어떠한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1992~2006년에 걸쳐 EVA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 투자자본이익률이 급락하고 가중자본비용은 크게 상승함으로써 투자자본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율이 -5.9%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저금리 정책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의 하락으로 경제적 부가가치율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2년부터 계속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가가치율의 향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이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수익성위주의 경영으로 전환한 데 크게 힘입은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본을 조달하여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부문에서의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EVA분석을 위해 필요한 세후영업이익, 투자자본,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은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내에서 아래 공식에 의해 간략히 계산하였다. 다만, 자기자본비용은 비공개기업의 주식거래자료 확보가 어려워 회사채수익률로 대체하였는데 보다 정확히 하려면 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을 합산하여야 하며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은 대략 3~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표 III-4-4 제조업 투자자본수익률과 가중평균자본비용¹³⁾

(단위 : 원)

	92~ 96 평균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투자자본 수익 (A)	7.9 (6.9)	9.6 (7.4)	6.5 (5.0)	5.8 (5.4)	9.4 (7.1)	5.8 (5.4)	9.4 (7.3)	8.3 (7.6)	10.5 (9.1)	9.2 (7.3)	7.6 (6.2)
가중평균 자본비용 (B)	9.8	10.0	12.4	8.4	9.0	6.8	6.4	5.3	4.7	4.7	5.1
타인자본 비용 ¹⁾	7.8	8.7	11.1	8.0	8.6	6.5	6.2	5.0	4.5	4.8	4.9
자기자본 비용 ²⁾	13.5	13.4	15.1	8.9	9.4	7.1	6.6	5.4	4.7	4.7	5.2
A-B	-1.9	-0.4	-5.9	-2.6	0.4	-1.0	3.0	3.0	5.8	4.5	2.5

주 : 1) 차입금평균이자율×(1-법인세율)

2) 회사채수익률(잔존기간 3년기준, 1998.8월까지지는 보증부 사채, 2000.9월까지지는 A+등급 무보증사채, 2000.10월이후에는 AA-등급 무보증사채의 단순평균수익률)

3) ()내는 총자본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본)

4) 세후영업이익과 타인자본비용 추정시 적용된 법인세율은 매년도의 제조업 전체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의 비율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음

$a = (\text{법인세비용}) / (\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b = \text{매년 법인세율 상한}$ $c = \text{매년 법인세율 하한}$

$c < a < b \rightarrow a, a > b \rightarrow b, a < c \rightarrow c$

13) 세후영업이익 = 영업이익×(1-법인세율)

투자자본 = (유동자산 - 비이자부유동부채) + (유형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투자자산 - 투자유가증권) + 무형자산 - 비이자부고정부채

가중평균자본비용 = 차입금평균이자율×(1-법인세율)× $\frac{(\text{이자부부채})}{(\text{이자부부채} + \text{자기자본})}$
+ 자기자본비용× $\frac{\text{자기자본}}{(\text{이자부부채} + \text{자기자본})}$

5. 연결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법률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이나 경제적으로는 단일실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재무제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연결대상 기업전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실현이익 등이 제거되어 작성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으로써 경영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내부거래 및 투자지분 등을 상계처리 하기 때문에 단순합산 개별재무제표에 비해 총자산, 투자주식, 부채, 자본, 매출액, 경상손익, 현금흐름 등이 모두 감소한다. 연결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자기자본이 부채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연결전보다 연결후에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상기업의 개별재무제표가 합산되기 때문에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실회사가 은폐될 수 있는 데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이 서로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가. 연결재무제표의 의의와 유용성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여 경영을 좌우할 정도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법률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이나 경제적으로는 단일실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재무제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 때 다른 실체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배회사(Parent company)라고 하고 지배를 당하는 회사를 종속회사(Subsidiary)라고 한다. 한편, 종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지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종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기타주주들은 외부주주(Outside shareholders)라고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서로간의 출자관계, 채권·채무,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등이 제거되어 작성되므로 기업집단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연결실체 전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홍콩, EU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비교가능성도 증진되며 국내적으로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지표로도 이용될 수 있다.

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차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는 국내외 회계기준 모두 지분율기준과 실질지배력기준을 병용하고 있다. 지분율기준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범위를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의 50% 초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회계기준은 지분율 50% 초과 또는 지분율 30%이상으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연결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실질지배력기준은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권 등으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국내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도 포함한다.

참고로 대주주 등이 실질적인 경영지배력을 갖는 우리나라 기업 소유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3」에서는 개인 대주주가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 연결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범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4」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회사로서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을 합계가 30%이상인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실질 경영지배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방법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거래 제거 등 연결제거분개를 거쳐 작성된다. 연결제거분개는 두 회사가 하나의 실체라면 성립할 수 없는 거래라는 전제하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류수정분개 절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 연결대상업체의 지분법평가손익의 취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분을 20%이상이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보유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지분법이란 지분율만큼 피투자회사의 손익(내부미실현손익 제외)을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투자주식)와 손익계산서(지분법평가손익)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연결대상업체의 지분법평가손익을 취소하는 이유는 연결대상 피투자

회사의 손익항목은 연결제거분개를 거쳐 연결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에 분산되어 최종적으로 연결당기순손익으로 반영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중복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지배회사의 투자주식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은 만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하나의 기업실체일 경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상호 제거하는 것이다. 즉,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하나의 연결실체로 본다면 단일의 기업실체에서 본점이 지점에 현금을 송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 가 법 : 만기보유증권이나 시장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

공정가액법 : 단기매매증권이나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할 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항목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반영

지 분 법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20%이상 보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항목의 지분법평가손익으로 반영

<참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령 제1조의 3
(지배종속의 관계)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3) 내부거래와 당기미실현손익의 제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와 이에 따른 내부미실현손익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내부거래에는 크게 수익·비용과 같이 특정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자산·부채와 같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내부미실현손익은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는 자산과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을 초래하며 당해 자산이 연결실체 외부로 판매되거나 비용화 되는 경우에 비로소 실현된다.

라.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차이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상의 내부거래 및 투자지분 등을 상계처리 하기 때문에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였을 경우보다 총자산, 투자주식, 부채, 자본, 매출액, 경상손익, 현금흐름 등이 모두 감소한다. 연결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처리로 대부분의 경우 자기자본이 부채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연결후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I-5-1>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B사를 100% 지배하는 A사의 단순합산 재무제표로는 부채비율이 100%였으나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을 상계처리한 연결후 부채비율은 150%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배회사의 개별당기순이익은 연결전에도 지분을 20%이상인 투자주식은 이미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당기순이익과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지분법을 한줄로 된 연결(One-line consolidation)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표 III-5-1



연결과 단순합산 재무제표 비교

(단위 : 원)

계정과목	개별B/S		단순 합산	연결조정		연결B/S
	A사	B사		차변	대변	
자 산	150	100	250			250
B사투자주식	50		50		50	0
총 자 산	200	100	300		50	250
부 채	100	50	150			150
자 본	100	50	150	50		100
총 자 본	200	100	300	50		250
부 채 비 율	100%	100%	100%			150%

마. 연결재무제표의 한계

첫째, 종속회사의 외부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종속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에 일차적 관심이 있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이 합산되기 때문에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종속회사의 외부주주는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종속회사의 채권자도 연결재무제표로부터 당해 종속회사의 담보력이나 부채상환능력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재무제표분석의 측면에서 볼 때, 기업집단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우량한 회사와 불량한 회사가 연결에 포함되었을 때 불량한 회사가 은폐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영업내용이 달라 계정과목이 다르고 회계처리방법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바. 현행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와 주요국과의 비교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분반기 및 기말 개별재무제표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기말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공시시점도 2007년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지배회사에 대해서는 개별재무제표의 공시시한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2조원 미만인 지배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재무제표의 공시일 이후에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개별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로 자본시장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표 III-5-2 주요국의 주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공시여부

	미 국	영 국	독 일	홍 콩
주 재 무 제 표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공 시 여 부	일정자산 규모 이상의 경우 공시	추가적으로 중요 정보인 경우 공시	공시의무	공시의무

반면에 EU 국가들과 미국, 일본, 홍콩 등 대부분의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라는 전제하에 회계처리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사. 연결재무제표와 단순합산 재무제표의 실제사례 비교

현대백화점과 종속회사의 사례에서 단순합산 재무제표에 비해 연결재무제표의 총자산, 매출액, 경상이익이 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연결전 68.5%에서 연결후 99.2%로 30.7%p나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 제거로 인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의 감소폭(1,379억)보다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로 인한 자기자본의 감소폭(9,426억)이 더 큰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전에 비해 연결후 매출액영업이익률(16.3%→18.8%)은 2.5%p 상승한 반면, 매출액경상이익률(19.1%→17.9%)은 오히려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는 연결전에 비해 연결후의 매출액이 영업이익 보다 더 큰 비율로 감소한 데 기인하며 매출액경상이익률의 하락은 영업외손익에 포함된 내부미실현손익의 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Ⅲ-5-3 연결전후 현대백화점 주요재무비율 비교분석

(단위 : 백만원, %)

	현 대 백 화 점 (연 결 전)	종 속 회 사 (17개)	단 순 합 계	현 대 백 화 점 (연 결 후)
유 동 자 산	268,991	623,164	892,155	768,562
고 정 자 산	1,495,338	1,990,678	3,486,016	2,529,071
자 산 총 계	1,764,329	2,613,842	4,378,171	3,297,633
유 동 부 채	566,259	876,212	1,442,471	1,318,798
고 정 부 채	228,382	108,904	337,286	323,069
자 본 총 계	969,688	1,628,724	2,598,412	1,655,766
매 출 액	758,336	1,900,635	2,658,971	2,207,203
매 출 원 가	205,624	1,025,464	1,231,088	914,792
매 출 총 이 익	552,712	875,171	1,427,883	1,292,411
영 업 이 익	163,529	268,876	432,405	415,405
경 상 이 익	198,341	310,371	508,712	395,234
당 기 순 이 익	158,958	228,899	387,857	280,518
외 부 주 주 이 익				124,092
연결당기순이익				156,427
부 채 비 율	81.9	60.5	68.5	99.2
유 동 비 율	47.5	71.1	61.8	58.3
영 업 이 익 률	21.6	14.1	16.3	18.8
경 상 이 익 률	26.2	16.3	19.1	17.9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05년도)

6.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경영지표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경영지표에는 주가를 순이익, 순자산, 매출액 등과 같은 주요 재무항목으로 나눈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등의 주가배수(Price multiples)관련 비율이 있다.

주가수익비율(PER)은 주가를 1주당 법인세공제후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주식이 기업의 순이익 대비 몇 배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주식의 가격이 기업의 순자산(청산시 재무제표상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의 몇 배로 형성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가매출액비율(PSR)은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로 평가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타 지표와 달리 적자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표이다.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경영지표에는 주가를 순이익, 순자산, 매출액 등과 같은 주요 재무항목으로 나눈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등의 주가배수 관련비율이 있다. 투자자는 이러한 지표의 기간별 추세를 살펴보거나 동일한 업종에 속한 경쟁업체들과 상호비교함으로써 기업의 내재가치가 주식시장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가. 주가수익비율(PER : 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를 법인세공제후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낮을 수록 이익에 비해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1주당 순이익으로는 전기의 순이익을 사용한다.

$$PER(\text{배}) = \frac{\text{주가}}{\text{1주당 법인세 공제후 순이익}^*}$$

$$^* \text{ 1주당 법인세공제후 순이익} = \frac{\text{전기의 법인세공제후 순이익}}{\text{총발행주식수}}$$

간단한 예를 들면 A회사의 전년도 법인세공제후 순이익이 20억원이고 총주식수가 100만주라면 법인세공제후 1주당 순이익은 20억원/100만주=2,000원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주식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A회사 주식의 주가수익비율은 10,000/2,000원=5(배)가 된다. 즉 A회사가 당기에도 전기와 같은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A회사 주식은 1년간 순이익의 5배의 가격으로 증권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수익비율을 이용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율계산에 사용되는 1주당 법인세공제후 순이익은 전기에 이미

실현된 이익으로 예상수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주가는 장래수익과 배당 등을 예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지 주가수익비율의 절대수준만으로 주가의 높고 낮음을 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가수익비율을 투자판단지표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분석과 함께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주가수익비율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9년 4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가 주가수익비율을 산출, 발표하여 왔으며 1974년부터는 단순평균주가수익비율과 종목별주가수익비율을, 1998년부터는 가중평균주가수익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단순평균주가수익비율은 산출대상 종목의 주가합계를 대상항목의 1주당 법인세차감후 순이익의 합계로 나누어 구한다. 즉 A, B, C 각 주식의 가격이 20,000원 10,000원, 15,000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각각 3,000원 2,000원, 1,000원이라고 하면 평균주가수익비율은 $(20,000\text{원}+10,000\text{원}+15,000\text{원})/(3,000\text{원}+2,000\text{원}+1,000\text{원})=7.5(\text{배})$ 가 된다. 가중평균주가수익비율은 산출대상 종목의 시가총액합계를 법인세공제후 당기순이익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주가순자산비율(PBR :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기서 순자산액은 전기 대차대조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회사가 해산될 때 주주에게 분배될 금액을 의미한다.

$$PBR(\text{배}) = \frac{\text{주가}}{\text{1주당 순자산가액*}}$$

$$* \text{1주당 순자산가액} = \frac{\text{전기의 순자산가액}}{\text{총발행주식수}}$$

예를 들어 B회사의 전기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000억원이고 부채가 500억원일 경우 이 회사의 순자산은 1,000억원-500억원=500억원이며 발행주식수가 100만주라면 1주당 순자산은 500억원/100만주=50,000원이 된다. 이 때 주가가 25,000원이라고 한다면 주가순자산비율은 25,000/50,000원=0.5(배)가 된다. 즉 B회사의 주식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예상가능한 청산시 분배가능금액의 절반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가수익비율(PER)이 기업의 수익성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비하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재무상태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순자산이 많다는 것은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재무상태에 비해 주가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표시해 준다. 즉 주가순자산비율이 높다면 주가가 재무상태에 비하여 과대평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주가순자산비율이 낮다면 주가가 재무상태에 비하여 과소평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1

PER와 PBR 연도별 추이¹⁾

(단위 : 배)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가수익비율	11.0	10.1	27.8	34.6	15.3	29.3	15.6	10.1	15.8	11.0
주가순자산비율	—	1.05	1.02	1.16	1.63

주 : 1) 유가증권시장

다. 주가매출액비율(PSR : 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액비율은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매

출액은 다른 항목보다 회계처리 방법상의 차이가 적고 비교가 용이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PSR(\text{배}) = \frac{\text{주가}}{\text{1주당 매출액}^*}$$

$$* \text{1주당 매출액} = \frac{\text{전기 매출액}}{\text{총발행주식수}}$$

예를 들어 C회사의 전기 순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500억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00만주라면 1주당매출액은 500억원/100만주=50,000원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주식가격이 200,000원이라면 C회사의 주가매출액비율은 200,000/50,000원=4(배)가 된다. 즉 C회사가 당기에도 전기와 동일한 매출액 실적을 보인다면 C회사 주식은 1년간 매출액의 4배의 가격으로 증권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적자가 발생하거나 자본이 잠식될 경우, 주가수익비율이나 주가순자산비율은 음수로 나타나 경영지표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반면, 매출액은 항상 플러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주가매출액비율이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내기 매출을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주가매출액비율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식평가지표와 병행하여 주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IV.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한 분석자료

1. 우리나라 기업수익구조의 변화
2. 우리나라 기업의 유형자산 변동추이
3. 중위수통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기업경영분석
4.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영성과 분포
5.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
6. 금리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7. 유가 및 환율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8. 주요 업종별 국내외 대표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9. 한·미·일 제조업의 경영성과 비교
10. 서비스산업의 경영분석 지표 추이
11.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변동추이
12. 연결재무재표로 본 기업경영성과

1. 우리나라 기업수익구조의 변화

가. 제조업의 수익성추이

2000년대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2%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2002~2005년 평균)에는 약 6%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수익성의 개선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기 보다는 금리 및 부채비용의 하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7.1%에서 2000년대(2002~2005년 평균) 6.8%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금융비용부담률에 의해 영향 받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은 같은 기간 중 2.1%에서 5.9%로 약 3배나 개선되었다. 이렇게 기업의 경상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것은 금융비용부담률이 90년대 5.8%에서 2000년대 1.7%로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다.

표 IV-1-1

제조업의 수익성 추이

(단위 : %, %p)

	80년대 (81~90)	90년대(A) (91~96)	2000년대(B) (02~05)	개선폭 (B-A)
매출액경상이익률	2.5	2.1	5.9	3.8
매출액영업이익률	7.2	7.1	6.8	-0.3
금융비용부담률	5.4	5.8	1.7	-4.1

표 IV-1-2 제조업 금융비용부담률의 변동요인별 기여율

(단위 : %, %p)

	1993 ¹⁾	2005	기여도	기여율
금융비용부담률	5.9	1.2	-4.7	100.0
차입금평균이자율	11.2	6.0	-1.8	37.7
차입금의존도	49.3	22.9	-2.0	43.5
총자산회전율역수	1.08	0.83	-0.9	18.8

주 : 1) 외환위기 이전기간(1991~96)중 평균치에 가까운 1993년을 대표연도로 선정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¹⁴⁾은 금리수준, 차입금의존도, 총자산회전율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1993년과 2005년 사이의 금융비용부담률 하락 요인별 기여율을 계산해 보면, 차입금의존도 하락 43.5%, 금리 하락 37.7%,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18.8%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비교

1980년대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은 대체로 중소기업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변화를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 변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대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 개선폭(5.1%p)이 중소기업(2.0%p)을 크게 상회한 것은 대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4.5%p)이 중소기업(2.8%p)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다.

14) 이자비용/매출액 = 이자비용/차입금 × 차입금/총자산 × 총자산/매출액
(금융비용부담률) (차입금평균이자율) (차입금의존도) (총자산회전율의 역수)

표 IV-1-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비교

(단위 : %, %p)

	80년대 (81~90)	90년대(A) (91~96)	2000년대(B) (02~05)	개선폭 (B-A)
매출액경상이익률	2.5	2.1	5.9	3.8
대 기 업	2.4	2.3	7.4	5.1
중 소 기 업	2.7	1.3	3.3	2.0
매출액영업이익률	7.2	7.1	6.8	-0.3
대 기 업	7.6	8.0	8.1	0.1
중 소 기 업	5.7	4.7	4.6	-0.1
금융비용부담률	5.4	5.8	1.7	-4.1
대 기 업	5.8	6.3	1.8	-4.5
중 소 기 업	4.0	4.5	1.7	-2.8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융비용부담률 개선폭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43개 대기업계열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토록 하여 부채비율 개선을 유도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기업 구조조정추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 기 업	390.0	295.4	208.9	224.6	201.6	128.9	113.5	91.7	86.1
중소기업	418.4	334.4	232.4	179.7	144.7	152.1	147.6	138.7	140.9

다. 5대기업과 5대이외기업의 수익성 비교

5대기업의 수익률이 대체로 5대이외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전후 매출액경상이익률의 개선폭도 5대기업이 9.4%p인데 비해 5대이외기업의 경우에는 2.6%p에 그쳤다.

같은 기간중 두 그룹 간의 금융비용부담률의 변동은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익성 개선폭의 차이는 주로 영업이익 부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5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비교 기간중 2.7%p 개선된 반면 5대이외기업은 오히려 1.1%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5대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은 외환위기 이후 외주 및 공장자동화투자 확대와 구조조정 등으로 매출원가율을 크게 낮춘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5 5대기업과 5대이외기업의 수익성지표 비교

(단위 : %, %p)

	80년대 (81~90)	90년대(A) (91~96)	2000년대(B) (02~05)	개선폭 (B-A)
매출액경상이익률	2.5	2.1	5.9	3.8
5 대 기 업	3.9	3.9	13.3	9.4
5 대 이 외 기 업	2.3	1.7	4.3	2.6
금융비용부담률	5.4	5.8	1.7	-4.1
5 대 기 업	3.5	4.7	0.8	-3.9
5 대 이 외 기 업	5.7	6.0	1.9	-4.1
매출액영업이익률	7.2	7.1	6.8	-0.3
5 대 기 업	7.3	9.7	12.4	2.7
5 대 이 외 기 업	7.2	6.7	5.6	-1.1
매출원가율	83.8	81.5	80.7	-0.8
5 대 기 업	87.0	80.4	73.7	-6.7
5 대 이 외 기 업	83.4	81.6	82.2	0.6

주 : 5대기업은 매출액 상위 5위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 포스코 등으로 구성

라. IT업종¹⁵⁾과 비IT업종의 수익성 비교

IT업종과 비IT업종의 수익성격차는 1990년대 들어 확대되었으나 외환위기후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휴대폰 등 주요 IT제품의 경쟁심화¹⁶⁾로 IT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전후 IT업종과 비IT업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3.6%p, 3.8%p 각각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중 영업이익률이 모두 소폭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상이익률의 개선은 주로 금융비용부담률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1-6

IT업종과 비IT업종의 수익성지표 비교

(단위 : %, %p)

	80년대 (81~90)	외환위기전 (91~96) (A)	외환위기후 (02~05) (B)	외환위기후				개선폭 (B-A)
				02	03	04	05	
매출액경상이익률	2.5	2.1	5.9	4.7	4.7	7.8	6.5	3.8
(I T 업 종)	3.1	4.0	7.6	6.6	4.6	11.8	7.5	3.6
(비 I T 업 종)	2.5	1.7	5.5	4.3	4.7	6.7	6.3	3.8
매출액영업이익률	7.2	7.1	6.8	6.7	6.9	7.6	6.1	-0.3
(I T 업 종)	8.1	11.3	8.9	7.9	8.6	11.5	7.5	-2.4
(비 I T 업 종)	7.2	6.4	6.3	6.5	6.4	6.5	5.8	-0.1
금융비용부담률	5.4	5.8	1.7	2.6	1.9	1.3	1.2	-4.1
(I T 업 종)	5.2	5.1	1.3	2.0	1.4	0.9	0.9	-3.8
(비 I T 업 종)	5.5	5.9	1.8	2.7	2.0	1.4	1.2	-4.1

1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D32)을 대상

16) 주요 IT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 추이

(연평균 가격기준)

(단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반도체(D램)	-53.9	-43.7	6.7	2.7	-67.1	-10.3	-20.0	2.5	-49.2
휴대폰	2.6	-14.7	-22.0	-34.1	-30.1	-35.3	-34.3	-24.2	-14.7

2. 우리나라 기업의 유형자산 변동추이

가. 우리나라 기업의 유형자산 변동추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대기업(17.0% → 0.7%)과 중소기업(11.5% → 4.9%) 모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하락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16.3%p)의 하락폭이 중소기업(-6.6%p)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조치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더 강력히 추진된 데 기인한다.

외환위기 이후(2001~05년) 유형자산중 설비자산*의 비중은 44.6%로 외환위기 이전(1991~96년)의 53.6% 보다 9.0%p 하락한 반면, 토지 및 건물·구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6.4%에서 55.4%로 10.0%p 상승하였다. 토지 및 건물·구축물 비중이 큰 폭 증가한 것은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및 비업무용 자산을 자산재평가 대상으로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

* 설비자산은 유형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구축물을 제외한 것으로 기
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등을 포함

표 IV-2-1

기업규모별 유형자산증가율의 추이
(연평균 기준)

(단위 : %)

	외환위기 이전 (91~96)	외환위기중 (97~00)	외환위기 이후 (01~05)
제 조 업	15.9	8.3	1.8
대 기 업	17.0	7.9	0.7
중 소 기 업	11.5	9.7	4.9

<표 IV-2-3>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업종별 유형자산증가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가운데, 도소매(6.5%), 전기전자(6.0%), 일반기계(3.9%) 등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3% 미만을 보였으며 특히 섬유·의복, 석유·화학, 통신, 운수 등 일부 업종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IV-2-1

기업규모별 유형자산증가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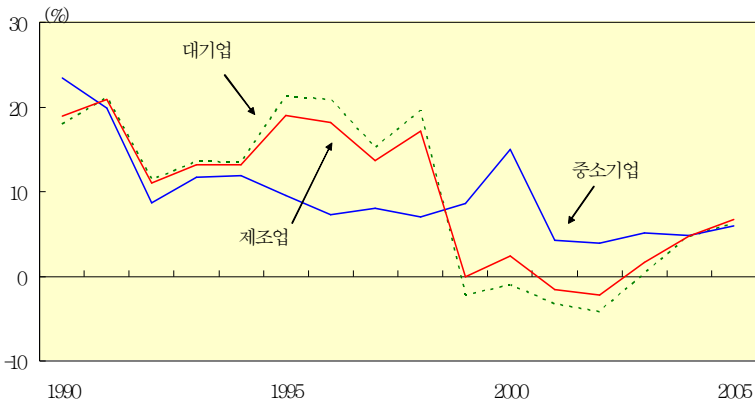


표 IV-2-2

제조업의 유형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

	외환위기 이전 (1991~96)	외환위기 중 (1997~00)	외환위기 이후 (2001~05)
토지, 건물·구축물	46.4	51.2	55.4
(토 지)	(20.3)	(24.3)	(26.5)
설비자산	53.6	48.8	44.6

표 IV-2-3

업종별 유형자산 증가율 추이
(연평균 기준)

(단위 : %)

	외환위기 이전 (91~96)	외환위기중 (97~00)	외환위기 이후 (01~05)
제조업	15.9	8.3	1.8
섬유의복	13.2	7.3	-3.3
석유화학	16.0	8.7	-1.2
목재종이	17.4	10.0	0.0
음식료품	15.3	6.2	0.6
철강금속	10.9	7.1	2.2
운송장비	20.1	6.5	2.4
비금속광물제품	14.8	4.3	0.7
가구및기타	11.2	9.1	2.2
일반기계	16.1	9.1	3.9
전기전자 ¹⁾	20.9	13.8	6.0
비제조업	15.7	14.1	1.6
통신	10.4	10.2	-3.8
운수	13.8	15.2	-0.8
건설	21.5	13.9	0.8
전기가스	18.2	16.6	2.1
도소매	18.7	15.6	6.5
전산업	15.8	10.6	1.6

주 : 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기기계,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등을 포함

나. 유형자산증가율 하락의 요인

(1) 수익성 위주의 경영

매출액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14.4%에서 외환위기 이후 7.8%로 크게 하락하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추진으로 기업들은 그 동안의 외형성장 대신 수익성 제고를, 신규투자 대신 부채상환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304.4%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129.2%로 급락한 반면,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1%에서 4.8%로 크게 상승하였다.

* 1998.3월 은행감독원은 금융권 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인 주거래 계열기업들의 부채비율을 1999~2001년중 200% 이내로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상시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리대상기업으로 2005년말까지 543개 기업이 선정(444개 정리완료, 99개 정리진행중) 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표 IV-2-4

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연평균 기준)

(단위 : %)

	외환위기이전 (91~96) (A)	외환위기중 (97~00)	외환위기이후 (01~05) (B)	B-A (%p)
부 채 비 율	304.4	281.1	129.2	-175.2
매출액경상이익률	2.1	0.2	4.8	2.7
매 출 액 증 가 율	14.4	8.7	7.8	-6.6

(2) 기술개발 증대에 따른 유형자산의 생산성 향상

유형자산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유형자산)이 외환위기 이전의 2.3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2.6회로 상승하였다. 특히 2001년 이후 유형자산회전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등

유형자산의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업들이 과거 외형성장위주의 경영에서 수익성위주의 경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동화 및 기술개발투자 등을 크게 늘린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해외직접투자의 급증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그린필드형 투자)는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국내의 설비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다.

표 IV-2-5

제조업 생산성관련 지표 추이
(연평균 기준)

(단위 : %)

	외환위기 이전 (91~96)	외환위기중 (97~00)	외환위기 이후 (01~05)					
				01	02	03	04	05
유형자산회전율 (회)	2.3	2.1	2.6	2.2	2.4	2.6	2.9	3.0
기술개발투자 /매출액 (%)	—	1.35	1.56	1.34	1.41	1.56	1.76	1.72

표 IV-2-6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연평균 기준)

(단위 : 백만달러)

	외환위기이전 (91~96) (A)	외환위기중 (97~00)	외환위기이후 (01~05) (B)	(B-A)
해외직접투자	2,240	4,214	5,047	2,80
(대기업)	1,758	3,201	3,082	1,324
(중소기업)	456	919	1,635	1,179
(개인)	26	94	330	304
외국인직접투자	1,634	11,642	10,239	8,605
(Greenfield형) ¹⁾	(-)	(8,846) ²⁾	(6,417)	(-2,429) ³⁾

주 : 1) M&A투자를 제외한 그린필드형(공장설립형) 외국인직접투자통계

2) 1998~2000년중 연평균

3) 외환위기이후 투자액과 외환위기중 투자액간 차이

(4) 자금조달 패턴 변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금도 외부차입보다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범위내에서 조달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수입으로 유형자산(순)투자 소요자금을 충당한 정도를 나타내는 투자안정성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48.6%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182.8%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IV-2-7

제조업의 투자안정성비율 추이
(연평균 기준)

(단위 : 억원, %)

	외환위기 이전 (94~97)	외환위기 이후 (98~05)	(2001~2005)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수입 ¹⁾ (A)	50.7	108.1	113.0
유형자산순투자지출 ¹⁾ (B)	106.9	57.9	63.1
투 자 안 정 성 비 율 (A/B)	48.6	182.8	186.3

주 : 1) 외감법인의 업체당 평균 현금흐름금액

표 IV-2-8

제조업의 고정장기적합률 추이

(단위 : %)

	외환위기 이 전 (91~96)	외환위기 기 간 (97~00)	외환위기 이 후 (01~05)	01	02	03	04	05
제 조 업	103.1	105.3	91.9	101.2	96.6	94.2	90.6	88.6
대 기 업	102.0	108.8	97.8	108.0	100.8	97.2	92.1	90.9
중소기업	108.5	94.7	84.9	83.5	85.1	86.8	86.5	82.7

고정장기적합률(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103.1%에서 외환위기 이후 91.9%로 하락하여 고정자산 투자 소요자금을 장기자본 범위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극적 투자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비투자가 GDP 변동보다 1분기 정도 선행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동행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과거와 같은 공격적 투자를 자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9

설비투자와 GDP의 선행성테스트 결과

	당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990.1/4 ~ 1997.4/4	0.8712	0.9020	0.8588	0.7672
1998.1/4 ~ 2005.4/4	0.9563	0.8168	0.6076	0.3660
1990.1/4 ~ 2005.4/4	0.9287	0.8724	0.7052	0.4634

* X-12 ARIMA 모형과 HP 필터에 의한 계절성과 추세가 제거된 GDP 및 설비투자 순환동행치(cyclical component)를 이용한 당분기 GDP(t)와 (t-i)기의 설비투자 시차상관계수

3. 중위수통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기업경영분석

가. 기업규모별 경영실적의 양극화현상

조사대상업체의 매출액규모로 가중하여 산출되는 현재의 기업경영 분석지표는 일부 대기업의 경영실적에 의해 크게 좌우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성과와 기업경영분석지표가 서로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제조업에 대한 기업경영분석 대상 조사모집단(2004년중 매출액 25 억원이상)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기준으로는 97.7%(24,697개중 24,135개)에 달하지만 매출액기준으로는 37.2%에 불과

이러한 사실은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1998~2001년중 연평균 0.4%에서 2002~2005년중 5.9%로 5.5%p 개선되었으나 같은 비교기간중 대기업(-0.6%→7.4%)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8.0%p나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2.3%에서 3.3%로 1.0%p 개선에 그치는 등 기업규모별로 수익성 개선폭에 큰 차이를 보인 데서도 알 수 있다.

표 IV-3-1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

	91~97 (A)	98~01 (B)	02~05 (C)					C-A (%p)	C-B (%p)
				02	03	04	05		
제 조 업(100.0)	1.7	0.4	5.9	4.7	4.7	7.8	6.5	4.2	5.5
대 기 업(2.3)	1.9	-0.6	7.4	5.4	6.0	10.2	8.1	5.5	8.0
중소기업(97.7)	1.2	2.3	3.3	3.4	2.5	3.3	3.9	2.1	1.0

주 : ()내는 2005년 기업경영분석 모집단에 대한 기업규모별 업체수 비중

이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4분위수 통계 등 경영분석지표의 분포도 분석을 통해 분포구간별 기업경영분석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 중위수 기업통계의 편제방법

가장 이상적인 중위수 기업통계는 매년 조사모집단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된 각종 경영분석지표 중위수의 조합이라 할 수 있으나 매년 표본기업만 조사하고 있어 실현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대체안으로 표본기업의 각종 경영분석지표의 중위수통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조사모집단의 매출액기준 중위수 기업군*의 경영분석지표를 <표 IV-3-3>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산출하여 중위수통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매출액기준으로 중위수 기업군의 경영분석지표를 중위수통계로 활용하는 근거는 매출액과 여타 재무제표 항목들간의 상관관계가 대체로 0.9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있음

표 IV-3-2 주요재무제표 항목과 매출액과의 상관계수

손익계산서	상관계수	대차대조표	상관계수
매출액	1.000	유동자산	0.951
매출원가	0.992	채고자산	0.852
판매관리비	0.899	고정자산	0.961
영업손익	0.827	투자자산	0.918
영업외수익	0.904	유형자산	0.937
영업외비용	0.928	자산총계	0.973
경상손익	0.874	유동부채	0.890
당기순손익	0.874	고정부채	0.754
		차분	0.935

표 IV-3-3

매출액기준 중위수통계 편제방안 및 평가

종류	방 법	평 가
표본기업 분석지표 기준	표본기업 ¹⁾ 의 각종 경영분석지표 기준으로 상위 25%(제1사분위수), 50%(제2사분위수), 75%(제3사분위수)순위로 나누고 제2사분위수 지표를 중위수기업의 경영지표로 채택	실제 경영분석지표별 순위에 의한 중위수이고 시계열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기업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19.5%)이 높은 점이 단점
조사모집단 매출액기준 제2사 분위수 기업군	조사모집단 ²⁾ 매출액기준 제2사분위수 기업과 매출규모가 비슷한 표본기업 40개의 합산재무제표에 의해 산출된 경영분석지표	조사모집단 매출액기준 중앙값에 가장 근접한 통계라는 장점이 있으나 분석 기업군의 업체 구성이 매년 달라져 분석지표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
조사모집단 매출액기준 40~60% 기업군	매출액규모가 조사모집단 매출액기준 상위 40~60% 구간에 속하는 표본기업의 합산재무제표에 의해 산출된 경영분석지표	중위수 구성업체의 범위대가 확대됨으로써 중위수 통계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 가능

주 : 1) 2005년 기업경영분석시 2,880개 업체

2) 2004년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제조업기준) 24,697개 업체

표본기업(2,880개)의 매출액분포가 조사모집단(24,697개)의 매출액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과 조사모집단의 매출액기준 제2사분위수 기업군(40개)의 구성업체의 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조사모집단의 매출액 순위 40~60% 기업군을 중위수 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표본기업 및 조사모집단의 기업분포도

조사모집단의 매출액기준 제2사분위수 기업의 매출액은 58.5 억원으로 2005년 연간기업경영분석 조사를 위한 표본기업의 제2사분위수 매출액 375.7억원의 약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같이 표본기업의 제2사분위수 매출액이 큰 이유는 조사모집단의 모수추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거대기업 등을 전수조사하는 등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표본기업 선정비율이 높은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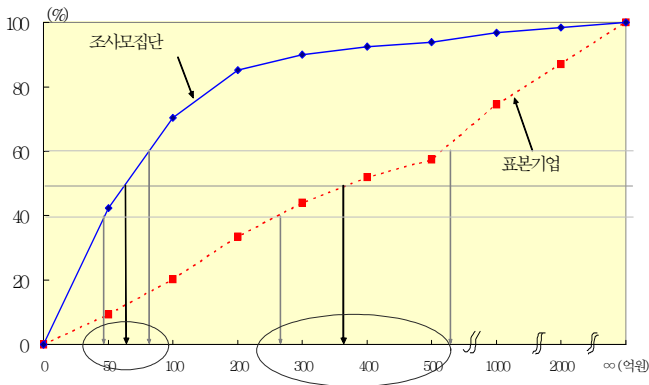
매출액기준 중위수통계 편제방안 및 평가

(단위 : %)

구 분	40%	50%(2사분위수)	60%
조 사 모 집 단 ¹⁾	73.7	58.5	47.7
표 본 기 업	556.8	375.7	260.7

주 : 1) 2004년 국세청 법인세신고업체 기준

업체수 누적비중별 매출액규모(제조업)



다. 중위수 기업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

조사모집단 매출액 순위 40%~60%에 속하는 2005년중 중위수 기업군과 제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중위수 기업군의 경영실적이 아래와 같이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

재무구조는 2005년 중위수 기업군의 부채비율(206.9%→198.3%)이 2004년에 비해 개선되는 가운데 하락폭(-8.6%p)은 제조업 전체(-3.3%p)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수익성은 2005년 중위수 기업군의 매출액경상이익률(2.9%→2.7%)이 2004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하락폭(-0.2%p)은 제조업 전체(-1.3%p)에 비해 소폭에 그쳤다. 성장성은 2005년중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증가율(17.1%→5.9%)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비해 중위수 기업군(-0.5%→2.7%)은 2004년 보다 3.2%p 상승하였다. 그러나, 유형자산증가율은 제조업 전체(4.8%→6.2%)가 1.4%p 상승한 반면, 중위수 기업군(1.1%→-0.6%)은 1.7%p 하락하였다. 이와같은 중위수 기업의 경영성과가 대체로 더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제조업의 경영실적을 크게 좌우하는 대기업이 2005년중 환율 및 유가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3-4 중위수기업과 제조업 전체의 주요 경영분석지표 비교

(단위 : %)

		중위수 기업			제조업 전체평균		
		2004 (A)	2005 (B)	차이 (B-A)	2004 (C)	2005 (D)	차이 (D-C)
재무구조	부 채 비 율	206.9	198.3	-8.6	104.2	100.9	-3.3
	자 기 자 본 비 율	32.6	33.5	0.9	49.0	49.8	0.8
수 익 성	매출액영업이익률	3.9	2.9	-1.0	7.6	6.1	-1.5
	매출액경상이익률	2.9	2.7	-0.2	7.8	6.5	-1.3
성 장 성	매 출 액 증 가 율	-0.5	2.7	3.2	17.1	5.9	-11.2
	유형자산증가율	1.1	-0.6	-1.7	4.8	6.2	1.4

주 : 성장성 관련지표는 각 해당년도 조사대상업체 기준임

라. 중위수통계에 의한 기업분석시 유의사항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중위수통계를 작성하여 시계열을 축적해 나가면서 중위수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표본기업 추출방식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IV-3-5

중위수기업의 경영분석지표 추이 비교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A)	2005 (B)	B-A
부 채 비 율	제 조 업	전 체	182.2	135.4	123.4	104.2	100.9	-3.3
		(중소기업)	(144.7)	(152.1)	(147.6)	(138.7)	(140.9)	(2.2)
	표 본 기 업 분 석 지 표 기 준	제1사분위수	57.2	60.3	53.0	51.1	51.5	0.4
		제2사분위수	126.0	129.5	120.5	117.5	114.2	-3.3
		제3사분위수	232.5	251.8	238.7	229.7	221.0	-8.7
	조사모집단 매출액 기준	제2사분위수	175.8	189.0	255.6	213.9	205.7	-8.2
		중위수통계	182.5	230.3	187.5	206.9	198.3	-8.6
매 출 액 경 상 이 익 률	제 조 업	전 체	0.4	4.7	4.7	7.8	6.5	-1.3
		(중소기업)	(2.2)	(3.4)	(2.5)	(3.3)	(3.9)	(0.6)
	표 본 기 업 분 석 지 표 기 준	제1사분위수	7.1	7.9	7.0	7.1	7.6	0.5
		제2사분위수	2.9	3.4	2.9	3.1	3.2	0.1
		제3사분위수	0.6	0.8	0.5	0.8	0.7	-0.1
	조사모집단 매출액 기준	제2사분위수	2.9	4.1	-5.8	5.3	1.7	-3.6
		중위수통계	3.5	2.7	1.8	2.9	2.7	-0.2
매 출 액 증 가 율	제 조 업	전 체	1.7	8.3	6.1	17.1	5.9	-11.2
		(중소기업)	(3.4)	(10.2)	(5.4)	(12.3)	(5.9)	(-6.4)
	표 본 기 업 분 석 지 표 기 준	제1사분위수	15.6	20.6	15.3	25.4	16.2	-9.2
		제2사분위수	3.7	7.3	2.7	9.6	3.7	-5.9
		제3사분위수	-7.8	-4.3	-9.2	-3.7	-8.5	-4.8
	조사모집단 매출액 기준	제2사분위수	-4.3	16.8	-26.3	5.1	2.8	-2.3
		중위수통계	-2.5	6.2	-4.0	0.2	2.8	2.6

주 : 조사모집단 매출액 기준 40%~60% 기업군

아울러 현행 기업경영분석을 위한 한국은행의 표본설계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차기 표본설계시 까지 동일한 매출액 범위대의 기업을 중위수기업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번 선정된 조사모집단 매출액기준 중위수 표본기업을 차기 표본설계시 까지 3년 연속 사용하거나 또는 표본설계 2년, 3년차에 중위수 기업 매출액 범위대를 중소기업 매출액증가를 만큼 매년 증가시키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중위수 매출구간에 해당하는 표본기업의 단순합산 재무제표가 조사모집단 중위수 기업의 특성을 과연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위수 매출구간에 해당하는 표본기업의 단순합산 재무제표 대신 확대배율(표본추출율)을 적용한 합산재무제표로 중위수 지표를 산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V-3-6

단순합산 및 확대배율적용 중위수 차이

(단위 : %, %p)

	단순합산			확대배율적용		
	2004 (A)	2005 (B)	차이 (B-A)	2004 (C)	2005 (D)	차이 (D-C)
(재무구조 관련지표)						
부 채 비 율	206.9	198.3	-8.6	219.7	201.3	-18.4
자 기 자 본 비 율	32.6	33.5	0.9	31.3	33.2	0.9
(수익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3.9	2.9	-1.0	3.8	3.4	-0.4
매출액경상이익률	2.9	2.7	-0.2	2.8	3.9	1.1
(성장성 관련지표)						
매 출 액 증 가 율	0.2	2.8	2.6	3.0	6.6	3.6
유 형 자 산 증 가 율	1.9	-0.5	-2.4	7.6	1.0	-6.6

4.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영성과 분포

가. 분석방법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영성과 분포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2006년중 당행 기업경영분석(제조업) 조사결과를 가공하여 분석하였다. 제조업 조사대상업체(2006년중 3,120개) 전체의 재무비율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되 조사대상업체중 표본이 추출되는 모집단에 속한 모집단업체는 표본업체와 동일한 재무비율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조업 모집단(24,691개)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즉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표본업체가 h업종의 i층(매출액규모가 비슷한 업체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선정되었으며 모집단수가 N, 추출된 표본수가 n이라면 h업종 i층의 표본업체의 재무비율과 h업종 i층의 모집단의 재무비율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표본업체(i업종, j층)재무비율 분포: $X_{hi1}, X_{hi2}, X_{hi3} \dots X_{hin}$

▶ 모집단업체(i업종, j층) 재무비율 분포

$X_{hi1}, X_{hi1}, \dots, X_{hi2}, X_{hi2}, \dots, X_{hi3}, X_{hi3}, \dots, X_{hin}, X_{hin} \dots$

N/n개	N/n개	N/n개	N/n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구조는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성장성은 매출액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의 분포를 각각 비교하였는데 분포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경영분석지표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여 상위 25%(제1사분위수), 50%(중위수), 75%(제3사분위수)순위로 나누어 추세를 분석하였다.

한편 집중도는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기준으로 전체대비 상위기업(5대기업, 10대기업, 50대기업)의 점유비중 추이를 이용하였다.

나. 분석결과

(1) 재무구조

(가) 부채비율

우리나라 제조업의 2006년말 부채비율 중위수는 183.8%로 제조업 전체평균(98.9%)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 중위수의 연도별 변동추이는 제조업 전체평균과 같이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다.

한편 2006년 부채비율 1사분위수(98.7%→90.4%)는 전년대비 8.3%p 하락한 반면 하위 3사분위수(324.6%→327.5%)는 2.9%p 상승하여 상·하위업체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

부채비율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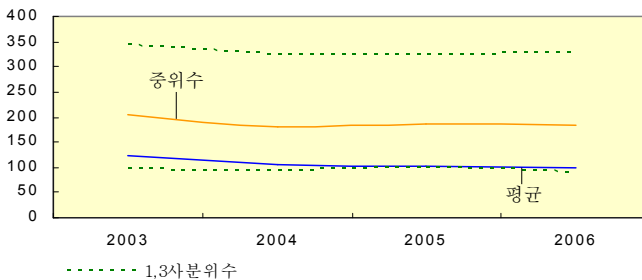


표 IV-4-1

부채비율 사분위수 및 평균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A)	2006(B)	B-A(%p)
중 위 수 (C)	205.1	181.0	185.6	183.8	-1.8
평 균 (D) ¹⁾	123.4	104.2	100.9	98.9	-2.0
(대 기업)	113.5	91.7	86.1	85.5	-0.6
(중소기업)	147.6	138.7	140.9	132.6	-8.3
C-D (%p)	81.7	76.8	84.7	84.9	0.2
1사분위수(E)	97.2	92.7	98.7	90.4	-8.3
3사분위수(F)	341.9	324.2	324.6	327.5	2.9
E-F (%p)	244.7	231.5	225.9	237.1	1.2

주 : 1) 규모가 감안된 가중평균 비율

(나) 차입금의존도

2006년말 차입금의존도 중위수는 33.0%로 제조업 전체평균(22.4%)보다 10.6%p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차입금의존도 제조업 전체평균(22.9%→22.4%)은 전년대비 0.5%p 하락하였으나 중위수는 33%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존도 하락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한편 2006년 차입금의존도 1사분위수(17.0%→15.0%)는 전년대비 2.0%p 하락한 반면 3사분위수(47.9%→49.3%)는 상승하여 상·하위 업체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2 차입금의존도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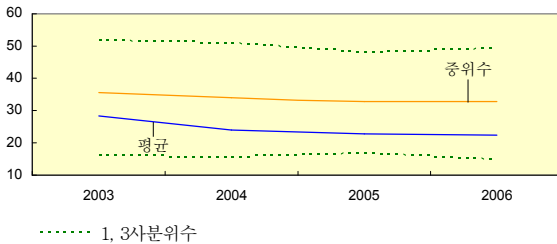


표 IV-4-2 차입금의존도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A)	2006(B)	B-A(%p)
중 위 수 (C)	35.5	33.9	33.0	33.0	0.0
평 균 (D) ¹⁾	28.3	24.0	22.9	22.4	-0.5
(대 기 업)	25.9	20.4	19.1	18.1	-1.0
(중소기업)	33.5	31.9	30.8	30.9	0.1
C-D (%p)	7.2	9.9	10.1	10.6	0.5
1사분위수(E)	15.9	15.6	17.0	15.0	-2.0
3사분위수(F)	51.8	50.7	47.9	49.3	1.4
E-F (%p)	35.9	35.1	30.9	34.3	3.4

주 : 1) 규모가 감안된 가중평균 비율

(2) 수익성

(가) 매출액영업이익률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중위수는 3.8%로 제조업 전체평균(5.3%)보다 1.5%p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4년이후 매년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4%대를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중위수와 제조업 전체평균과의 격차는 축소되었다.

한편 2006년 매출액영업이익률 1사분위수(6.4%→6.1%)가 전년대비 0.3%p 하락한 반면 3사분위수는 1.4%를 유지함으로써 상·하위업체간 격차는 축소되었다.

그림 IV-4-3 매출액영업이익률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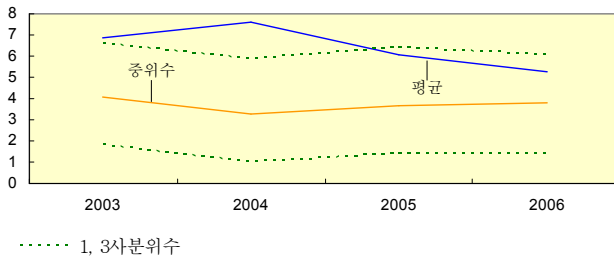


표 IV-4-3 매출액영업이익률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A)	2006(B)	B-A(%p)
중 위 수 (C)	4.1	3.3	3.7	3.8	0.1
평 균 (D) ¹⁾	6.9	7.6	6.1	5.3	-0.8
(대 기 업)	8.2	9.4	7.2	6.0	-1.2
(중소기업)	4.6	4.1	4.4	4.3	-0.1
C-D (%p)	2.8	4.3	2.4	1.5	-0.9
1사분위수(E)	6.6	5.9	6.4	6.1	-0.3
3사분위수(F)	1.8	1.0	1.4	1.4	0.0
E-F (%p)	4.8	4.9	5.0	4.7	-0.3

주 : 1) 규모가 감안된 가중평균 비율

(나) 매출액경상이익률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경상이익률 중위수는 2.8%로 제조업 전체평균(5.7%)보다 2.9%p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005년에 비해 1.1%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0.4%p 하락에 그쳐 중위수와 제조업 전체평균과의 격차는 축소되었다.

한편 2006년 매출액경상이익률 1사분위수(5.7%→5.2%)는 전년대비 0.5%p 하락한 반면 3사분위수는 1.0%로 변화가 없어 상·하위업체간 격차도 축소되었다.

그림 IV-4-4 매출액경상이익률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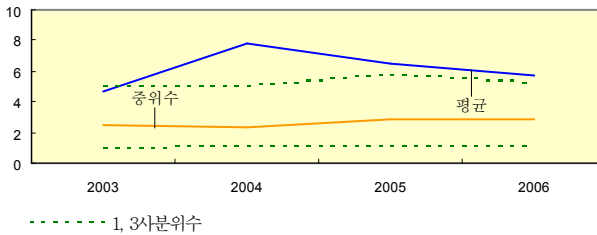


표 IV-4-4 매출액경상이익률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A)	2006(B)	B-A(%p)
중 위 수 (C)	2.5	2.4	2.9	2.8	-0.1
평 균 (D) ¹⁾	4.7	7.8	6.5	5.7	-0.8
(대 기업)	6.0	10.2	8.1	7.0	-1.1
(중소기업)	2.5	3.3	3.9	3.5	-0.4
C-D (%p)	2.2	5.4	3.6	2.9	-0.7
1사분위수(E)	5.0	5.0	5.7	5.2	-0.5
3사분위수(F)	0.9	1.0	1.0	1.0	1.0
E-F (%p)	4.1	4.0	4.7	4.2	-0.5

주 : 1) 규모가 감안된 가중평균 비율

(다) 이자보상비율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중위수는 240.5%로 제조업 전체평균(439.3%)보다 198.8%p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기업(695.0%→571.8%)의 이자보상비율은 2005년에 비해 123.2%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313.2%→282.9%)은 30.3%p 하락에 그쳐 중위수와 제조업 전체평균과의 격차는 축소되었다.

한편 2006년 이자보상비율 1사분위수(771.8%→635.7%)는 전년대비 135.1%p 하락한 반면 3사분위수(104.2%→103.8%)는 0.4%p 하락에 그쳐 상하위업체간 격차도 축소되었다.

그림 IV-4-5 이자보상비율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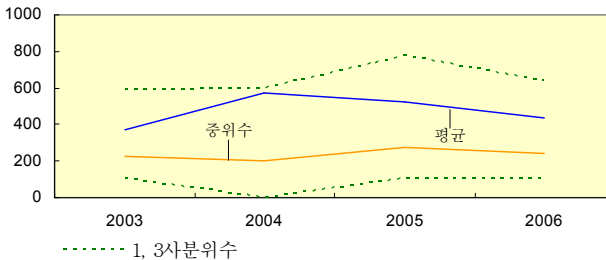


표 IV-4-5 이자보상비율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A)	2006(B)	B-A(%p)
중 위 수 (C)	223.0	197.6	275.0	240.5	-34.5
평 균 (D) ¹⁾	367.1	575.8	525.4	439.3	-86.1
(대기업)	428.8	793.4	695.0	571.8	-123.2
(중소기업)	255.9	266.0	313.2	282.9	-30.3
C-D (%p)	144.1	378.2	250.4	198.8	-51.6
1사분위수(E)	588.5	593.8	771.8	635.7	-136.1
3사분위수(F)	102.9	77.6	104.2	103.8	-0.4
E-F (%p)	485.6	516.2	667.6	531.9	-135.7

주 : 1) 규모가 감안된 가중평균 비율

(3) 성장성

(가) 매출액증가율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중위수는 5.2%로 제조업 전체평균(6.3%)보다 1.1%p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대기업(5.9%→6.5%)이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증가율 상승을 견인(2005년 대비 0.4%p) 하였으나 중위수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다소 더 큰 폭(0.5%p)으로 상승함으로써 중위수와 제조업 전체평균과의 격차는 소폭 축소되었다.

한편 2006년 매출액증가율 1사분위수(19.7%→20.5%)는 전년대비 0.8%p 상승한 반면 3사분위수(-10.9%→-9.4%)는 1.5%p 개선됨으로써 상·하위업체간의 격차도 소폭 축소되었다.

그림 IV-4-6 매출액증가율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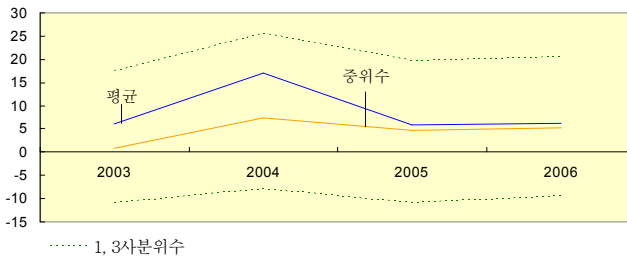


표 IV-4-6 매출액증가율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A)	2006(B)	B-A(%p)
중 위 수 (C)	0.9	7.5	4.7	5.2	0.5
평 균 (D) ¹⁾	6.1	17.1	5.9	6.3	0.4
(대 기 업)	6.6	19.9	5.9	6.5	0.6
(중 소 기 업)	5.4	12.3	5.9	5.9	0.0
C-D (%p)	5.2	9.6	1.2	1.1	-0.1
1사분위수(E)	17.5	25.5	19.7	20.5	0.8
3사분위수(F)	-10.9	-7.8	-10.9	-9.4	1.5
E-F (%p)	28.4	33.3	30.6	29.9	-0.7

주 : 1) 규모가 감안된 가중평균 비율

(나) 유형자산증가율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 유형자산증가율 중위수는 -0.6% 로 제조업 전체평균(6.0%)보다 6.6p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제조업 전체($6.2\% \rightarrow 6.0\%$)의 평균 유형자산증가율이 2005년에 비해 0.2p 하락한 반면 중위수($0.0\% \rightarrow -0.6\%$)는 이보다 더 큰 폭(-0.6p) 하락하여 중위수와 제조업 전체평균과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한편 2006년 매출액증가율 1사분위수($16.4\% \rightarrow 13.2\%$)는 전년대비 3.2p 하락한 반면 3사분위수($-6.8\% \rightarrow -8.3\%$)는 1.5p 하락에 그쳐 상·하위업체간의 격차는 축소되었다.

그림 IV-4-7 유형자산증가율 사분위수 및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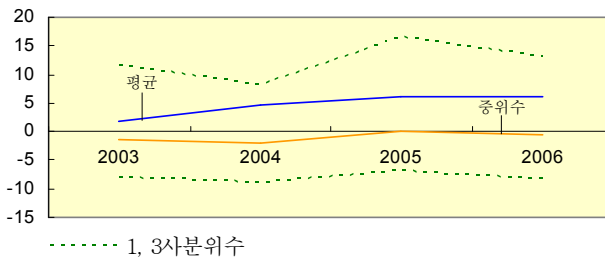


표 IV-4-7 유형자산증가율 사분위수 및 평균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A)	2006(B)	B-A(%p)
중 위 수 (C)	-1.3	-2.0	0.0	-0.6	-0.6
평 균 (D) ¹⁾	1.7	4.8	6.2	6.0	-0.2
(대 기 업)	0.4	4.7	6.0	5.5	-0.5
(중소기업)	5.2	4.9	6.7	7.2	0.5
C-D (%p)	3.0	6.8	6.2	6.6	0.4
1사분위수(E)	11.6	8.0	16.4	13.2	-3.2
3사분위수(F)	-8.2	-8.9	-6.8	-8.3	-1.5
E-F (%p)	19.8	16.9	23.2	21.5	-1.7

주 : 1) 규모가 감안된 가중평균 비율

(4) 집중도

제조업 매출액 상위기업의 매출액집중도*는 2004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상위 5대기업의 매출액집중도가 2004년의 19.4%에서 2005년 18.2%, 2006년 17.3%로 하락하였다.

한편 제조업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상위기업의 집중도**도 2004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상위 5대기업의 영업이익집중도가 2004년의 39.0%에서 2005년 35.1%, 2006년 32.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 상위 기업의 매출액이 제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이익 상위 기업의 이익이 제조업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IV-4-8

주요 항목별 집중도 추이(제조업)

(단위 : %)

		2003	2004(A)	2005	2006(B)	B-A(%p)
매출액	상위 5대	18.0	19.4	18.2	17.3	-2.1
	상위10대	25.2	27.0	25.8	25.6	-1.4
	상위50대	41.4	44.0	42.5	42.9	-1.1
영업이익	상위 5대	32.7	39.0	35.1	32.0	-7.0
	상위10대	40.3	49.6	43.7	41.3	-8.3
	상위50대	60.0	69.4	61.1	60.4	-9.0
경상이익	상위 5대	45.0	41.9	38.0	37.5	-4.4
	상위10대	56.5	53.4	47.7	47.5	-5.9
	상위50대	82.2	75.3	67.6	68.8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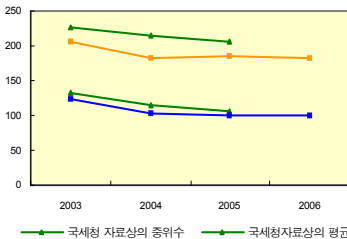
<참고>

국세청 전수 조사자료와 기업경영분석 추정치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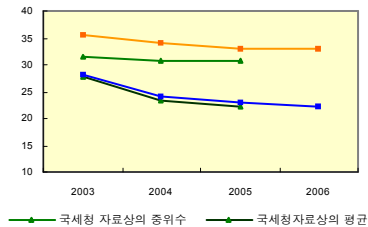
주요 재무비율의 중위수 및 평균을 국세청 전수조사 자료*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통한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수준 및 추세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을 전체 자료(2003년~2005년)로 기업경영분석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매출액 25억미만의 영세기업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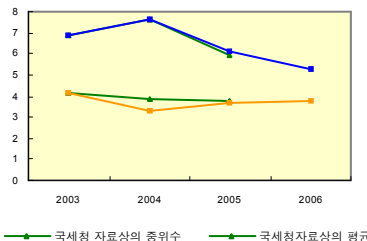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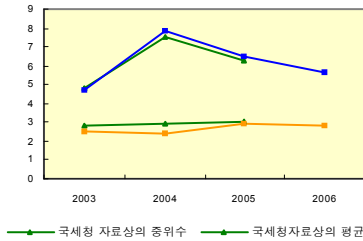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5.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

가. 조사개요

2007. 4. 1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006년말기준 계열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군) 가운데서 정부투자기관 등을 제외한 55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금융업 제외)중 2006년 당행의 기업경영분석 조사업체 453개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조사대상업체의 총자산 및 매출액이 55개 기업집단소속 전체업체(1,079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다.

표 IV-5-1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단위 : 개, 조원, %)

자 산 항 목	업 체 수	자산규모 및 경영성과		
		총자산	매출액	단기순이익
62개 기업집단	1,196	979.7	841.4	51.1
55개 기업집단* (A)	1,079	708.5	682.5	43.1
55개 집단 중 당행 조사업체* (B)	453	639.4	635.2	41.5
(B / A)	(42.0)	(90.2)	(93.1)	(96.3)
상 위 4 대 (C)	112	258.6	303.3	19.4
(C / B)	(24.7)	(40.4)	(47.7)	(46.7)
5 대 이 하 (D)	341.0	380.8	331.8	22.1
(D / B)	(75.3)	(59.6)	(52.2)	(53.3)

주 : 금융업 제외

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성과

(1) 수익성

(가) 매출액영업이익률

2006년 조사대상 기업집단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0%로 전체기업 평균(5.2%)에 비해 1.8%p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2005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체기업과의 격차는 감소하였다. 기업집단 규모별로 살펴보면, 5대 이하 기업집단의 2006년 매출액영업이익률(7.3%)이 상위 4대 기업집단(6.7%)보다 0.6%p 높은 가운데,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V-5-2

매출액 영업이익률¹⁾ 추이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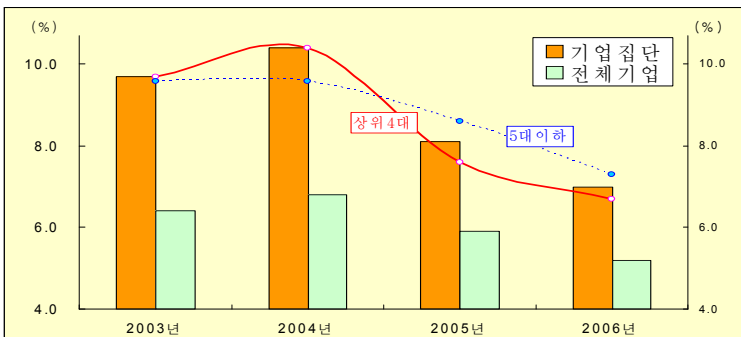
	2003 ²⁾	2004 ²⁾	2005 (A)	2006 (B)	B - A
기업집단 (C)	9.7	10.4	8.1	7.0	-1.1
상위 4대	9.7	10.4	7.6	6.7	-0.9
5대 이하	9.6	9.6	8.6	7.3	-1.3
전체기업 (D)	6.4	6.8	5.9	5.2	-0.7
C - D	3.3	3.6	2.2	1.8	-0.4

주 : 1) (영업손익 / 매출액) × 100

2) 2005년 기준 상호출자제 한기업을 대상으로 집계(이하 동일)

그림 IV-5-1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나) 매출액세전 순이익률

또한 기업집단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전체기업 평균(5.6%)보다 2.6%p 높은 8.2%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에 비하면 0.7%p 하락하였다.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2005년까지 상위 4대 기업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5대 이하 기업집단(8.5%)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상위 4대 기업집단(7.9%)을 상회하고 있다.

표 IV-5-3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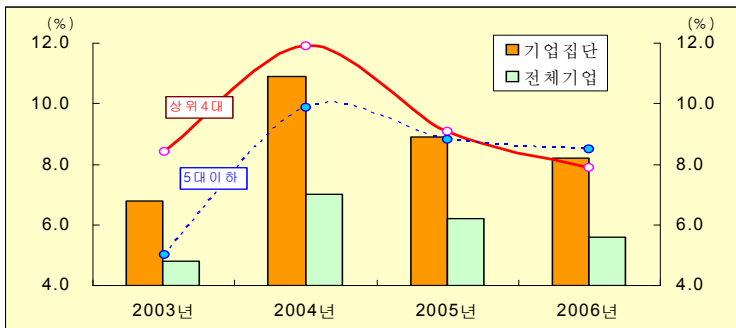
(단위 : %, %p)

	2003	2004	2005 (A)	2006 (B)	B - A
기업집단 (C)	6.8	10.9	8.9	8.2	-0.7
상위 4대	8.4	11.9	9.1	7.9	-1.2
5대 이하	5.0	9.9	8.8	8.5	-0.3
전체기업 (D)	4.8	7.0	6.2	5.6	-0.6
C - D	2.0	2.9	2.7	2.6	-0.1

주 : (법인세차감전손익 / 매출액) × 100

그림 IV-5-2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추이



한편 기업집단 계열사의 이자보상비율 구간별 분포구조를 보면, 300%이상의 우량 업체비중(무차입기업 포함)이 64.5%로 전체기업(50.7%)보다 13.8%p 높고 100%미만 불량업체비중(17.6%)은 전체기업(27.3%)보다 9.7%p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상위 4대 기업집단이 5대 이하 기업집단보다 우량업체 비중은 더 높고 불량업체 비중은 더 낮게 나타나 상위 4대 기업집단의 금융비용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그림 IV-5-3 기업집단업체별 이자보상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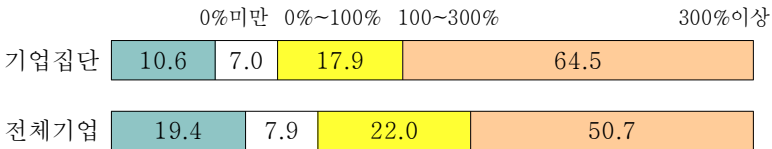


표 IV-5-4 기업집단의 이자보상비율 구간별 업체수 비중

(단위 : %)

	100%미만		100~300%	300%이상	무차입
		0%미만			
기업집단 (A)	17.6	10.6	17.9	64.5	16.1
상위 4대	15.7	9.3	13.9	70.4	11.1
5대 이하	18.3	11.0	19.1	62.6	17.7
전체기업 (B)	27.3	19.4	22.0	50.7	10.6
A - B	-9.7	-8.8	-8.1	13.8	5.5

(2) 안정성

(가) 부채비율

2006년말 조사대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전체기업 평균(105.3%)보다 10.1%p 낮은 95.2%로 100%를 하회하고 있으

며, 2005년에 비해서는 1.7%p 하락하였다. 특히 상위 4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80.3%)이 100%를 크게 하회하는 반면 5대 이하 기업집단(106.8%)은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4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80.4%→80.3%)이 2005년말대비 0.1%p 하락에 그친 반면 5대 이하 기업집단은 더 큰 폭(6.6%p)으로 하락함으로써 상·하위 집단간의 격차(33.0%p→26.5%p)는 줄어들었다.

표 IV-5-5

부채비율 현황

(단위 : %, %P)

	2003	2004	2005 (A)	2006 (B)	B - A
기업집단 (C)	121.5	104.9	96.9	95.2	-1.7
상위 4대	102.1	86.3	80.4	80.3	-0.1
5대 이하	140.1	123.4	113.4	106.8	-6.6
전체기업 (D)	131.3	114.0	110.9	105.3	-5.6
C - D	-9.8	-9.1	-14.0	-10.1	3.9

(나) 차입금의존도

2006년말 현재 조사대상 기업집단의 차입금의존도는 2005년에 비해 1.7%p 하락한 19.6%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기업 평균(23.1%)에 비해 3.5%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 4대 기업집단의 차입금의존도는 전체기업 평균 및 5대 이하 기업집단(23.2%)에 비해 크게 낮은 14.4%를 기록하였다.

표 IV-5-6

차입금의존도¹⁾ 현황

(단위 : %, %p)

	2003	2004	2005 (A)	2006 (B)	B - A
기업집단 (C)	29.3	23.9	21.3	19.6	-1.7
상위 4대	22.8	18.1	16.3	14.4	-1.9
5대 이하	34.5	28.7	25.4	23.2	-2.2
전체기업 (D)	29.1	25.6	24.1	23.1	-1.0
C - D	0.2	-1.7	-2.8	-3.5	-0.7

주 : 1) {(장·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본} × 100

(3) 성장성

(가) 매출액증가율

2006년중 조사대상 기업집단의 매출액증가율은 6.8%로 전체기업 평균(6.0%)보다 0.8%p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그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2005년까지 상위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증가율이 5대 이하 기업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06년도에는 5대 이하 기업집단의 매출액증가율(8.1%)이 상위 4대 기업집단(5.5%)에 비해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조선업체가 대부분 5대 이하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표 IV-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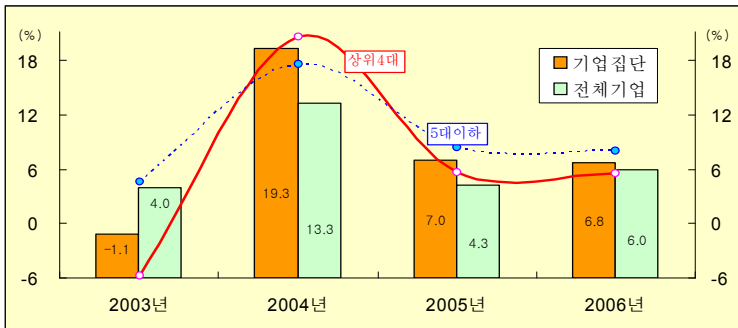
매출액증가율 현황

(단위 : %, %p)

	2003	2004	2005 (A)	2006 (B)	B - A
기업집단 (C)	-1.1	19.3	7.0	6.8	-0.2
상위 4대	-5.7	20.7	5.7	5.5	-0.2
5대 이하	4.6	17.7	8.5	8.1	-0.4
전체기업 (D)	4.0	13.3	4.3	6.0	-1.7
C - D	-5.5	6.0	2.7	0.8	-1.9

그림 IV-5-4

매출액증가율 현황



(나) 유형자산증가율

대규모 기업집단의 유형자산증가율은 전체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4대 기업집단의 유형자산증가율이 5대 이하 기업집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5대 이하 기업집단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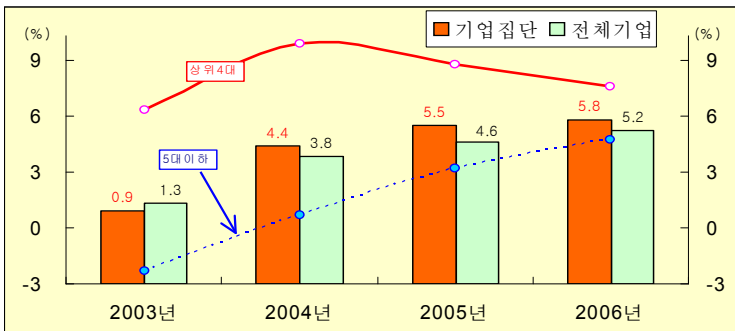
유형자산증가율 현황

(단위 : %, %p)

	2003	2004	2005 (A)	2006 (B)	B - A
기업집단 (C)	0.9	4.4	5.5	5.8	0.3
상위 4대	6.3	9.9	8.8	7.6	-1.2
5대 이하	-2.3	0.7	3.2	4.7	1.5
전체기업 (D)	1.3	3.8	4.6	5.2	0.6
C - D	-0.4	0.6	0.9	0.6	-0.3

그림 IV-5-5

유형자산증가율 현황



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별 경영성과

2006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성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체 제조기업 평균에 비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모든 부문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비제조업은 재무구조와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증가율에서 전체기업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수익성

2006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전체기업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7.3%)이 제조업(6.9%)보다 0.4%p 더 높은 반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제조업(8.4%)이 비제조업(7.8%)보다 0.6%p 더 높게 나타났다.

(나) 안정성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모두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82.6%로 100%를 크게 밑돌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은 119.2%로 전체기업 평균(112.6%)보다 6.6%p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성장성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6.9%로 비제조업(6.7%)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형자산증가율은 제조업(7.4%)이 비제조업(3.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IV-5-9 2006년 기업집단의 산업별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P)

		수 익 성		안 정 성		성 장 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제조업	기업집단(A)	6.9	8.4	82.6	16.3	6.9	7.4
	전체기업(B)	5.3	5.7	98.9	22.4	6.3	6.0
	A - B	1.6	2.7	-16.3	-6.1	0.6	1.4
비제조업	기업집단(C)	7.3	7.8	119.2	25.1	6.7	3.3
	전체기업(D)	5.1	5.4	112.6	23.9	5.6	4.2
	C - D	2.2	2.4	6.6	1.2	1.1	-0.9

(라) 업종별 경영성과

2006년 대규모 기업집단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매출액기준)은 제조업(23.8%)이 비제조업(13.6%)보다 더 높은 가운데, 업종에 따라 경영성과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은 산업용유리가 35.6%로 가장 높고, 통신업(14.8%), 음식료·담배(13.1%), 철강(12.4%), 전기전자(9.2%), 건설업(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안정성(부채비율)은 산업용유리(21.1%), 철강(48.5%), 전기전자(49.5%), 음식료·담배(67.3%), 통신업(89.4%), 자동차(95.3%)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부채비율(247.2%)은 수출선수금 등에 기인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제외하면 조선업종의 부채비율(82.9%)이 100%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다.

성장성은 조선업의 매출액증가율이 18.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기가스업(12.2%), 산업용기계(11.6%), 석유화학(8.7%), 건설업(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자산증가율은 전기전자(14.8%), 철강(11.6%) 등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IV-5-10 2006년 기업집단의 업종별 경영지표 현황

(단위 : %)

	(가) 중*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증가율	유형 자산 증가율
제 조 업	23.8	6.9	8.4	82.6	16.3	6.9	7.4
음 식 료 · 담 배	0.8	13.1	16.8	67.3	19.0	2.5	1.8
섬 유 · 의 복	0.5	3.3	0.7	118.7	33.4	-2.9	-6.2
목 재 · 종 이	0.1	4.9	-7.1	160.7	51.6	-6.6	-1.8
석 유 · 화 학	6.1	4.8	6.2	95.2	23.3	8.7	2.8
비 금 속 광 물	0.3	20.4	20.8	72.1	29.1	4.9	0.4
(산업용유리)	0.2	35.6	37.9	21.1	6.0	5.9	7.2
(시멘트)	0.1	0.7	-1.6	146.5	46.3	3.5	-3.6
금 속 제 품	2.8	11.1	12.2	52.3	19.2	2.4	11.2
(철강)	2.3	12.4	13.1	48.5	18.4	-3.5	11.6
기 계 · 전 기 전 자	7.2	8.7	10.4	57.3	11.3	5.6	13.7
(산업용기계)	1.0	5.7	5.1	139.2	21.0	11.6	2.4
(전기전자)	6.2	9.2	11.2	49.5	9.8	4.7	14.8
운 송 장 비	6.0	3.8	5.5	140.9	10.7	10.8	5.1
(자동차)	4.0	3.6	5.1	95.3	13.3	7.0	4.8
(조선)	1.9	4.0	6.3	247.2	6.8	18.9	6.4
비 제 조 업	13.6	7.3	7.8	119.2	25.1	6.7	3.3
전 기 · 가 스 업	0.4	6.2	5.6	125.0	27.4	12.2	0.3
건 설 업	2.8	8.1	8.4	164.1	22.8	7.6	3.4
서 비 스 업	10.3	7.1	7.8	109.6	25.6	6.3	3.5
(도소매업)	4.8	4.5	5.7	122.0	24.2	5.1	7.7
(운수업)	2.0	4.1	6.0	167.5	42.1	5.3	3.4
(통신업)	2.2	14.8	11.0	89.4	25.2	4.2	-0.6

* 전체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는 부문별 1·2위 업종

마. 시사점

(가) 기업집단과 일반기업과의 양극화 현상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성과가 전체기업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기업집단과 일반기업과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5-11

2006년 기업집단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 %p)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2005	2006	2005	2005	2005	2006	2005	2006
기업집단(A)	8.1	7.0	96.9	95.2	7.0	6.8	5.5	5.8
전체기업(B)	5.9	5.2	110.9	105.3	4.3	6.0	4.6	5.2
A - B	2.2	1.8	-14.0	-10.1	2.7	0.8	0.9	0.6
A-B	△0.4%p		△3.9%p		△1.9%p		△0.3%p	

(나) 기업집단내에서도 양극화 현상 완화

기업집단 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은 2005년부터 5대 이하 기업집단이 상위 4대 기업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다만, 재무구조와 유형자산증가율은 상위4대 기업집단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5대 이하 기업집단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내수기업의 비중(13.1%:7.4%)이 높아 상대적으로 원화절상의 영향을 덜 받은 데 기인한다.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것은 주요 조선업체의 대부분이 5대 이하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표 IV-5-12

2006년 기업집단 규모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증가율

(단위 : %)

	상위 4대 기업집단				5대 이하 기업집단			
	제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비제조업	제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비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6.5	6.7	5.5	7.4	7.4	6.3	8.3	7.2
매출액증가율	4.5	3.8	7.4	8.4	10.1	19.0	4.3	5.8
매출액비중*	36.0	29.4	6.6	11.8	28.3	15.2	13.1	23.9

* 기업집단의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 기업집단의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

대규모 기업집단의 유형자산증가율이 전체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위 4대 기업집단의 유형자산증가율이 크게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기업의 설비투자를 상위4대 기업집단이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유보율이 매우 높고 부채비율도 100%를 하회하는 반면에 유형자산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규 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IV-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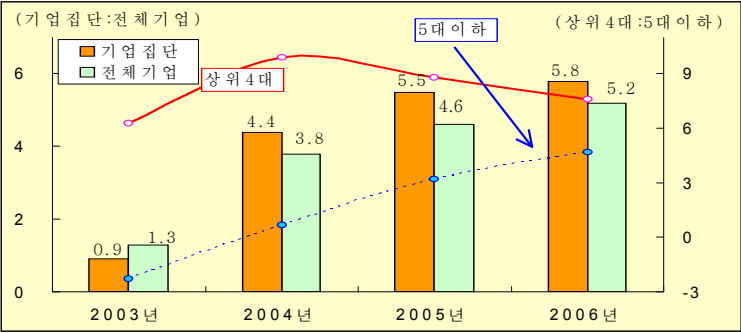
연도별 유형자산증가율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기업집단	0.9	4.4	5.5	5.8
상위 4대	6.3	9.9	8.8	7.6
5대 이하	-2.3	0.7	3.2	4.7
전체기업	1.3	3.8	4.6	5.2

그림 IV-5-6

연도별 유형자산증가율 추이



6. 금리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자비용/매출액)¹⁷⁾은 2000년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업들이 차입금을 줄인 데 힘입어 금융비용이 감소한 데다 매출도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2001년의 4.2%에서 2005년에는 1.2%로 크게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금리하락에다 차입금이 2001년 179.7조원에서 2005년 93.7조원으로 크게 줄어든 데 힘입어 금융비용부담률이 5.0%에서 1.0%로 1/5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58.8조원에서 70.5조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6%에서 1.4%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표 IV-6-1

금융비용부담률 추이

(단위 : %, 조원)

		91~97	98~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	금융비용부담률	55.9	6.9	4.2	2.6	1.9	1.3	1.2
	이자비용	16.9	31.7	22.5	15.9	12.4	10.1	9.8
	차입금(평균)	147.9	266.0	238.6	208.5	181.6	171.0	164.0
	차입금리	11.6	11.8	9.4	7.7	6.8	5.9	6.0
	매출액	284.7	474.8	540.8	616.2	662.0	772.1	842.3
대기업	금융비용부담률	6.4	8.2	5.0	3.0	1.9	1.2	1.0
	이자비용	13.1	25.3	17.8	11.7	8.0	6.0	5.5
	차입금(평균)	117.5	208.4	179.7	150.5	114.2	102.4	93.7
	차입금리	11.4	12.1	9.9	7.8	7.0	5.8	5.8
	매출액	203.6	316.0	357.1	396.1	418.2	501.1	529.2
중소기업	금융비용부담률	4.6	4.2	2.6	2.0	1.8	1.5	1.4
	이자비용	3.7	6.3	4.7	4.3	4.4	4.2	4.4
	차입금(평균)	30.4	57.5	58.8	58.1	67.3	68.5	70.5
	차입금리	12.5	11.1	8.1	7.3	6.6	6.1	6.2
	매출액	81.1	158.8	183.7	220.2	243.8	271.0	313.1

주 : 연간 매출액 25억원 이상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대상기업

17) 이자비용은 기업이 금융거래로 지급한 비용을 의미하며,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정도는 통상 매출액 대비 비율로 측정한다

금리 1%p 변동이 제조업의 수익성(매출액경상이익률)에 미치는 영향¹⁸⁾은 2001년 0.44%p에서 2005년 0.19%p로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차입금을 크게 감축한 데 기인한다. 한편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차입금 감축이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폭이 2002년까지는 대기업이 더 컸으나 2003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금리 1%p 변동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목재·종이(0.34%p), 비금속광물(0.32%p)이 매출액대비 차입금비율이 높은 업종의 수익성 하락폭이 큰 반면 동 비율이 낮은 영상음향통신장비(0.14%p), 운송장비(0.14%p) 등의 업종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표 IV-6-2

금리 1%p 상승시 수익성 변동폭¹⁾

(단위 : %, 조원)

	91~97	98~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익성 변동폭 (A/B*0.01)	-0.51	-0.57	-0.44	-0.34	-0.27	-0.22	-0.19
차입금(A)	147.9	266.0	238.6	208.5	181.6	171.0	164.0
매출액(B)	284.7	474.8	540.8	616.2	662.0	772.1	842.3
대기업	-0.57	-0.67	-0.50	-0.38	-0.27	-0.20	-0.18
중소기업	-0.37	-0.37	-0.32	-0.26	-0.28	-0.25	-0.23

주 : 1) 평균차입금 규모와 금리상승폭을 감안한 매출액경상이익률 변화로 측정

18) 금리변동 효과는 다음 2가지 전제하에 분석되었음

- ① 금리상승시 보유 금융자산으로 부터 이자수익이 증가함으로써 지급이자 증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겠지만 수입이자 발생하는 금융자산보유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수입 이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② 차입금 만기구조에 따라 금리반영 시차가 존재하지만 차입금 만기 구조는 연도별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표 IV-6-3

금리1%p 변동시 제조업 업종별
매출액경상이익률 변화(2005년 기준)

(단위 : 억원, %, %p)

	차입금 (A)	매출액 (B)	차입금/매출액 (C=B*100)	경상이익률 변화폭 (C*0.01)
제 조 업	1,640,124	8,422,929	19.5	0.19
목 재 · 종 이	95,752	282,462	33.9	0.34
비 금 속 광 물	70,133	218,753	32.1	0.32
음 식 료 품	131,770	466,517	28.2	0.28
섬 유 및 가 족	135,520	529,679	25.6	0.26
금 속 제 품	210,128	999,528	21.0	0.21
기 계 및 전 기	172,266	817,233	21.1	0.21
석 유 · 화 학 제 품	349,652	1,736,613	20.1	0.20
운 송 장 비	220,181	1,557,754	14.1	0.14
영상음향통신장비	229,888	1,674,248	13.7	0.14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업체 비중의 변화는 금리가 오를 때 이 비중의 상승폭이 금리가 내릴 때의 하락폭을 상회하였으나 그 정도는 2001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겨우 감당하는 수준의 한계기업이 2001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표 IV-6-4

금리변동폭별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업체 비중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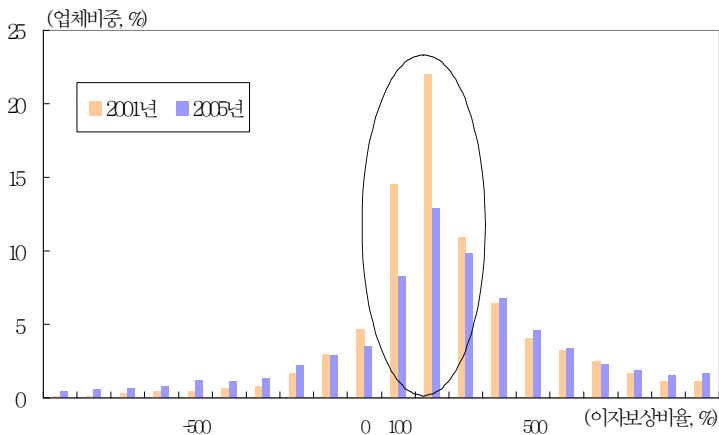
(단위 : %, %p)

	-3%p	-2%p	-1%p	0%p	1%p	2%p	3%p
2001년	22.8 (-5.8)	24.6 (-4.1)	26.7 (-1.9)	28.6	31.4 (+2.8)	34.1 (+5.5)	36.7 (+8.1)
2005년	21.1 (-4.4)	22.5 (-3.0)	24.0 (-1.5)	25.5	28.2 (+2.7)	29.7 (+4.2)	32.2 (+6.7)

주 : 1) 연간매출액 25억원이상인 제조업체의 2005년중 수익·비용구조 전제시

2) ()내는 이자보상비율 100%미만 전환업체 비중

그림 IV-6-1 2001년 및 2005년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분포 현황



한편 기업규모별로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26.1% 및 22.8%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금리변동시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업체 비중의 변동폭은 금리가 내릴 때 보다 금리가 오를 때 더 크게 나타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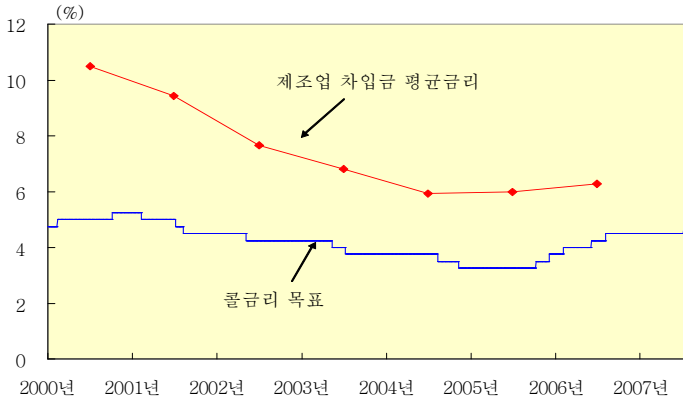
표 IV-6-5 금리변동폭별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업체 비중 추이

		(단위 : %, %p)						
금리 변동폭		-3%p	-2%p	-1%p	0%p	1%p	2%p	3%p
제 조 업	제 조 업	21.1 (-4.4)	22.5 (-3.0)	24.0 (-1.5)	25.5	28.2 (+2.7)	29.7 (+4.2)	32.2 (+6.7)
	대 기 업	17.4 (-5.3)	19.9 (-2.9)	21.2 (-1.6)	22.8	24.9 (+2.1)	25.8 (+3.0)	28.7 (+5.9)
	중 소 기 업	22.0 (-4.2)	23.1 (-3.1)	24.7 (-1.4)	26.1	29.0 (+2.8)	30.6 (+4.5)	33.0 (+6.9)

주 : ()내는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업체 비중 증감폭

<참고 1>

콜금리 목표 및 제조업 차입금 평균금리 추이



콜금리 목표 변경일

변경일	콜금리목표(%)	변경일	콜금리목표(%)
2000년 2월 10일	5.00	2004년 8월 12일	3.50
10월 5일	5.25	11월 11일	3.25
2001년 2월 8일	5.00	2005년 10월 11일	3.50
7월 5일	4.75	12월 8일	3.75
8월 9일	4.50	2006년 2월 9일	4.00
9월 19일	4.00	6월 8일	4.25
2002년 5월 7일	4.25	8월 10일	4.50
2003년 5월 13일	4.00	2007년 7월 12일	4.75
7월 10일	3.75	8월 9일	5.00

<참고 2>

2007년 1~9월중 금리상승이 기업수익성에 미친 영향 추정

2007년 1~9월중 대출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 상승(0.24%p)에 따른 제조업의 수익성(매출액세전순이익률) 하락폭은 0.05%p*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기업의 매출액대비 차입금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 것이며,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변동은 감안하지 않았음(참고로 2006년 전체 제조업 매출액대비 이자수입비용은 0.49%이며 매출액대비 이자비용비율은 1.21%임)

기업규모별 수익성 하락폭은 대기업(0.03%p)보다 중소기업(0.06%p)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7.1~9월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상승폭이 0.24%p로 대기업(0.15%p)보다 더 크고 「차입금/매출액」 비율도 중소기업(23.3%)이 대기업(17.1%)보다 더 높은 데 기인한다.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매출액세전순이익률 하락폭 추이
(단위:%, %p)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 금리*	7.34	6.88	6.63	6.33	6.59	6.83
(대기업)	(7.27)	(6.77)	(6.41)	(5.84)	(6.00)	(6.15)
(중소기업)	(7.35)	(6.90)	(6.66)	(6.40)	(6.67)	(6.91)
금리변동폭 (전년비,%p, A)	-0.61	-0.46	-0.25	-0.30	+0.26	+0.24
(대기업)	(-0.66)	(-0.50)	(-0.36)	(-0.57)	(+0.16)	(+0.15)
(중소기업)	(-0.60)	(-0.45)	(-0.24)	(-0.26)	(+0.26)	(+0.24)
차입금/매출액(B)	33.8	27.4	22.2	19.5	19.4	2006년
(대기업)	(38.0)	(27.3)	(20.4)	(17.7)	(17.1)	비율
(중소기업)	(26.4)	(27.6)	(25.3)	(22.5)	(23.3)	적용
수익성 변동폭 (A×B, %p)	+0.21	+0.13	+0.06	+0.06	-0.05	-0.05
(대기업)	(+0.25)	(+0.14)	(+0.07)	(+0.10)	(-0.03)	(-0.03)
(중소기업)	(+0.16)	(+0.12)	(+0.06)	(+0.06)	(-0.06)	(-0.06)

* 기간중 평균

7. 유가 및 환율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최근 원화 환율이 계속 절상되는 반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의 국제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환율과 유가의 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추정해 볼 수 있다면 기업의 경영정책, 정부의 경제정책, 투자자의 의사결정 등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 환율변동효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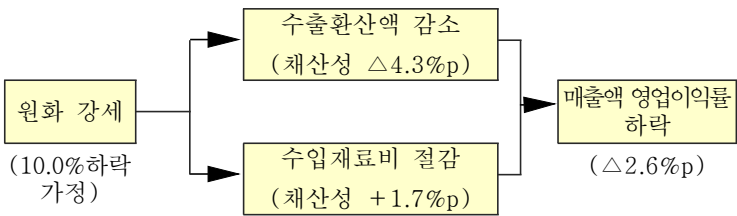
원화환율이 하락하면 원화표시 수출액의 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되지만 수입원자재 원화환산액 감소에 따른 제조원가의 절감을 통해 채산성이 개선되는 면도 있다. 그러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가격전가효과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원화절상은 수출액에서 수입원자재가 차감된 순수출 비중만큼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5년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원화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익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추정해 보면 원화표시 수출액의 감소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3%p 하락하지만 원화표시 수입재료비의 감소 효과로 1.7%p 상쇄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원화절상폭 10%에 순수출비중 0.26을 곱한 2.6%p만큼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7-1 환율하락이 제조업 재산성에 미치는 영향
(2005년 기준)

(단위 : %)

■ 수출액/매출액(A)	0.434
■ 매출액 대비 수입재료비 비중(B=C×D)	0.174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C)	0.578
재료비중 수입재료비 비중(D)	0.302
(2000년 산업연관표 수입중간재투입비중 기준)	
■ 순수출 비중(A - B)	0.26



나. 유가변동효과 추정

원유가격의 상승은 1차적으로 석유제품의 가격에 반영된 다음 일정시차를 두고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 순차적으로 파급됨으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유가상승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가변동효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원유부문과 석유제품 부문으로 둘로 나누어 원유가격 상승분은 일정부분 석유제품¹⁹⁾ 가격에 전가되지만 석유제품가격 상승분은

19) 석유제품 생산자물가지수(PPI) 포괄 품목

① 원유정제유 : 휘발유, 제트유, 등유, 나프타, 경유, 방카A유, 방카B유, 방카C유

전가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유가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효과를 간략히 추정해 볼 수 있다.

원유부문 : (원유/재료비)×(유가상승률-석유제품PPI상승률)

석유제품부문 : (석유제품/재료비)×석유제품PPI상승률

이와 같이 원유부문과 석유제품부문을 달리 측정하는 이유는 시장 지배력이 강한 정유회사는 원유가격 상승분을 석유제품가격에 일정부분 전가하여 수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반면 비정유회사는 시장지배력이 약해 전가하지 못하거나 전가하더라도 다양한 석유제품별 가격전가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방법을 이용해 2005년중 원유가격 상승이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원유수입물가(31.4%) 및 석유제품생산자물가(12.0%)의 상승으로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약 1.1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석유가스 :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③ 윤활유 및 그리스 : 엔진오일, 기계유, 유압유, 선박유, 절삭유, 그리스

원유수입물가 및 석유제품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

(전년대비,%)

	2001	2002	2003	2004	2005
원유수입물가 (원화기준)	-1.6	1.6	8.1	20.6	31.4
석유제품PPI	6.0	1.7	10.4	12.8	12.0

표 IV-7-2 유가상승이 제조업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
(2005년 기준)

(단위 : %, %p)

■ 재료비/매출액(A)	0.578
— 재료비중 원유비중(B)	0.076
— 재료비중 석유제품 비중(C)	0.043
■ 2005년중 원화기준 원유수입물가상승률(D)	31.4%
— 2005년중 석유제품PPI 상승률(E)	12.0%
■ 정유사 부문이 채산성에 미친 영향(F) $F = A \times B \times (D - E)$	0.852%p
■ 비정유 제조업이 채산성에 미친 영향(G) $G = A \times C \times E$	0.298%p
■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폭(F+G)	1.15%p

<참고>

환율·유가·금리변동이 기업수익성에 미친 영향

2007.1~9월중 환율하락(-2.44%), 유가상승(0.07%) 및 금리상승(0.24%p)이 제조업 수익성 하락에 미친 총 효과는 0.71%p로 추정*되며, 이중 환율요인이 93%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유가의 경우 2007.1~9월중 가격수준이 전년평균과 거의 비슷하여 기업 수익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최근 10월 이후 가파른 유가상승 및 환율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연간 전체로 기업 수익성 악화폭은 확대될 전망

구분	산출 내역	수익성*변동 효과(%p)	요인별 비중(%)
환율	■ 환율변동률(%) : -2.44 - 수출환산액 변동(%p) : -1.07 - 수입재료비 변동(%p) : +0.41	-0.66	(93.0)
유가	■ 정유사 채산성변동(%p) - 원화기준 원유수입물가지수 변동(%) : 0.07 - 원유/매출액 비중(%) : 0.0356 ■ 비정유 제조업체 채산성변동(%p) - 석유제품 생산자물가지수 변동(%) : 0.72 - 석유제품/매출액 비중(%) : 0.0257	0.02 ┌───┐ │ 0.00 │ -0.02 └───┘	(—)
금리	■ 금리변동폭(%p) : 0.24 ■ 차입금/매출액(%) : 0.194	-0.05	(7.0)
	총 수익성 변동효과	-0.71	(100.0)

* 매출액영업이익률(단, 금리변동에 의한 수익성 반영지표는 매출액세전순이익률임)

8. 주요 업종별 국내외 대표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해외유수기업간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음식료, 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등 6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2005년중 매출액기준 국내외 상위 3대기업을 선정하여 최근 3개년(2003년, 2004년, 2005년)간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였다. 세계 주요기업은 Fortune Global 500²⁰⁾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매출액 상위 3대기업을 선정(2004년 및 2005년 실적기준)하였으며 기업별 재무제표는 주요 선진국에서 투자 자회사의 실적까지 합친 연결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²¹⁾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연결대상에서 금융회사는 제외하였다.

가. 재무구조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부채비율은 99.5%로 세계 주요기업의 182.3%보다 82.8%p나 낮고, 자기자본비율은 50.1%로 세계 주요기업(35.4%)보다 14.7%p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2년 동안 부채비율의 하락폭은 세계 주요기업(-38.5%p)이 국내 대표기업(-24.9%p)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유동비율은 124.2%로 세계 주요기업(99.7%)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2년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대표기업들이 투자확대보다는 현금보유비

20) 업체별 순위는 매출액 규모로 평가되며 2006년 4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중 삼성전자(46위), LG전자(72위), 현대자동차(82위), SK(111위), 삼성생명(224위), 포스코(236위), 한전(240위), 국민은행(364위), 한화(381위), KT(397위), 삼성물산(445위), SK네트웍스(467위) 등 12개업체가 500대 기업에 포함

21) 국내기업은 원화기준, 해외기업은 미달러화기준의 재무제표를 활용

중을 더 늘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정비율도 2005년말 현재 국내 대표기업이 116.8%²²⁾로 세계 주요 기업의 188.1%보다 71.3%p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환위기후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기업들이 차입금에 의존한 투자를 기피하고 자기자본범위내에서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총차입금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세계 주요기업은 30%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국내 대표기업은 50%를 상회하여 차입금 만기구조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비교대상이 되는 모든 업종에 걸쳐 국내 대표기업의 부채비율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특히 철강 및 전기전자업종에 속한 국내 대표기업의 부채비율이 각각 57.4%, 79.6%로 100%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계 주요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철강업종이 133.9%로 100%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 IV-8-1 국내외 대표기업간 재무구조 관련지표 비교¹⁾

(단위 : %)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부 채 비 율 ²⁾	124.4	111.4	99.5	220.8	192.8	182.3
자 기 자 본 비 율 ³⁾	44.6	47.3	50.1	30.9	34.2	35.4
유 동 비 율 ⁴⁾	107.1	117.8	124.2	101.4	102.5	99.7
고 정 비 율 ⁵⁾	136.6	123.0	116.8	215.6	191.8	188.1
유동부채/총부채	65.9	67.4	66.9	49.0	51.1	51.9
단기차입금/총차입금	54.1	55.0	53.1	28.8	28.7	30.0

주 : 1) 분석대상기업 전체(또는 업종별 평균)의 경영지표는 지표 구성항목별로 해당기업의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이하 동일)

2)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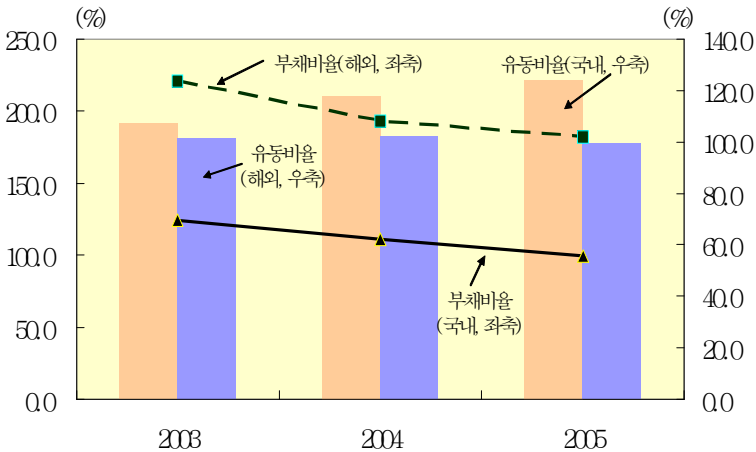
3)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4)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5) 고정비율 = 고정자산/자기자본

22) 고정비율 116.8%는 고정자산 투자에 타인자본을 14%정도만을 의존한다는 의미

그림 IV-8-1 국내외 대표기업간 재무구조 관련지표 비교



나. 수익성

2005년중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9.5%로 세계 주요기업(7.5%)에 비해 2.0%p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국내외 대표기업 모두 2004년에 비해 2005년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 대표기업의 수익성 하락폭이 세계 주요기업을 상회함으로써 국내외 대표기업간의 수익성 격차는 축소되었다.

한편 2005년 국내 대표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자비용/매출액)은 1.0%로 세계 주요기업(1.2%)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비용부담률은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국내외 대표기업 모두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차입금을 감축하여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된 국내 대표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표 IV-8-2 국내외 대표기업간 재무구조 관련지표 비교(업종별)

(단위 : %)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자동차	부채비율	162.9	168.6	165.2	272.7	261.4	292.7
	유동비율	106.2	113.8	109.3	84.4	79.6	77.6
	고정비율	149.3	143.5	139.4	221.2	217.8	244.0
전기전자	부채비율	101.2	86.7	79.6	238.3	212.9	204.8
	유동비율	112.9	123.5	125.3	125.7	125.5	122.8
	고정비율	104.6	99.0	101.9	171.4	156.9	154.9
통신	부채비율	176.7	156.5	116.3	191.7	152.0	141.8
	유동비율	82.1	95.0	131.5	84.1	93.6	81.9
	고정비율	214.8	186.7	157.1	251.7	209.3	205.4
음식료	부채비율	109.7	89.2	105.2	188.4	163.2	142.2
	유동비율	96.7	92.7	117.8	101.2	103.7	102.2
	고정비율	133.7	127.6	125.8	183.2	172.1	156.0
화학	부채비율	174.4	150.3	135.1	170.6	183.7	160.1
	유동비율	87.1	101.2	112.6	182.2	171.9	175.4
	고정비율	187.5	156.8	132.3	170.0	157.9	151.5
철강	부채비율	76.3	68.0	57.4	281.1	198.4	133.9
	유동비율	134.6	151.8	163.8	103.0	110.0	127.8
	고정비율	113.4	96.5	91.0	240.6	180.9	1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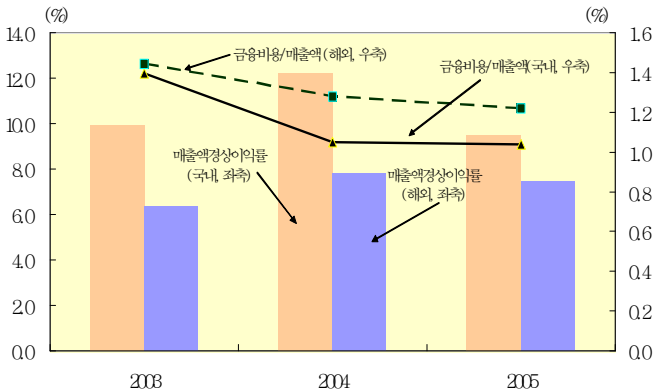
업종별로 보면 음료료와 석유화학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국내 대표기업들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세계 주요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내수의존도가 높은 음료료업종²³⁾은 다국적 기업인 세계 주요기업에 비해 최근 3년간 수익성이 크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3 국내외 대표기업간 수익성 관련지표 비교

(단위 : %)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매출액영업이익률	11.3	12.1	9.5	7.0	8.1	7.5
매출액경상이익률	9.9	12.2	9.5	6.4	7.8	7.5
총자산경상이익률	—	14.7	10.9	—	6.4	6.4
이 자 보 상 비 율	812.6	1153.5	920.8	487.9	634.4	611.8
금융비용/매출액	1.4	1.1	1.0	1.4	1.3	1.2

그림 IV-8-2 국내외 대표기업간 수익성 관련지표 비교



23) 국내 대표기업의 내수의존도(2005년)는 93.1%

표 IV-8-4 국내외 대표기업간 수익성 관련지표 비교(업종별)

(단위 : %)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자동차	매출액경상이익률	7.6	6.8	5.8	3.3	3.0	0.0
	총자산경상이익률	—	8.0	6.9	—	3.4	0.0
	이 자 보 상 비 율	687.3	567.0	462.8	540.0	456.4	1.3
전기전자	매출액경상이익률	9.2	13.0	7.8	6.8	6.9	7.0
	총자산경상이익률	—	20.1	10.5	—	6.1	6.2
	이 자 보 상 비 율	1626.8	2913.0	1353.5	1242.0	1605.3	1411.5
통신	매출액경상이익률	15.6	13.5	14.6	10.7	13.6	13.5
	총자산경상이익률	—	9.6	10.5	—	6.4	6.6
	이 자 보 상 비 율	428.1	464.4	568.0	384.3	447.2	573.3
음식료	매출액경상이익률	8.5	7.6	8.1	11.6	12.3	14.1
	총자산경상이익률	—	8.6	7.7	—	11.8	13.7
	이 자 보 상 비 율	1067.9	647.5	720.5	735.9	900.8	1026.4
화학	매출액경상이익률	8.4	11.4	7.9	1.8	9.2	12.4
	총자산경상이익률	—	14.1	11.6	—	7.7	11.9
	이 자 보 상 비 율	438.3	580.3	679.8	164.9	634.0	702.9
철강	매출액경상이익률	12.8	19.5	19.7	5.3	12.2	14.4
	총자산경상이익률	—	20.4	19.3	—	10.9	13.1
	이 자 보 상 비 율	907.4	1731.0	1931.6	558.1	1270.1	1761.2

다. 성 장 성

2005년중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5.8%로 세계 주요 기업(5.9%)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04년에 비해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화학²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내 대표기업의 성장성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8-5

국내외 대표기업간 매출액증가율 비교

(단위 : %)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¹⁾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14.7	24.1	5.8	4.3	4.2	5.9

주 : 1)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평균 매출액증가율(자국화폐기준)에 업종별 가중치(미달러화기준 매출액 비중)를 적용하여 산출

표 IV-8-6

국내외 대표기업간 매출액증가율 비교(업종별)

(단위 : %)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¹⁾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자 동 차	6.9	19.2	13.9	2.9	5.2	5.2
전 기 전 자	24.4	28.3	-0.7	1.2	2.4	2.3
통 신	1.9	8.0	1.8	1.9	2.1	2.9
음 식 료	-7.7	15.0	-2.3	-2.1	-1.6	7.2
화 학	13.5	32.1	37.4	5.7	5.7	15.6
철 강	22.3	34.9	7.3	38.7	15.7	11.3

주 : 1) 환율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업체별 증가율 단순평균

24) 자동차는 세계 대표기업중 GM의 부진에 따라 상대적 우위를 보인 것이며 화학업종은 호남석유화학이 종속기업을 신규 편입한 데 주로 기인

한편 국내 대표기업의 2005년중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²⁵⁾비중은 3.2%로 세계 주요기업의 3.4%를 다소 하회하고 있으나 매년 그 격차²⁶⁾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보면 통신업이 2.2%로 세계 주요기업(1.2%)보다 1.0%p 높게 나타났으나 화학(국내 1.3%, 세계 3.6%) 및 자동차(국내 1.8%, 세계 4.1%)업종은 국내 대표기업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8-7

국내외 대표기업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 비교

(단위 : %)

	국내 대표기업(A)			세계 주요기업(B)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음 식 료	0.8	0.8	0.7	1.5	1.8	1.8
화 학	1.6	1.5	1.3	4.9	4.0	3.6
철 강	0.9	0.9	0.8	1.0	0.9	0.8
전기전자	4.5	4.9	5.4	5.8	5.7	5.9
자 동 차	1.7	1.8	1.9	4.2	4.2	4.1
통 신	2.1	2.1	2.2	1.5	1.3	1.2
평 균	2.9	3.1	3.2	3.6	3.5	3.4

25)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상연구개발비

26) 2003년: 0.7%p, 2004년: 0.4%p, 2005년: 0.2%p

<참고>

국내외 업종별 분석대상업체 현황

	국내 대표기업 ¹⁾		세계 주요기업 ¹⁾	
	업체명	매출액 ²⁾ (백만달러)	업체명	매출액 ²⁾ (백만달러)
자동차 ³⁾	현대자동차	55,346	General Motors(미국)	158,221
	현대모비스	9,063	Toyota Motor Corp.(일본)	176,280
	GM대우	8,096	Daimler Crysler.(독일, 미국)	167,291
전기전자	삼성전자 ³⁾	76,378	IBM(미국)	91,134
	LG전자	43,391	Siemens(독일)	93,929
	삼성SDI	7,696	Hitachi(일본)	80,896
통신 ⁴⁾	KT	16,749	NTT(일본)	94,350
	SK텔레콤	10,467	Deutsche Telekom(독일)	74,207
	LG텔레콤	3,426	Verizon Communication(미국)	75,112
음식료	CJ	1,599	Nestle(스위스)	73,269
	농심	5,250	Unilever(네덜란드)	49,392
	롯데제과	1,146	Pepsi-Co(미국)	32,562
화학	LG화학	10,529	BASF Corp.(독일)	53,217
	호남석유화학	5,198	Dow Chemical(미국)	46,307
	SK케미칼	4,015	Bayer(독일)	34,092
철강	포스코	25,678	Arcelor(프랑스)	41,852
	현대제철	5,520	Nippon Steel Corp.(일본)	34,313
	동국제강	4,981	JFE Holdings Inc.(일본)	27,216

- 주 : 1) 국내 대표기업(6개업종 18개업체)은 2005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지배회사 및 업종별 대표도를 감안), 세계 주요기업은 Fortune Global 500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매출액 상위 3대기업을 선정
 2) 연결재무제표상 2005년 매출액을 미달러화로 환산(연평균환율 적용)
 3) 금융사업부문 제외
 4) LG텔레콤은 개별기업 재무제표 반영

9. 한·미·일 제조업의 경영성과 비교

가. 재무구조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00.9%로 미국의 136.5%, 일본의 136.1%(2005.3말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와 외환위기전 기간(1991~1997년)중 대부분 300%를 상회하여 100%대의 미국과 200%대의 일본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노력과 기업의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2002~05년중에는 11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표 IV-9-1

한·미·일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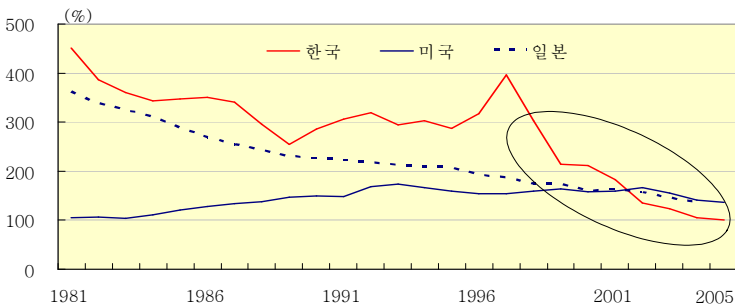
(단위 : %)

	81~90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341.6	317.6	227.6	116.0	135.4	123.4	104.2	100.9
미 국	124.0	160.5	160.1	150.0	167.3	154.8	141.2	136.5
일 본	284.7	206.5	167.4	145.9	156.2	145.4	136.1	..

자료 : 미국 상무부 「Quarterly Financial Report」, 일본 재무성 「재정금융통계월보」

그림 IV-9-1

한·미·일 부채비율 추이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은 116.0%로 미국(159.5%) 및 일본(2005.3말 121.1%)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222.8%) 및 외환위기 이전(228.0%)에는 고정비율이 미·일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으로 고정자산 비중은 감소한 반면 수익성위주의 경영으로 자기자본 비중은 확충되어 2002~2005년에는 평균 128.1%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13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1980년대 134.6%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 이후 경기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로 170% 내외를 유지하다 2002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표 IV-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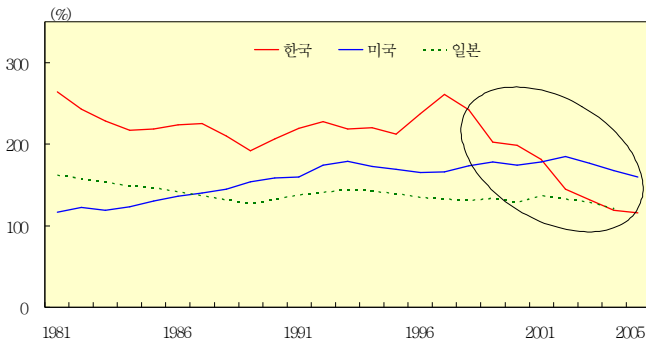
한·미·일 고정비율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222.8	228.0	206.2	128.1	145.1	132.2	118.9	116.0
미 국	134.6	169.5	175.8	172.0	184.5	176.5	167.4	159.5
일 본	143.9	138.9	132.5	127.6	133.2	128.4	121.1	..

그림 IV-9-2

한·미·일 고정비율 추이



나. 수익성

2005년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로 미국(6.5%)보다는 낮으나 일본(2004년중 4.5%)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2005년 평균으로는 6.8%로 미국(6.0%)을 상회하였다. 우리나라는 1981년 이후 평균적으로 일본보다는 3.0%p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 비해서도 외환위기후의 구조조정기간(1998~2001년)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은 1994년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호황으로 7%대의 높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에는 9.11테러 영향으로 4.4%로 낮아졌으며 2004 및 2005년에는 각각 6.6%, 6.5%를 기록하였다.

2005년중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미국이 9.6%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6.5%), 일본(2004년 4.8%)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96년 이후 9.11테러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 불황시기였던 2001~2003년을 제외하고는 8~9%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은 81년 이후 3% 내외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여 온 가운데 2005년에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4.8%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81년 이후 7%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유지하였음에도 금리 등 영업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상이익률이 2001년까지 4%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2년 이후 금리하락 및 차입금 감소 등으로 금융비용이 크게 경감됨으로써 매출액경상이익률이 급속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V-9-3

한·미·일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7.2	7.3	6.4	6.8	6.7	6.9	7.6	6.1
미 국	6.3	6.6	6.8	6.0	5.5	5.3	6.6	6.5
일 본	4.3	3.3	3.0	3.9	3.2	3.9	4.5	..

그림 IV-9-3 한·미·일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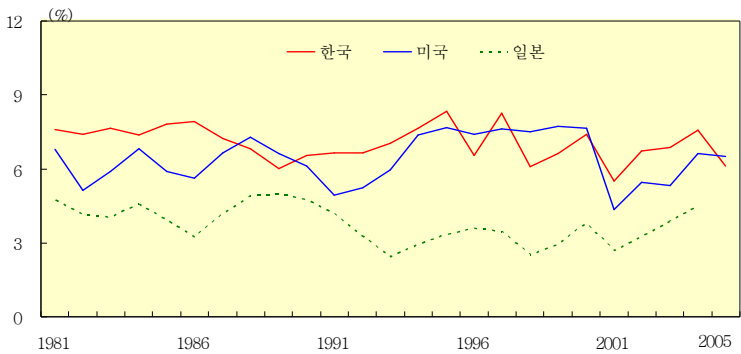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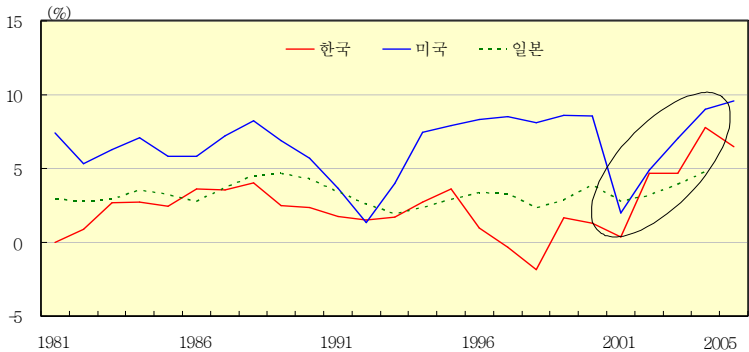


표 IV-9-4 한·미·일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2.5	1.7	0.4	5.9	4.7	4.7	7.8	6.5
미 국	6.6	5.9	6.8	7.6	4.9	7.0	9.0	9.6
일 본	3.5	2.8	3.0	4.0	3.2	3.9	4.8	..

그림 IV-9-4 한·미·일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2005년중 금융비용부담률(금융비용/매출액)은 각국의 금리수준²⁷⁾에 따라 일본이 0.5%(2004년)로 가장 낮은 가운데 한국(1.2%), 미국(1.6%)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80년대초 금융비용부담률이 3%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세²⁸⁾를 보여 1%이하로 하락하였으며 미국의 금융비용부담률은 2%내외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금융비용부담률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큰 폭 하락하여 미국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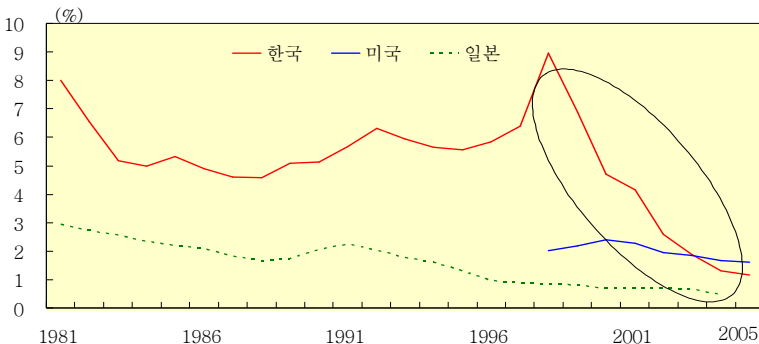
한·미·일 금융비용부담률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5.3	5.9	5.6	1.6	2.6	1.9	1.3	1.2
미	국	2.2	1.7	2.0	1.8	1.7	1.6
일	본	2.1	1.4	0.7	0.6	0.7	0.7	0.5	..

그림 IV-9-5

한·미·일 금융비용부담률 추이



27) 2005년중 시장금리(국채 3년물 기준)는 일본 0.4%, 한국 4.3%, 미국 4.4%

28) 일본은 1990년대의 지속된 불황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 2월에는 공식적으로 제로금리 정책을 선언

2005년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금리수준이 크게 낮은 일본이 954.7%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525.4%), 미국(401.5%)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200% 내외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은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5년중 401.5%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는 평균 100%대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2002년 이후에는 평균 400%대로 급속히 개선되었다.

표 IV-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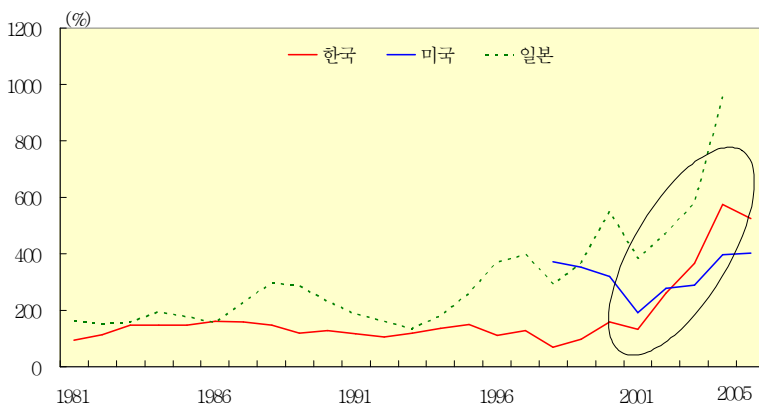
한·미·일 이자보상비율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136.3	123.9	113.5	432.1	260.3	367.1	575.8	525.4
미 국	308.9	341.4	278.9	288.2	397.1	401.5
일 본	203.8	241.2	398.2	668.6	472.8	578.2	954.7	..

그림 IV-9-6

한·미·일 이자보상비율 추이



다. 성장성

2005년중 매출액증가율은 미국이 1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일본(2004년 6.4%), 한국(5.1%)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중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출액증가율이 낮은 것은 원화환율하락으로 원화기준 수출액이 소폭의 증가에 그친 데 기인하였다. 한편 1981년 이후 우리나라의 매출액증가율은 1989년과 2005년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매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격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V-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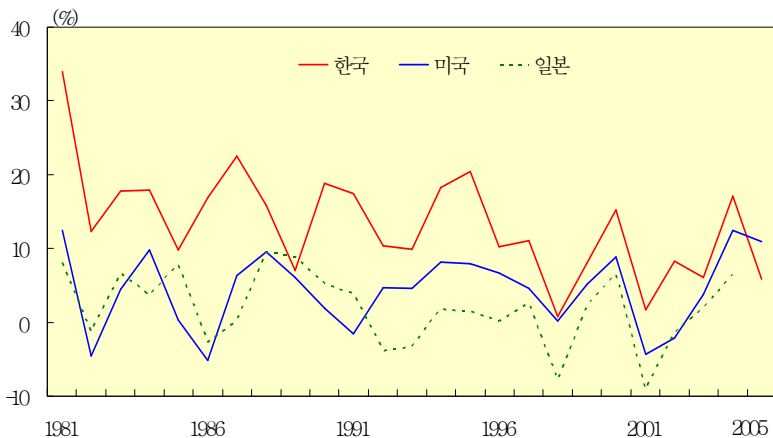
한·미·일 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17.3	13.9	6.4	9.3	8.3	6.1	17.1	5.9
미	국	4.1	5.0	2.5	6.3	-2.1	3.8	12.5	10.9
일	본	4.6	0.4	-2.0	2.3	-1.4	2.0	6.4	..

그림 IV-9-7

한·미·일 매출액증가율 추이



2005년중 유형자산증가율은 우리나라가 6.2%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미국(2.5%), 일본(2004년 -0.2%)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중(1991~97년)에는 각각 연평균 18.1%, 15.6%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기간중(1998~2001년)에 4.5%로 낮아졌다가 2003년 이후 3년 연속 유형자산증가율의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2002~2005년중 유형자산증가율이 연평균 각각 -0.4%, -2.4%를 기록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표 IV-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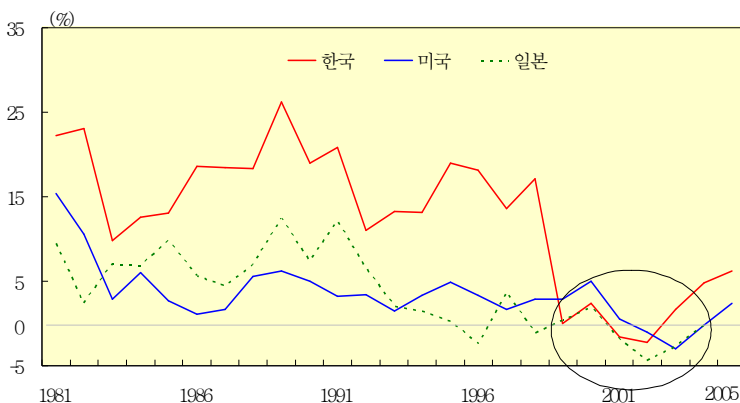
한·미·일 유형자산증가율 추이

(단위 : %)

	81~90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18.1	15.6	4.5	2.6	-2.2	1.7	4.8	6.2
미 국	5.7	3.1	2.8	-0.4	-1.0	-3.0	-0.2	2.5
일 본	7.2	3.4	-0.2	-2.4	-4.3	-2.7	-0.2	..

그림 IV-9-8

한·미·일 유형자산증가율 추이



라. 한·미·일 기업경영성과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차입경영에 의한 외형성장보다는 자기자본범위내에서 수익성위주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임으로써 부채비율²⁹⁾이 100% 수준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한편 유형자산증가율도 급격히 하락하였다. 일본 및 미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져 140%이하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 유형자산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금융비용은 국내외의 금리하락 및 차입금 감축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외환위기 직후(1998~2001)까지 5%대를 유지하던 금융비용부담률이 최근 4개년(2002~2005년)중에는 1.6%까지 하락하여 금융비용의 경상이익에 대한 영향력(금융비용부담률/매출액경상이익률)이 27.1%로 낮아졌다. 한편 일본도 1980년대 평균 2.1%이던 금융비용부담률이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1%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미국도 저금리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금융비용부담률이 하락하였다.

표 IV-9-9

한·미·일 매출액경상이익률 및 금융비용부담률 추이

(단위 : %)

	매출액경상이익률				금융비용부담률				금융비용부담률/ 매출액경상이익률			
	81~90	91~97	98~01	02~05	81~90	91~97	98~01	02~05	81~90	91~97	98~01	02~05
한국	2.5	1.7	0.4	5.9	5.3	5.9	5.6	1.6	212.0	347.1	1400.0	27.1
미국	6.6	5.9	6.8	7.6	2.2	1.7	32.4	22.4
일본	3.5	2.8	3.0	4.0	2.1	1.4	0.7	0.6	60.0	50.0	23.3	15.0

29) 상장 및 등록기업(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06.6말 80.4%(2005년말 80.5%)까지 하락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가 외환위기 직후 축소되었으나 2002년부터 다시 확대되는 모습³⁰⁾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도 동 격차가 2002년부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각국의 상위 3대 주력업종에 전기전자 및 화학제품업종이 공통으로 포함된 가운데 주력업종들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가 높아짐으로써 업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3개 주력업종이 제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1993~1997)에는 35.5%였으나 외환위기 이후(2002~2005)에는 44.5%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제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근접하였다.

표 IV-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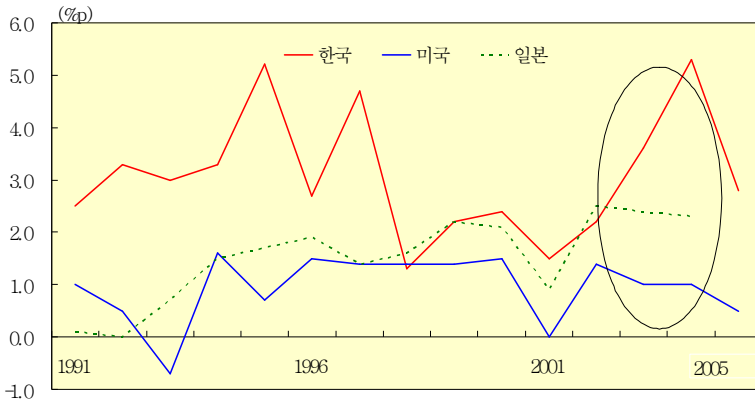
한·미·일 대기업-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p)

		91~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대 기 업 (a)	8.3	7.0	8.1	7.5	8.2	9.4	7.2
	중소기업(b)	4.8	5.2	4.6	5.3	4.6	4.1	4.4
	a - b (% p)	3.5	1.9	3.5	2.2	3.6	5.3	2.8
미 국	대 기 업 (c)	6.7	7.0	6.1	5.6	5.4	6.7	6.5
	중소기업(d)	5.9	5.9	5.1	4.2	4.4	5.7	6.0
	c - d (% p)	0.9	1.1	1.0	1.4	1.0	1.0	0.5
일 본	대 기 업 (e)	3.7	3.6	4.6	4.0	4.6	5.2	..
	중소기업(f)	2.6	1.9	2.2	1.5	2.2	2.9	..
	e - f (% p)	1.0	1.7	2.4	2.5	2.4	2.3	..

30) 2005년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축소는 환율하락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 주로 기인

그림 IV-9-9 한·미·일 대기업·중소기업간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 추이



미국도 1990년대 중반까지 33.4%이던 제조업 3대주력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2002~05년중에는 평균 41.1%로 높아졌으며 일본도 43.5%의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일 모두 매출액 점유율 하위 3개업종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다.

표 IV-9-11

제조업 주력업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점유율 추이

(단위 : %)

		93~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한 국 ¹⁾	35.5	39.1	44.5	43.6	44.5	45.7	44.5
	미 국 ²⁾	33.4	35.7	41.1	38.9	40.1	41.7	43.6
	일 본 ³⁾	40.9	43.9	43.5	42.8	43.9	43.9	..
영업이익	한 국 ¹⁾	44.4	39.1	49.8	47.4	50.4	54.0	47.2
	미 국 ²⁾	42.8	40.5	42.8	35.8	44.1	43.8	46.9
	일 본 ³⁾	35.4	38.6	37.3	37.9	39.6	34.5	..

주 : 1) 전기전자, 자동차(부품포함), 화학제품업종

2) 1993~2001: 전기전자, 화학제품, 음식료품

2002~2005: 전기전자, 화학제품, 석유제품

3) 전기전자, 자동차(부품포함), 음식료품

표 IV-9-12

제조업 하위 3개업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점유율 추이
(단위 : %, %p)

	매 출 액			영 업 이 익		
	93~97	98~01	02~05	93~97	98~01	02~05
한 국 ¹⁾	3.4	2.7	2.4	1.9	2.4	1.5
미 국 ²⁾	5.0	4.6	3.7	5.3	4.0	3.8
일 본 ³⁾	5.4	4.6	3.6	6.2	1.3	2.0

주 : 1) 가죽·신발, 목재·나무제품, 정밀기기
2) 1993-1997:가구, 목재·나무제품, 비금속광물 1998-01:가구, 목재·나무제품, 방직업
2002-2005:가구, 방직업, 인쇄출판
3) 1993-1997:목재·나무제품, 조선, 정밀기기 1997-2004:목재·나무제품, 조선, 섬유제품

<참고>

한·미·일 제조업 주요업종별 경영성과

1993년 이후 각국의 주요업종(제조업)*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3개 업종에 불과한 데 반해 미국은 6개 업종에 달함으로써 미국이 한국 및 일본에 비해 업종별 경쟁력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93년 이후 제조업내 매출액 구성비가 10%를 상회한 기록이 있는 업종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음식료품업종의 비중이 꾸준히 1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대표 업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업 주요업종의 매출액구성비 추이

(단위 : %)

		93~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국	전기 전자	14.4	18.1	20.1	18.9	20.3	21.3	20.0
	자동차 등	11.6	11.4	13.9	14.2	13.7	13.5	14.3
	화학제품	9.5	9.6	10.5	10.5	10.5	10.9	10.2
	합 계	35.5	39.1	44.5	43.6	44.5	45.7	44.5
미국	전기 전자	9.3	12.8	14.3	14.8	14.1	14.6	13.5
	자동차 등	8.9	10.6	12.0	13.0	12.6	11.6	10.9
	화학제품	11.0	11.4	12.0	12.6	12.5	11.6	11.5
	석유제품	8.4	8.4	14.8	11.5	13.5	15.5	18.6
	음식료품	13.1	11.5	11.0	10.8	11.5	11.2	10.6
	기 계	10.5	9.7	5.8	6.0	5.8	5.6	5.8
	합 계	65.6	68.4	74.4	73.3	74.4	74.6	75.4
일본	전기 전자	18.2	20.4	18.7	18.1	18.2	19.9	..
	자동차 등	11.7	11.7	13.6	12.9	14.8	13.0	..
	음식료품	11.0	11.8	11.2	11.8	10.9	11.0	..
	합 계	40.9	43.9	43.5	42.8	43.9	43.9	..

각국별 제조업 주요업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02~2005년중 한국은 제조업평균을 하회하는 업종이 3개중 1개업종(자동차 및 부품), 미국은 6개중 3개업종(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일본은 3개중 2개업종(전기전자, 음식료품)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주요업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93~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국	전 기 전 자	12.4	8.9	8.9	7.9	8.6	11.5	7.5
	자 동 차 등	5.5	1.7	4.9	5.2	6.2	4.6	3.8
	화 학 제 품	9.7	8.9	8.4	8.8	7.7	9.0	8.0
	제조업평균	7.6	6.4	6.8	6.7	6.9	7.6	6.1
미국	전 기 전 자	9.0	5.5	4.2	1.6	3.4	5.7	6.0
	자 동 차 등	3.4	2.6	-0.6	-0.1	-0.6	0.9	-2.7
	화 학 제 품	10.5	9.4	9.4	10.9	10.5	7.9	8.4
	석 유 제 품	6.1	6.5	5.4	3.1	4.0	7.5	6.8
	음 식 료 품	8.4	9.4	9.3	10.9	8.9	8.7	8.7
	기 계	4.1	5.3	6.0	5.2	4.9	6.6	7.3
	제조업평균	7.2	6.8	6.0	5.5	5.3	6.6	6.5
일본	전 기 전 자	2.7	1.9	2.5	1.5	2.8	3.2	..
	자 동 차 등	2.6	3.3	4.6	4.8	4.6	4.4	..
	음 식 료 품	2.9	3.1	3.1	2.8	3.3	3.3	..
	제조업평균	3.2	3.0	3.9	3.2	3.9	4.5	

각국별 제조업 주요업종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주요업종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속히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1/3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미국과 일본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한국의 전기전자(67.2%) 및 화학제품(82.2%)의 2005년 부채비율은 100%를 크게 하회
- 한편 미국 및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전기전자업종(73.8%)을 제외한 모든 주요업종의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

제조업 주요업종의 부채비율 추이

(단위:%)

		93~97	98~01	02~05	2002	2003	2004	2005
한 국	전 기 전 자	268.0	172.2	83.3	93.9	101.6	70.4	67.2
	자 동 차 등	494.3	1320.5*	125.1	148.0	116.2	117.7	118.3
	화 학 제 품	252.1	161.6	103.1	133.6	102.9	93.6	82.2
	제조업평균	319.5	227.6	116.0	135.4	123.4	104.2	100.9
미 국	전 기 전 자	108.9	91.4	82.3	92.7	85.5	77.1	73.8
	자 동 차 등	323.3	289.6	340.0	343.3	322.0	319.4	375.4
	화 학 제 품	178.0	193.3	177.5	214.0	205.3	151.9	138.9
	석 유 제 품	133.4	115.9	104.5	110.9	92.4	108.2	106.4
	음 식 료 품	188.9	217.6	186.7	223.4	193.6	172.2	157.5
	기 계	137.1	147.3	158.0	169.0	152.4	158.9	151.9
	제조업평균	161.6	160.1	150.0	167.3	154.8	141.2	136.5
일 본	전 기 전 자	165.2	154.0	138.7	150.6	132.1	133.5	..
	자 동 차 등	139.9	118.6	111.6	115.1	115.2	104.4	..
	음 식 료 품	196.1	173.5	157.4	159.8	169.4	143.2	..
	제조업평균	201.6	167.4	145.9	156.2	145.4	136.1	..

*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자본잠식에 기인

10. 서비스산업의 경영분석지표 추이

가.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1980년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업(47.3% → 56.3%)의 부가 | 가치(명목)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 및 독일의 1980년 당시의 수준으로 크게 낮은 상태인 데다 1980년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의 상승폭도 9.0%p로 주요국의 12~13%p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주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이고 향후 그 비중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구조 등 기업경영분석 지표는 어떠한 추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표 IV-10-1

주요국의 서비스업 비중¹⁾ 비교

(단위 : %)

	한 국	일 본	독 일	미 국
1980 (A)	47.3 (24.4)	57.4	56.6	63.8
1990	49.5 (27.3)	59.4	60.9	73.8
1995	51.8 (27.6)	65.3	66.6	75.5
2000	54.4 (29.4)	67.5	69.1	76.9
2005 ²⁾ (B)	56.3 (28.4)	69.4	69.8	76.7
B - A (%p)	9.0 (4.0)	12.0	13.2	12.9

주 : 1) 명목부가가치 기준 2) 일본, 독일, 미국은 2004년 자료

3) ()내는 제조업 비중

자료 : OECD, 연간 국민계정(ANA)

나. 서비스산업의 경영분석지표 추이

(1) 성장성

서비스업 전체의 성장성을 매출액증가율(연평균)로 살펴보면, 외환위기전(1990~1997년) 18.3%에서 외환위기후(2002~2005년) 3.5%로 크게 하락하였다.

표 IV-10-2

서비스업¹⁾ 매출액 증가율 추이

(단위 : %)

	80~89	90~97(A)	98~01	02~05(B)	B - A(%p)
서비스업 전체	19.2	18.3	5.5	3.5	-14.8
도소매업	20.2	18.6	3.8	1.8	-16.8
도매 및 상품중개업	19.8	17.9	2.4	0.6	-17.3
소매업	20.8	17.7	17.0	6.8	-10.9
운수업	13.6	15.9	9.4	8.5	-7.4
육상운송업	14.4	10.9	5.1	5.9	-5.0
수상운송업	10.8	20.9	12.2	6.6	-14.3
항공운송업	16.5	17.1	8.6	7.6	-9.5
여행알선·창고·기타	10.9	13.7	10.0	16.1	2.4
통신업	—	18.8	13.5	4.4	-14.4
사업서비스업	30.6	24.8	8.8	7.1	-17.7
컴퓨터운용관련업	—	31.9	17.6	6.3	-25.6
오락문화·운동산업	15.9	17.9	9.6	11.9	-6.0

주 : 1) 현재 기업경영분석통계의 서비스업종은 금융보험업, 의료보건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점업, 정부서비스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하 동일)

업종별로 보면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13.7%→16.1%)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매출액증가율이 외환위기전에 비해 외환위기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도·소매업(18.6%→1.8%)의 경우는 중

합상사의 계열사 수출창구역할 축소, 수익인식기준 변경 등의 요인에 의해 매출액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그리고 사업서비스업(24.8%→7.1%)의 매출액증가율도 외환위기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컴퓨터운용관련업(31.9%→6.3%)의 영업부진에 주로 기인한다.

(2) 수익성

총자산경상이익률(연평균)을 통해 서비스업의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전 2%대에서 외환위기시에 0%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가 저금리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후 5.9% 수준으로 크게 호전되었다.

표 IV-10-3

서비스업의 총자산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

	80~89	90~97(A)	98~01	02~05(B)	B - A(p)
서비스업 전체	2.6	2.2	0.0	5.9	3.7
도소매업	2.7	1.5	-2.6	6.8	5.3
도매 및 상품중개업	2.6	1.8	-3.5	7.8	6.0
소매업	3.1	0.8	0.2	4.4	3.6
운수업	1.0	0.5	-0.0	4.3	3.8
육상운송업	4.8	0.4	2.9	2.9	2.5
수상운송업	-1.3	0.2	-0.8	7.9	7.7
항공운송업	1.5	-1.2	-1.7	2.0	3.2
여행알선·창고·기타	8.1	3.9	3.5	3.5	-0.4
통신업	-	7.3	4.5	7.5	0.2
사업서비스업	8.8	3.2	6.4	4.4	1.2
오락문화·운동산업	8.0	4.0	4.6	5.9	1.9

업종별로 2002~2005년중 총자산경상이익률을 비교해 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7.8%), 수상운송업(7.9%), 통신업(7.5%) 등이 서비스 산업내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도매 및 상품중개업(-3.5%→7.8%), 수상운송업(-0.8%→7.9%) 등은 외환위기시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외환위기후 흑자로 전환되었다.

(3) 재무구조

부채비율을 통해 서비스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전인 1995년 387.0%에서 2005년 139.9%로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표 IV-10-4

서비스업의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90	95(A)	98	02	05(B)	B-A(%p)
서비스업 전체	370.2	387.0	340.4	185.8	139.9	-247.1
도 소 매 업	448.6	543.7	400.1	216.2	145.7	-398.0
도매 및 상품중개업	371.1	474.9	395.8	247.8	139.0	-335.9
소 매 업	564.3	970.1	456.3	179.6	168.4	-801.7
운 수 업	701.9	576.3	491.5	262.2	195.9	-380.4
육 상 운 송 업	342.2	375.8	253.7	155.3	169.3	-206.5
수 상 운 송 업	5,403.5	838.9	771.7	569.0	185.6	-653.3
항 공 운 송 업	741.9	795.4	760.2	237.0	245.4	-550.0
여행알선·창고·기타	208.4	251.0	197.3	192.3	179.1	-71.9
통 신 업	162.6	157.0	184.5	175.6	104.9	-52.1
사 업 서 비 스 업	446.0	400.1	240.3	101.8	93.0	-307.1
오락문화 운동산업	272.7	140.3	165.4	175.4	128.7	-11.6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전에 비해 외환위기후 하락한 가운데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산업 등은 하락폭이 작은 데 반해, 도·소매업과 운수업의 하락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영분석지표 비교

최근 3년간(2002~2005년)의 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성장성, 수익성, 재무구조 등 모든 부문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열위를 보였다.

	2002~2005년 평균	
	서비스업	제조업
성 장 성 (매 출 액 증 가 율)	3.5%	9.3%
수 익 성 (총 자 산 경 상 이 익 률)	5.9%	6.9%
재 무 구 조 (부 채 비 율)	139.9%	100.9%

한편 외환위기전후 경영성과의 개선폭은 재무구조만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더 큰 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더 양호하고 성장성 하락폭도 제조업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전후 변동폭	
	서비스업	제조업
성 장 성 (매 출 액 증 가 율)	-14.8%p	-5.2%p
수 익 성 (총 자 산 경 상 이 익 률)	3.7%p	5.1%p
재 무 구 조 (부 채 비 율)	-247.1%p	-185.9%p

표 IV-10-5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영분석지표 비교

(단위 : %)

		80~89	90~97 (A)	98~01	02~05 (B)	B-A (%p)
매출액 증가율	서비스업	19.2	18.3	5.5	3.5	-14.8
	제조업	18.8	14.5	6.4	9.3	-5.2
총자산경상이익률	서비스업	2.6	2.2	0.0	5.9	3.7
	제조업	2.7	1.8	0.4	6.9	5.1
부채비율 ¹⁾	서비스업	477.2	387.0	225.3	139.9	-247.1
	제조업	487.9	286.8	210.6	100.9	-185.9

주 : 1) 1980년말, 1995년말, 2000년말, 2005년말 자료임

라. 한·일 서비스산업의 경영분석지표 비교

(1) 성장성

한·일 서비스산업의 매출액증가율(연평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198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양국 모두 서비스산업내 비중이 큰 도·소매업의 매출액증가율 하락이 서비스산업 전체의 성장성 악화를 주도하였다. 한편 한국과 달리 일본의 운수·통신업 및 사업서비스업은 2002년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락·문화·운동산업의 경우 심한 등락을 나타내었다.

표 IV-10-6 한·일 서비스산업의 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

	80~89	90~97	98~01	02~03
서 비 스 업	19.2 (6.8)	18.3 (1.4)	5.5 (-2.1)	1.7 (0.4)
도 소 매 업	20.2 (5.3)	18.6 (0.2)	3.8 (-2.8)	-0.5 (-1.7)
운 수 통 신 업	13.6 (8.5)	16.7 (3.5)	10.9 (0.9)	4.5 (3.0)
사 업 서 비 스 업	30.6 (16.1)	24.9 (9.2)	8.8 (0.6)	10.2 (3.7)
오락문화운동산업	15.9 (19.7)	17.9 (5.7)	9.6 (-11.2)	14.1 (17.9)

주 : ()내는 일본지표

(2) 수익성

한·일 서비스산업의 총자산경상이익률(연평균) 추이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익성이 일본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총자산경상이익률이 0% 수준까지 하락하여 일시적으로 일본(1.8%)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2002년 이후 한·일간의 수익성 격차는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총자산경상이익률(2002~2003년 평균)을 살펴보면, 사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도·소매업과 오락·문화·운동산업에서 한·일간의 수익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2002~2003년) 수익성이 가장 좋은 업종이 한국은 도·소매업(5.9%)인 데 반해 일본은 운수·통신업(3.5%)이었는데 그 수익성이 한국(4.4%)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표 IV-10-7 한·일 서비스산업의 총자산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

	80~89	90~97	98~01	02~03
서비스업	2.6 (2.3)	2.2 (1.5)	0.0 (1.8)	4.8 (2.4)
도소매업	2.9 (2.4)	1.6 (2.0)	-2.6 (1.8)	5.9 (2.3)
운수통신업	0.8 (2.4)	3.0 (1.9)	2.1 (2.1)	4.4 (3.5)
사업서비스업	8.8 (2.7)	3.8 (1.8)	6.4 (3.1)	1.9 (3.1)
오락문화운동산업	8.0 (3.7)	4.0 (1.7)	4.6 (1.2)	5.7 (1.8)

주 : ()내는 일본지표

(3) 재무구조

한·일 서비스산업의 부채비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외환위기 전 300%대에서 외환위기후 100%대로, 그리고 일본도 1995년말 730.1%에서 2003년말 359.8%로 각각 크게 하락하였는데 한국의 부채비율이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일본 서비스산업의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악화된 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부채비율(2003년 현재)을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재무구조면에서 한국이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는 한국이 사업서비스업(98.7%), 일본은 운수·통신업(263.1%)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는 한국이 운수·통신업(211.9%), 일본은 부동산·임대업(809.3%)으로 나타났다.

표 IV-10-8

한·일 서비스산업의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1980	1990	1995	2000	2003
서비스업 전체	477.2 (709.8)	367.6 (645.3)	387.0 (730.1)	225.3 (415.0)	170.1 (359.8)
도소매업	611.4 (713.4)	448.6 (600.3)	543.7 (524.4)	463.8 (420.4)	180.5 (336.3)
운수통신업	628.4 (563.7)	341.6 (310.3)	307.4 (358.6)	181.7 (277.0)	211.9 (263.1)
부동산임대업	208.7 (825.3)	261.3 (1,139.8)	218.4 (2,778.3)	100.0 (585.0)	138.2 (809.3)
사업서비스업	211.3 (702.7)	447.9 (1,096.8)	400.1 (1,056.3)	115.0 (550.5)	98.7 (332.7)
오락문화운동산업	300.4 (1,207.6)	272.7 (748.6)	140.3 (1,577.9)	143.7 (525.3)	144.5 (414.3)

주 : ()내는 일본지표

11.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변동추이

가.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의 보유비중 추이

우리기업(제조업)의 2006년 총자산대비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은 14.5%로 1990년 2.8%에서 11.7%p 상승하였는데 이는 비교기간 중 장기투자증권*의 증가율(20.1%)이 총자산증가율(10.5%)을 크게 상회한 데 기인하며 같은 기간중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만기보유증권(만기 1년초과 채무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관계 회사주식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구성

표 IV-11-1 우리기업(제조업)의 주요 자산항목 비중의 변동추이

(기말기준, %)

자 산 항 목	1990(A)	1998 ¹⁾	2006(B)	B-A(%p)	일본 ²⁾		미국	90~06 평균
유 동 자 산	45.3	37.8	41.8	-3.5	-8.3	-3.7		41.3
(현 금 예 금)	6.3	6.5	9.7	3.4	-4.1	3.4		7.2
고 정 자 산	54.7	62.2	58.2	3.5	8.3	3.7		58.7
투 자 자 산	13.4	18.2	18.2	4.8	10.3	18.13)		15.9
(장기투자증권)	2.8	9.2	14.5	11.7	9.6	..		7.9
유 형 자 산	41.1	43.6	38.6	-2.5	-2.8	-14.4		41.7
무 형 자 산	0.2	0.4	1.4	1.2	0.7	.. ³⁾		1.1
자 산 총 계	100.0	100.0	100.0	-	-	-		100.0
총 자산 증가율	23.8	3.5	8.1	-	-	-		10.5
유형자산증가율	19.0	17.2	6.0	-	-	-		9.3
장기투자증권증가율	26.3	51.9	20.8	-	-	-		20.1

주 : 1)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시

2) 1991년과 2005년 비교

3) 투자자산에 무형자산 포함

나. 기업 형태별 및 규모별 장기투자증권의 보유비중 추이

1990~2006년중 기업형태별 장기투자증권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14.6%p)과 수출기업(13.9%p)이 중소기업(7.3%p) 및 내수기업(10.3%p) 보다 장기투자증권비중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IV-11-2 기업형태별 장기투자증권 비중의 변동추이

(총자산대비, 기말기준, %)

	1990(A)	1998	2006(B)	B-A(%p)	90-06평균
제 조 업	2.8	9.2	14.5	11.7	7.9
└ 대 기 업	3.4	10.8	18.0	14.6	9.6
└ 중 소 기 업	0.4	3.2	7.7	7.3	3.4
└ 수 출 기 업	2.1	12.5	16.0	13.9	9.3
└ 내 수 기 업	3.0	6.4	13.3	10.3	7.0

주 : 수출기업은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

같은 비교기간중 장기투자증권 비중의 변동추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업종에 걸쳐 상승하였으며 특히 음식료·담배(2.9% → 17.8%), 석유·화학(3.7% → 17.1%), 전기전자(3.3% → 15.9%), 운송장비(1.8% → 14.2%), 금속제품(3.0% → 14.0%) 등은 상승폭이 10%p를 상회하였다.

표 IV-11-3 업종별 장기투자증권 비중의 변동추이

(총자산대비, 기말기준, %)

	1990(A)	1998	2006(B)	B-A(%p)	90-06평균
제 조 업	2.8	9.2	14.5	11.7	7.9
음 식 료 · 담 배	2.9	5.7	17.8	14.9	7.7
석 유 · 화 학	3.7	5.8	17.1	13.4	8.3
전 기 전 자	3.3	14.1	15.9	12.6	10.1
운 송 장 비	1.8	13.3	14.2	12.4	7.9
금 속 제 품	3.0	6.2	14.0	11.0	7.9
산 업 용 기 계	3.4	3.7	12.7	9.3	5.3
섬 유 · 의 복	1.5	7.2	9.8	8.3	5.8
비 금 속 광 물	3.9	10.9	11.0	7.1	7.5
가 구 및 기 타	0.6	6.0	7.5	6.9	3.6
목 재 · 종 이	2.2	4.2	7.6	5.4	4.5

주 : 수출기업은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

다. 장기투자증권 증가요인의 유형별 분석

(1)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참여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사 증자참여 과정에서 장기투자증권 보유가 증대하였다.

* 1998.3월 은행감독원은 금융권 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인 주거래 계열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99 ~ '01년 중 200% 이내로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

표 IV-11-4

유상증자 실적¹⁾

(단위 : 조원)

	93 ~ 97	98 ~ 01 ³⁾	02 ~ 06
유 가 증 권 시 장	20.2	57.8	22.2
코 스 닥 시 장	—	8.4	6.1
기 타 ²⁾	1.0	7.3	6.7
합 계	21.2	73.5	35.0

주 : 1) 공모기준

2) 비상장법인의 공모실적

3) 외환위기 직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 및 금융기관의 대규모 증자
자료 : 금융감독원

(2)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무역장벽을 극복하거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현지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로 장기투자증권 증가하였는데 기간별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살펴보면 '90 ~ '97년 중 22.7억달러, '98 ~ '01년중 46.1억달러, '02 ~ '06년중 62.2억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02~'06년 중 5대기업의 연도별 연결대상
종속 법인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2002	2003	2004	2005	2006
국 내	-10 ¹⁾	2	3	6	6
해 외	24	1	32	19	30
합 계	14	3	35	25	36

주 : 1) LG전자가 지주회사인 LGEI와 LG전자로 분하함에 따라 종속법인 수 감소

(3) 협력관계 유지 및 경영권 방어

동종업체간에 주식 상호보유를 통해 기술교류, 원료구매 등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받고 있는 업체가 원자재 공급 등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와 상호 지분투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 할 때 장기투자증권 보유가 증대할 수 있다.

* 증권거래법의 대량주식취득제한 조항 폐지효력이 '97년부터 발생됨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됨

**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취득보다는 관계사 또는 우호기업간 지분투자가 경영권 방어, 재무구조 개선, 배당금수익 등에서 유리

(4) 기업인수 또는 지주회사 전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타기업을 인수하거나 지주회사 전환* 등을 위해 기업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투자증권 보유가 늘어날 수 있다.

*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장려정책에 따라 '07.7월말 현재 지주회사수가 39개(금융지주회사 4개 포함)로 증가: 일반지주회사수가 '00년(7개)→'03년(18개)→'05년(21개)→'07.7월(35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5) 대기업 진입기피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내외법인 신설

대기업 진입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므로 이를 기피하기 위해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대신 계열 중소기업*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해외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려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대기업보다는 높지 않지만 중소기업(0.4%→7.7%)도 1990~2006년중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 조사대상업체중 연도별 지분법손익 발생업체 비중
'03년(20.9%)→'04년(21.0%)→'05년(25.5%)→'06년(27.5%)

(6) 유가증권 평가방식 변경

유가증권의 평가방식을 종전의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투자증권의 장부가격이 상승할 경우 장기투자증권 보유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표 IV-11-61 10대 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변동 추이 및 평가이익 추정

(단위 : 10억원)

	95~96 평균	97	98	99	00~02 평균	03	04~06 평균
잔액 변동(B/S)	389	2,497	3,085	6,654	1,046	1,911	5,837
(-)순취득(환출)	652	1,620	3,661	3,868	966	2,046	2,732
(+)처분손익(감액손실)	34	178	57	71	167	172	33
평가이익	-229	1,055	-519	2,857	247	37	3,138
종합주가지수(연말)	767.1	376.3	562.5	1,028.1	608.6	810.7	1,236.6

주 : 1) '06년 제조업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97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99년),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03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일원화

① 97 회계연도부터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방식을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평가차익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② 99 회계연도부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주식의 평가방식을 종전의 지분법 또는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단일화(지분법평가손익으로 인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격에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반영하여 평가

③ 2003 회계연도부터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의 평가방식을 원가법에서 공정가액법으로 변경

12. 연결재무제표로 본 기업경영성과

가. 5대기업³¹⁾의 연결대상 업체 현황

2006년말 현재 5대기업(제조업)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수(금융업종 제외)는 364개(국내 85개, 해외 279개)로 2001년(251개)에 비해 113개(+45.0%)업체가 증가하였다. 이중 국내 종속법인은 7개(+9.0%) 증가에 그친 반면 해외종속법인은 106개(+61.3%)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4년 및 2006년에는 30개 이상의 해외종속법인이 증가하였다.

표 IV-12-1 5대기업의 연도별 종속법인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국	내	-10*	2	3	6	6	7
해	외	24	1	32	19	30	106
합	계	14	3	35	25	36	113

* LG전자가 지주회사인 LGEI와 LG전자로 분할함에 따라 종속법인 수 감소

2006년말 현재 업체별 종속법인 보유수는 LG전자(97개), 삼성전자(80개), 현대자동차(72개), SK(71개), 포스코(5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해외종속법인은 LG전자가 91개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종속법인은 SK가 35개로 가장 많았다.

31) 제조업체중 2006년 매출 상위 5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

표 IV-12-2

연도별 연결대상 종속법인수 추이

(단위 : 개)

	2001말(A)			2006말(B)			B-A1)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삼성전자	10	56	66	10	70	80	0(0.0)	14(25.0)	14(21.2)
현대자동차	12	18	30	17	55	72	5(41.7)	37(205.6)	42(140.0)
포스코	12	19	31	17	33	50	5(41.7)	14(73.7)	19(61.3)
LG전자2)	15	57	72	6	91	97	-9(-60.0)	34(59.6)	25(34.7)
S K	29	23	52	35	30	65	6(20.7)	7(30.4)	13(25.0)
합 계	78	173	251	85	279	364	7(9.0)	106(61.3)	113(45.0)

주 : 1) ()내는 2001년대비 증가율(%)

2) LG전자는 2002년 지주회사인 LGEI와 LG전자로 분할됨에 따라 종속회사수가 크게 감소

표 IV-12-3

주요기업별 종속회사 현황(2006년말 현재)

(단위 : %)

지배 회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
국내 종속 회사 (85개)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리빙플라자 블루텍 에스엘씨디 삼성로지텍 등 10개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로템 현대오토넷 위아 현대파워텍 케피코 만도맵앤소프트 해비치리조트 차산골프장 아이아 해비치CC 등 17개	포스코 건설 포스틸 포스콘 포스데이터 포항강관 포철산기 포스코경영연구소 포스코특수강 포스기연 포스텍 포스코터미널 포스코파워 등 17개	L G 필 립 스 LCD LG이노텍 하이프라자 LG마이크론 Hi Business 등 6개	SK네트웍스 대한송유관 공사 SK인천정유 엔카네크워크 오케이캐쉬백 SK인천정유 SKC SKC미디어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SKC가스 등 35개
해외 종속 회사 (279개)	Samsung Austin Semiconductor 등 70개	Hyundai Motor America 등 55개	Posco Amrica Corporation 등 33개	LGEWA(영국) 등 91개	SK do Brasil 등 30개
합 계 (364개)	80개	72개	50개	97개	65개

나. 5대기업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비교

(1) 경영규모

(가) 매출액

2006년말 현재 5대기업의 연결매출액은 272.6조원으로 지배회사 매출액 153.2조원의 1.78배로 나타났다.³²⁾ 2002~2006년중 연결기준 평균매출액은 227.9조원으로 지배회사 평균매출액(153.2조원)의 약 1.69배로 나타났으며 기업별로는 국내종속법인이 많은 SK(2.51배)와 기아자동차 및 대규모 해외생산법인을 보유한 현대자동차(1.97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12-4

연도별 매출액¹⁾ 추이

(단위 :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02~06 평균
삼 성 전 자	53.5(39.8) <1.34>	59.7(43.6) <1.37>	78.9(57.6) <1.37>	78.2(57.5) <1.36>	83.2(59.0) <1.41>	70.7(51.5) <1.37>
현 대 자동차	46.5(24.6) <1.89>	44.4(25.0) <1.78>	51.1(27.5) <1.86>	56.7(27.4) <2.07>	61.1(27.3) <2.24>	52.0(26.4) <1.97>
포스코	14.4(11.7) <1.23>	17.8(14.4) <1.24>	24.0(19.8) <1.21>	26.3(21.7) <1.21>	25.8(20.0) <1.29>	21.7(17.5) <1.24>
L G 전 자	22.3(13.9) <1.60>	35.6(20.2) <1.76>	43.2(24.7) <1.75>	44.4(23.8) <1.87>	46.3(23.2) <2.00>	38.4(21.2) <1.81>
S K	42.3(13.4) <3.16>	38.7(13.8) <2.80>	40.9(17.4) <2.35>	48.0(21.9) <2.19>	56.1(23.7) <2.37>	45.2(18.0) <2.51>
합 계	178.8(103.4) <1.73>	196.1(116.9) <1.68>	238.1(147.0) <1.62>	253.7(152.2) <1.67>	272.6(153.2) <1.78>	227.9(134.5) <1.69>

주 : 1) 연결기준, ()내는 지배회사 매출액

2) < >내는 연결기준매출액/지배회사매출액(배)

32) 5대기업의 매출액이 2006년 제조업 전체 매출액(895.2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

(나) 총자산

2006년말 현재 5대기업의 연결자산은 235.3조원으로 지배회사 자산 143.4조원의 1.64배로 나타났다. 2002~2006년중 연결기준 평균자산은 194.6조원으로 지배회사 평균자산(119.6조원)의 약 1.63배로 나타났다며 기업별로는 SK(2.47배)와 LG전자(2.27배), 현대자동차(1.90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06년말 현재 지배회사의 총자산은 삼성전자(57.8조), 현대자동차(26.4조), 포스코(26.4조), SK(19.6조), LG전자(13.2조) 순이나, 연결기준으로는 삼성전자(71.0조), 현대자동차(54.6조), SK(45.4조), LG전자(33.3조), 포스코(30.9조)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5

연도별 총자산¹⁾ 추이

(단위 :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02~06 평균
삼성전자	42.2(34.4) <1.23>	48.3(39.2) <1.23>	54.8(43.8) <1.25>	62.3(50.5) <1.23>	71.0(57.8) <1.23>	55.7(45.1) <1.24>
현대자동차	36.0(20.9) <1.72>	43.8(23.9) <1.83>	46.7(24.4) <1.91>	51.6(26.7) <1.93>	54.6(26.4) <2.07>	46.5(24.5) <1.90>
포 스 코	19.0(17.2) <1.10>	20.7(18.4) <1.13>	24.1(21.4) <1.13>	27.5(24.2) <1.14>	30.9(26.4) <1.17>	24.4(21.5) <1.13>
L G 전 자	20.1(10.1) <1.99>	24.1(11.3) <2.13>	29.9(13.2) <2.27>	33.1(14.0) <2.36>	33.3(13.2) <2.52>	28.1(12.4) <2.27>
S K	37.5(13.5) <2.78>	37.4(15.0) <2.49>	37.3(14.9) <2.50>	41.6(17.5) <2.38>	45.4(19.6) <2.32>	39.8(16.1) <2.47>
합 계	154.9(96.2) <1.61>	174.2(107.8) <1.62>	192.7(117.7) <1.64>	216.1(133.0) <1.62>	235.3(143.4) <1.64>	194.6(119.6) <1.63>

주 : 1) 연결기준, ()내는 지배회사 총자산

2) < >내는 연결기준자산/지배회사자산(배)

(다) 자기자본

2006년말 현재 5대기업의 연결자기자본은 118.1조원으로 지배회사 자기자본 97.3조원의 1.21배로 나타났다. 2002~2006년중 연결기준 평균자기자본은 90.7조원으로 지배회사 평균자기자본(75.7조원)의 약 1.20배로 나타났으며 기업별로는 SK (2.00배), LG전자(1.67배), 현대자동차(1.28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말 현재 자기자본규모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 LG전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배회사자기자본과 연결기준자기자본이 매출액이나 총자산과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의 상계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표 IV-12-6

연도별 자기자본¹⁾ 추이

(단위 :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02~06 평균
삼성전자	24.5(24.3) <1.01>	29.7(29.4) <1.01>	35.7(34.4) <1.04>	40.9(39.7) <1.03>	47.1(45.3) <1.04>	35.6(34.6) <1.03>
현대자동차	13.1(10.5) <1.25>	16.4(12.1) <1.36>	17.2(13.1) <1.31>	19.2(15.1) <1.27>	20.1(16.1) <1.25>	17.2(13.4) <1.28>
포 스 코	11.6(11.3) <1.03>	13.2(13.0) <1.02>	16.4(16.1) <1.02>	19.9(19.5) <1.02>	22.3(21.8) <1.02>	16.7(16.3) <1.02>
LG 전자	3.9(3.0) <1.30>	5.2(3.5) <1.49>	8.7(5.0) <1.74>	11.2(6.2) <1.81>	10.9(6.1) <1.79>	8.0(4.8) <1.67>
S K	7.0(5.0) <1.40>	11.0(5.2) <2.12>	13.7(6.7) <2.04>	16.6(8.1) <2.05>	17.8(8.0) <2.23>	13.2(6.6) <2.00>
합 계	60.1(54.1) <1.11>	75.7(63.3) <1.20>	91.8(75.3) <1.22>	107.7(88.5) <1.22>	118.1(97.3) <1.21>	90.7(75.7) <1.20>

주 : 1) 연결기준, ()내는 지배회사 자기자본

2) < >내는 연결기준자기자본/지배회사자기자본(배)

(라) 당기순이익

2006년말 현재 5대기업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5.2조원으로 지배회사 14.3조원의 1.06배로 나타나 지배회사와 연결기준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6년중 연결기준 평균당기순이익은 16.0조원으로 지배회사의 평균당기순이익(14.1조원)의 약 1.13배로 나타났으며 기업별로는 SK(2.10배), LG전자(1.43배), 현대자동차(1.29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중 당기순이익 규모는 지배회사의 경우 삼성전자(7.9조), 포스코(3.2조), 현대자동차(1.5조), SK(1.4조), LG전자(0.2조)로 나타났으나 연결기준으로는 삼성전자(8.0조), 포스코(3.4조), SK(3.0조), 현대자동차(1.0조), LG전자(-0.2조)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1.5조→1.0조) 및 LG전자(0.2조→-0.2조)는 연결시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IV-12-7

연도별 당기순이익¹⁾ 추이

(단위 :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02~06 평균
삼성 전자	7.0(7.1) <0.99>	6.0(6.0) <1.00>	10.8(10.8) <1.00>	7.6(7.6) <1.00>	8.0(7.9) <1.01>	7.9(7.9) <1.00>
현대자동차	1.9(1.4) <1.36>	2.7(1.8) <1.50>	2.6(1.7) <1.53>	2.6(2.3) <1.13>	1.0(1.5) <0.67>	2.2(1.7) <1.29>
포 스 코	1.1(1.1) <1.00>	2.0(2.0) <1.00>	3.8(3.8) <1.00>	4.0(4.0) <1.00>	3.4(3.2) <1.06>	2.9(2.8) <1.04>
L G 전 자	0.5(0.3) <1.67>	1.2(0.7) <1.71>	2.5(1.5) <1.67>	0.9(0.7) <1.29>	-0.2(0.2) <-1.00>	1.0(0.7) <1.43>
S K	-4.7(0.1) <-47.0>	5.0(0.0) <-.>	3.8(1.6) <2.38>	3.3(1.7) <1.94>	3.0(1.4) <2.14>	2.1(1.0) <2.10>
합 계	5.7(10.0) <0.57>	17.0(10.4) <1.63>	23.5(19.5) <1.21>	18.4(16.4) <1.12>	15.2(14.3) <1.06>	16.0(14.1) <1.13>

주 : 1) 연결기준, ()내는 지배회사 당기순이익

2) < >내는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지배회사 당기순이익(배)

(2) 주요 재무비율

(가) 매출액증가율

연도별 매출액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및 2004년은 연결기준 매출액증가율이 지배회사 매출액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2004년 이후 종속법인수의 급증으로 2005년 및 2006년에는 연결기준 매출액증가율이 지배회사 매출액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그림 IV-12-1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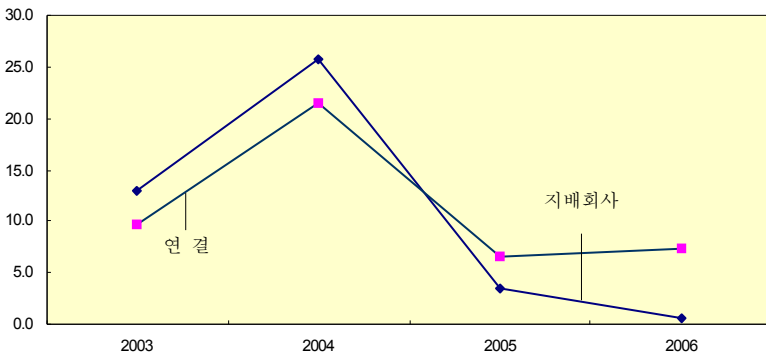


표 IV-12-8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02~06 평균
삼 성 전 자	11.7(9.5)	32.2(32.2)	-0.8(-0.3)	6.4(2.6)	12.4(11.0)
현 대자 동 차	-4.4(1.6)	15.0(10.0)	11.0(-0.3)	7.7(-0.2)	7.3(2.8)
포 스 코	23.9(22.4)	34.8(37.8)	9.7(9.6)	-1.8(-7.6)	16.7(15.6)
L G 전 자	59.5(45.1)	21.5(22.2)	2.8(-3.6)	4.3(-2.5)	22.0(15.3)
S K	-8.6(3.0)	5.8(26.2)	17.5(25.9)	16.7(7.9)	7.9(15.8)
5 대 합 계	9.6(13.0)	21.4(25.7)	6.5(3.6)	7.4(0.6)	11.2(10.7)

주 : 1) 연결기준 매출액증가율, ()내는 지배회사 매출액증가율임

(나) 매출액영업이익률

2006년중 5대기업의 연결매출액영업이익률은 7.1%로 지배회사(9.0%)보다 1.9%p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배회사의 수익성이 종속회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2002~2006년중 평균으로도 연결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10.0%)이 지배회사(11.8%)보다 1.8%p 낮게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변동추이는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연결기준과 지배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종속회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2004년 이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V-12-2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표 IV-12-9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02~06평균
삼성전자	15.3(18.8)	13.2(16.5)	17.1(20.9)	11.4(14.0)	10.5(11.8)	13.5(16.4)
현대자동차	6.3(6.5)	8.2(9.0)	5.4(7.2)	3.9(5.1)	2.3(4.5)	5.2(6.5)
포 스 코	14.3(15.6)	18.3(21.3)	22.2(25.5)	23.1(27.2)	17.0(19.4)	19.0(21.8)
LG 전자	4.1(4.8)	6.8(5.3)	7.6(5.1)	3.9(3.8)	0.0(2.3)	4.5(4.3)
S K	9.2(2.9)	11.3(4.9)	13.4(9.3)	10.0(5.5)	8.6(4.9)	10.5(5.5)
5대전체	10.0(11.6)	11.0(12.2)	12.7(14.9)	9.4(11.5)	7.1(9.0)	10.0(11.8)
	<1.6>	<1.2>	<2.2>	<2.1>	<1.9>	<1.8>

주 : 1) ()내는 지배회사 매출액영업이익률

2) < >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지배회사 매출액영업이익률-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률, %p)

(다) 매출액경상이익률

2006년중 5대기업의 연결기준 매출액경상이익률은 7.0%로 지배회사(13.1%)보다 4.0%p 낮은 수준으로 그 격차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회사의 영업외수익에 이미 반영된 지분법평가이익³³⁾을 연결시에 차감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2-3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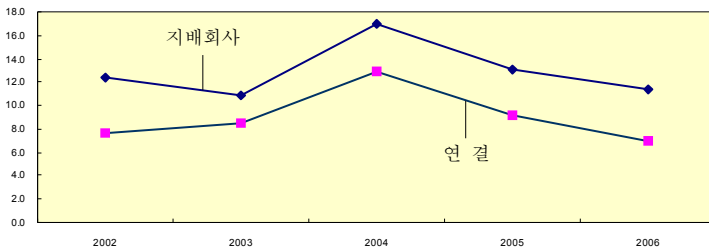


표 IV-12-10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02~06평균
삼성 전자	16.8(22.3)	11.9(15.8)	17.1(22.8)	11.5(15.4)	11.5(15.6)	13.8(18.4)
현대자동차	5.7(8.1)	8.3(9.5)	7.1(9.1)	5.5(10.0)	2.7(6.9)	5.9(8.7)
포 스 코	10.5(12.5)	15.5(18.6)	22.3(26.4)	20.9(24.7)	16.6(20.5)	17.2(20.5)
L G 전 자	2.9(2.9)	4.1(4.1)	6.8(7.5)	2.0(3.1)	-0.9(1.1)	3.0(3.7)
S K	-0.6(1.2)	4.2(0.0)	12.7(13.1)	9.5(10.1)	7.2(7.7)	6.6(6.4)
5 대 전 체	7.6(12.5) <4.9>	8.5(10.9) <2.4>	12.8(17.0) <4.2>	9.1(13.1) <4.0>	7.0(11.3) <4.3>	9.0(13.0) <4.0>

주: 1) ()내는 지배회사 매출액경상이익률

2) < >내는 매출액경상이익률 차이(지배회사 매출액경상이익률-연결기준 매출액경상이익률, %p)

33)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중 지배회사의 투자지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배회사의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라) 부채비율

2006년말 현재 5대기업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99.2%로 2002년말 (157.8%)보다 크게 낮아졌으나 지배회사 부채비율(47.5%)의 2배 수준을 보였다. 2006년말 현재 지배회사 부채비율은 SK(144.1%), LG전자(115.5%), 현대자동차(64.7%) 순으로 나타났으나 연결기준으로는 LG전자(206.6%), 현대자동차(172.1%), SK(155.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지배회사 부채비율간 최근 5개년 평균 격차는 LG전자(109.4%p), 현대자동차(86.1%p), SK(83.3%p), 삼성전자(26.7%p), 포스코(14.5%p)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IV-12-4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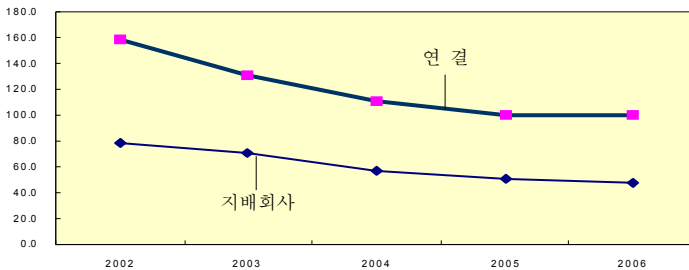


표 IV-12-11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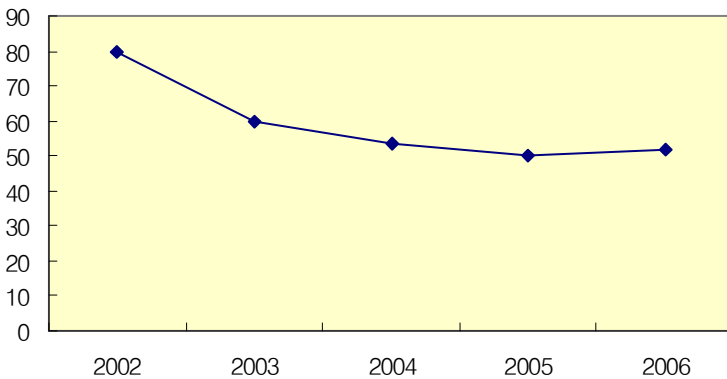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02-06평균
삼성전자	72.3(41.7)	62.6(33.3)	53.2(27.2)	52.1(27.4)	50.8(27.7)	58.2(31.5)
현대자동차	175.3(99.5)	166.9(96.9)	171.8(86.6)	169.4(77.1)	172.1(64.7)	171.1(85.0)
포 스 코	64.2(52.3)	56.2(42.0)	46.9(32.6)	38.4(24.1)	38.9(21.0)	48.9(34.4)
L G 전 자	408.9(237.2)	360.0(221.8)	242.5(163.8)	195.3(127.8)	206.6(115.5)	282.7(173.2)
S K	439.8(171.2)	238.1(186.4)	171.8(122.3)	151.4(115.9)	155.1(144.1)	231.2(148.0)
5 대 전 체	157.8(77.9) <-79.9>	130.3(70.4) <-59.9>	110.0(56.2) <-53.8>	100.6(50.2) <-50.4>	99.2(47.5) <-51.7>	119.6(60.4) <-59.2>

주 : 1) ()내는 지배회사 부채비율

2) < >내는 부채비율 차이(지배회사 부채비율-연결기준 부채비율, %p)

5대기업 전체의 지배회사와 연결기준 부채비율의 격차는 2002년 79.9%p에서 2005년 50.4%p로 꾸준히 축소되어 왔으나 2006년 들어 51.7%p로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V-12-5 연결기준 및 지배회사 부채비율의 격차추이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지배회사 부채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의 상계³⁴⁾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데다 종속회사의 부채비율이 지배회사보다 높은 데³⁵⁾ 주로 기인한다.

34) <참고 1> “연결재무제표와 단순합산재무제표의 재무비율 비교” 참조

35)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전자의 부채비율은 27.7%이나 국내종속법인 9개의 합산 부채비율은 249.8%에 달함

삼성전자 및 국내종속회사의 부채비율 현황(2006)

삼성 광주전자	스테코	세메스	세크론	삼성전자 서비스	리빙프라이자	블루텍	삼성전자 로지텍	S-LCD	SEHF- KOREA	종 속 회사계	삼성전자	합 계
31.0	43.5	180.5	108.0	226.0	49.5	10.7	272.0	852.9	181.3	249.8	27.7	34.9

다. 연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될 경우 내부거래 제거를 통해 지배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거래를 통한 지배회사의 회계분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당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업종별 통계작성의 애로

현재도 기업통계가 기업단위로 작성되고 있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분류함에 따라 업종별 통계의 왜곡이 상존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할 경우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가 포함됨에 따라 업종별 통계의 편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2) 해외법인의 합산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성과 왜곡

해외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글로벌기업개념의 경영성과 측정에는 유용하나 국내기업의 경영성과 측정이라는 기업경영분석통계 편제 목적과는 상치된다.

(3) 통계편제기준의 일관성 결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과 여타기업간의 회계처리기준 불일치로 기업경영분석 통계 편제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 100을 매출하고 B기업은 이를 소비자에게 120에 매출하였을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총매출액은 A와 B기업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220이 되나 두기업이 지배종속관계인 경우에는 총매출액 120이 된다.

(4)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저하

종속회사수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2개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증가율 통계 등 재무비율 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통한 재무비율 분석과 현행 분석방법간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바람직한 편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연결재무제표와 단순합산재무제표의 재무비율 비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와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각 항목의 금액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각종 재무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1) 부채비율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이 상계 제거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의 투자주식계정과 자본계정의 금액이 단순 합산 재무제표의 금액보다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단순합산 재무제표의 부채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례>

B사를 100% 지배하는 A사의 단순합산 재무제표로는 부채비율이 100%였으나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을 상계처리한 연결후 부채비율은 150%로 상승사의 단순합산 재무제표로는 부채비율이 100%였으나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을 상계처리한 연결후 부채비율은 150%로 상승

연결과 단순합산 재무제표 비교

(단위 : 원)

계정과목	개별B/S		단순 합산	연결조정		연결B/S
	A사	B사		차변	대변	
자 산	150	100	250			250
B사투자주식	50		50		50	0
소 계	200	100	300		50	250
부 채	100	50	150			150
자 본	100	50	150	50		100
소 계	200	100	300	50		250
부 채 비 율	100%	100%	100%			150%

(2) 매출액영업이익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출거래가 있을 경우 동 매출,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반적으로 내부매출거래가 클 경우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단순합산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례>

B사를 100% 지배하는 A사가 B사에 원가 500원의 상품을 600원에 외상매출하고 B사는 이 상품의 50%를 400원에 C사에 현금매출한 경우 동 시점에서 연결재무제표와 단순합산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보면(결국은 A사가 원가 250원의 상품을 400원에 매출한 것이 됨)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고(A의 매출 600 및 B의 매출원가 600, A의 외상매출금 600 및 B의 외상매입금 600), B의 보유재고(300원)에 남아 있는 미실현이익을 차감($300\text{원} \times (100/600) = 50\text{원}$)을 A의 매출원가 및 B의 재고자산에서 각각 차감)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외상매입금, 영업이익 등이 단순합산 재무제표보다 축소되어 나타나게 되며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단순합산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상회

연결과 단순합산 재무제표 비교

(단위 : 원)

계정과목	개별B/S		단순 합산	연결조정		연결B/S
	A사	B사		차변	대변	
매출원가	500	300	800	50	600	250
영업이익	100	100	200		50	150
소계	600	100	1,000	50	650	400
매출	600	400	1,000	600		400
소계	600	100	1,000	600		400
매출액영업이익률			20%			37.5%

(3)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순합산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와 100%이상일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단순합산재무제표의 유동자산금액이 B, 유동부채금액이 A일 경우 단순합산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은 B/A임. 이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로 동일한 금액(K)의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를 상계처리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은 $(B-K)/(A-K)$ 임. 두 유동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B/A - (B-K)/(A-K) = K(A-B)/A(A-K)$ 이므로(A, B > K) A>B일 경우(단순합산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 100%미만일 경우)에는 단순합산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 연결재무제표의 유동비율보다 높으며

A<B일 경우(단순합산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단순합산재무제표의 유동비율이 연결재무제표의 유동비율보다 낮게 나타남

연결과 단순합산 재무제표 비교

(단위 : 원)

계정과목	개별B/S		단순 합산	연결조정		연결B/S
	A사 (거래전)	A사 (거래후)		B사	차변	
현금			400	400		
외상매출금		600		600		600
재고자산	1,000	500	300	800		50
소계	1,000	1,100	700	1,800		650
외상매입금	900	900	600	1,500	600	
이익잉여금	100	200	100	300	50	
소계	1,000	1,100	700	1,800	650	
유동비율				66.7%		

<참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

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적용하여 부담을 경감

- 다만, 비상장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 이후에는 변경을 불허

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금융회사 제외)하고 2011년에는 상장회사 전체에 대해 도입

※ 보험업종은 관련 국제기준이 2010년경 대폭 개정 예정으로 조정 가능

- 적용 직전 회계연도에는 투자자 등의 혼란방지와 국제회계 기준 이해 제고를 위해 기준 차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

2.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도입시기

분기 및 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기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 선택적용기업은 2009년, 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

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토록 조정(외감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지분율 30%이상 최대주주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 → (국제기준) 지분율 50%이상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

<부 록>

1. 연간 주요 경영분석지표
 - 1-1. 주요 경영분석지표(전산업)
 - 1-2. 주요 경영분석지표(제조업)
 - 1-3. 제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대기업)
 - 1-4. 제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중소기업)
 - 1-5. 업종별 주요 경영분석지표
 - 1-6. 현금흐름 관련 주요 경영분석지표(제조업)
 - 1-6-1. 영업활동 현금흐름 추이(제조업)
 - 1-6-2. 투자활동 현금흐름 추이(제조업)
 - 1-6-3. 재무활동 현금흐름 추이(제조업)
 - 1-7. 주요국의 경영분석지표
2. 분기별 주요 경영분석 지표
 - 2-1. 상장·등록법인의 주요 경영분석지표(전산업)
 - 2-2. 상장·등록법인의 주요 경영분석지표(제조업)
3.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업종별 모집단 및 조사업체수
4. 기업경영분석 관련 주요 기업회계기준서

1-1. 주요 경영분석지표(전산업)

(%)

년도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 본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현금예금 (백만원)	현금예금 구 성 비
1961
1962
1963	92.20	..	52.03	154.03	127.53
1964	84.98	..	54.06	161.33	118.17
1965	82.51	..	54.79	180.48	106.71
1966	106.15	..	48.51	141.79	117.75
1967	127.75	..	43.91	125.31	137.14
1968	167.37	..	37.40	122.17	156.65
1969	236.48	..	29.72	118.97	188.58
1970	285.30	..	25.95	112.48	207.06
1971	347.05	54.65	22.37	105.61	243.37	136,857	6.56
1972	300.52	52.24	24.97	127.32	216.13	192,824	7.64
1973	275.66	50.24	26.62	130.44	197.57	313,174	8.77
1974	308.73	50.44	24.47	115.83	205.81	417,364	7.68
1975	305.76	48.10	24.65	114.26	212.29	622,928	8.51
1976	329.26	46.84	23.30	111.57	212.69	949,778	8.42
1977	328.12	45.65	23.36	107.35	219.53	1,236,548	7.89
1978	341.30	43.42	22.66	107.96	215.52	1,802,741	7.52
1979	359.85	45.16	21.75	102.56	228.62	1,894,752	5.82
1980	461.82	47.49	17.80	99.45	255.26	2,681,844	5.42
1981	440.87	47.07	18.45	94.28	269.34	3,198,372	5.00
1982	364.94	45.69	21.47	96.07	241.73	3,725,017	4.67
1983	347.63	43.68	22.29	97.94	227.53	4,769,683	5.14
1984	338.76	42.98	22.75	97.25	223.50	5,669,699	5.79
1985	363.81	47.67	21.51	102.40	231.03	6,264,040	5.52
1986	346.16	46.60	22.36	102.02	230.20	7,233,977	5.68
1987	349.33	43.22	22.20	99.98	239.59	7,602,076	5.25
1988	292.58	38.89	25.15	102.40	215.85	9,086,761	5.62
1989	260.05	37.23	27.53	103.32	198.00	11,282,890	5.82
1990	297.15	41.05	25.18	98.87	213.59	15,906,777	5.77
1991	318.02	41.43	23.92	96.10	222.37	20,569,563	6.10
1992	325.10	43.85	23.52	94.59	228.33	22,883,154	6.05
1993	312.93	43.11	24.22	97.44	219.66	26,031,898	6.00
1994	308.13	41.11	24.50	99.35	213.43	33,572,419	6.31
1995	305.60	41.55	24.65	98.30	212.83	39,979,972	6.50
1996	335.61	44.16	22.96	93.99	235.93	40,993,276	5.75
1997	424.64	50.01	19.06	93.02	265.87	55,985,356	6.15
1998	336.41	48.51	22.91	92.11	247.71	55,471,609	5.84
1999	235.13	41.32	29.84	94.43	208.33	53,303,900	5.16
2000	221.10	40.28	31.14	88.97	204.07	56,831,840	5.74
2001	195.58	38.40	33.83	99.56	189.24	62,205,676	6.32
2002	144.66	30.63	40.87	105.22	152.53	81,984,891	7.50
2003	131.31	29.06	43.23	110.05	139.85	106,288,723	9.03
2004	113.99	25.63	46.73	116.53	128.35	118,589,001	9.54
2005	110.86	24.14	47.42	122.42	123.67	132,506,814	9.36
2006	105.30	23.12	48.71	123.60	120.19	147,390,046	9.51

1-1. 주요 경영분석지표(전산업)

(%)

년도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금융비용 부담률	차입금 평균이자율	재료비대 매출액
1961
1962
1963	..	10.51	..	8.63	6.05
1964	..	12.27	..	9.03	5.90
1965	..	11.32	..	8.84	8.08
1966	..	13.28	..	9.06	8.05
1967	..	11.85	..	8.10	6.44
1968	..	11.42	..	7.06	5.36
1969	..	10.42	..	4.54	3.43
1970	..	10.27	..	3.92	2.75
1971	..	8.75	..	2.00	1.55	95.18	9.20	..	49.02
1972	..	8.88	..	3.62	3.19	129.26	6.87	..	48.53
1973	..	9.69	..	6.69	6.44	204.18	4.75	..	53.42
1974	..	7.38	..	4.62	4.77	159.61	4.62	..	59.70
1975	..	7.52	..	3.59	3.68	153.65	4.89	..	58.06
1976	..	7.77	..	4.27	4.74	162.80	4.78	..	57.10
1977	..	7.51	..	4.62	5.40	169.34	4.43	..	51.66
1978	..	7.41	..	4.51	5.90	184.05	4.03	..	45.92
1979	..	7.29	..	3.46	4.49	146.72	4.97	..	44.86
1980	..	6.96	..	1.15	1.56	115.05	6.05	..	45.46
1981	..	7.55	..	0.94	1.22	109.31	6.90	..	44.30
1982	..	6.79	..	1.33	1.63	117.61	5.77	..	41.96
1983	..	7.02	..	2.43	2.91	141.39	4.97	..	41.77
1984	..	6.46	..	2.29	2.86	138.72	4.65	..	40.45
1985	..	6.94	..	2.11	2.51	137.27	5.06	..	41.04
1986	..	7.09	..	2.79	3.33	146.93	4.82	..	39.73
1987	..	6.68	..	2.95	3.59	150.03	4.45	..	40.27
1988	..	6.14	..	3.61	4.52	146.69	4.19	..	39.51
1989	..	5.54	..	2.64	3.12	124.58	4.45	..	38.83
1990	..	5.79	..	2.40	2.70	133.84	4.33	..	34.99
1991	..	5.88	..	2.16	2.42	125.57	4.68	..	32.83
1992	..	5.70	..	1.85	2.01	113.81	5.01	..	31.35
1993	5.38	5.88	2.01	1.97	2.16	127.86	4.60	..	29.99
1994	8.13	6.34	2.82	2.61	2.83	136.13	4.66	..	30.45
1995	9.14	6.36	2.91	2.73	3.08	136.80	4.65	..	29.22
1996	2.45	5.03	1.12	0.99	1.08	107.38	4.68	..	28.65
1997	-4.21	5.60	-0.34	-0.21	-0.22	115.00	4.87	..	28.55
1998	-13.15	4.22	-2.17	-1.17	-1.15	64.33	6.55	..	29.14
1999	-5.87	3.87	-0.40	-0.28	-0.26	71.47	5.41	10.76	29.86
2000	-2.58	5.59	0.51	0.89	0.93	140.80	3.97	9.89	30.58
2001	1.56	5.13	1.66	0.99	1.05	146.03	3.51	8.93	30.34
2002	13.98	5.73	6.15	4.28	4.90	263.51	2.18	7.35	29.89
2003	9.74	6.39	5.20	4.75	5.20	351.23	1.82	6.50	31.72
2004	13.83	6.75	7.18	7.03	8.16	483.40	1.40	5.87	34.01
2005	12.39	5.86	6.25	6.21	7.34	460.30	1.27	6.02	34.53
2006	9.95	5.24	5.56	5.55	6.34	413.86	1.27	6.22	34.73

1-1. 주요 경영분석지표(전산업)

(%)

년도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총자산 회전율(회)	재고자산 회전율(회)	매출채권 회전율(회)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25.17	26.20	27.11
1972	32.75	22.65	21.77
1973	54.16	37.29	14.39
1974	53.52	43.23	27.64
1975	43.98	36.26	34.02
1976	42.38	30.28	31.90
1977	40.14	35.24	34.88
1978	44.84	39.77	35.38
1979	35.71	33.21	32.89
1980	41.10	41.32	29.61
1981	35.67	25.14	26.23
1982	14.93	23.14	29.54
1983	15.24	16.19	9.74
1984	14.73	13.81	11.83
1985	9.30	13.93	12.48
1986	12.47	11.69	13.89
1987	17.61	14.40	13.23
1988	14.86	12.95	14.53
1989	8.07	21.42	20.10
1990	19.32	23.84	17.69	1.13	8.40	7.28
1991	21.02	22.21	19.36	1.12	8.64	7.00
1992	13.41	13.26	12.19	1.08	8.64	6.88
1993	10.33	11.85	12.55	1.10	8.86	6.52
1994	17.26	18.19	13.31	1.08	8.54	6.37
1995	21.21	19.66	17.86	1.13	9.31	6.55
1996	13.91	15.82	19.58	1.10	8.97	6.65
1997	13.40	21.33	15.38	1.05	8.86	5.82
1998	1.46	2.96	15.38	0.98	8.74	5.88
1999	4.27	5.73	6.36	0.94	9.61	6.48
2000	12.01	0.71	5.33	1.05	11.84	7.68
2001	1.45	-0.13	-0.44	1.06	11.83	7.90
2002	7.27	4.17	-1.02	1.15	13.07	8.41
2003	3.96	5.34	1.30	1.10	12.42	7.50
2004	13.32	6.74	3.83	1.16	12.56	8.08
2005	4.25	8.27	4.59	1.18	12.35	7.65
2006	5.95	8.34	5.15	1.14	12.02	7.40

1-2. 주요 경영분석지표(제조업)

(%)

년도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현금예금 (백만원)	현금예금 구성비
1961	135.92	..	42.39	132.39	105.34
1962	153.47	31.81	39.45	127.98	112.77	888	3.3
1963	92.22	24.22	52.02	149.28	94.89	1,992	4.3
1964	100.47	30.46	49.88	164.17	98.31	2,301	3.1
1965	93.74	26.18	51.62	179.84	89.94	3,097	3.7
1966	117.71	28.38	45.93	139.20	101.70	3,186	2.2
1967	151.23	28.78	39.80	129.95	114.00	7,033	3.6
1968	201.30	35.55	33.20	129.70	146.60	19,219	5.0
1969	270.00	49.63	27.03	120.50	171.72	55,375	8.3
1970	328.40	47.50	23.34	117.10	195.23	82,495	9.0
1971	394.20	55.90	20.20	108.06	243.32	99,841	7.5
1972	313.40	51.40	24.20	128.24	194.59	156,702	9.5
1973	272.70	48.44	26.80	134.21	169.83	251,203	10.4
1974	316.00	49.70	24.00	121.93	177.05	328,582	9.0
1975	339.50	48.30	22.80	119.86	193.10	510,489	10.1
1976	364.60	48.70	21.50	115.73	205.17	691,131	9.1
1977	350.70	47.00	22.20	112.40	209.80	823,225	8.1
1978	366.80	48.00	21.40	109.78	223.37	1,096,526	7.8
1979	377.10	48.40	21.00	102.17	231.01	1,193,535	6.1
1980	487.90	49.30	17.00	98.86	263.23	1,507,540	5.4
1981	451.50	49.40	18.10	95.15	264.10	1,887,196	5.2
1982	385.80	45.90	20.60	96.56	242.90	2,112,803	5.0
1983	360.30	43.70	21.70	97.07	228.10	2,869,551	6.0
1984	342.70	41.50	22.60	98.37	217.20	3,143,029	6.2
1985	348.40	46.70	22.30	103.77	218.90	3,422,361	5.7
1986	350.90	46.00	22.20	101.03	223.90	4,014,752	5.9
1987	340.10	42.90	22.70	99.86	225.00	4,657,770	5.5
1988	296.00	39.40	25.30	103.15	209.80	5,876,860	6.0
1989	254.30	38.50	28.20	103.74	192.10	7,378,365	6.2
1990	285.52	44.59	25.94	99.44	206.26	10,202,509	6.3
1991	306.68	44.51	24.59	95.33	219.40	12,320,694	6.3
1992	318.73	47.18	23.88	92.75	227.39	14,196,363	6.4
1993	294.88	46.75	25.32	94.13	218.54	15,295,243	6.0
1994	302.52	44.54	24.84	94.59	220.19	20,450,147	6.6
1995	286.75	44.76	25.86	95.39	212.53	23,783,631	6.6
1996	317.11	47.66	23.97	91.89	236.99	24,378,788	6.0
1997	396.25	54.22	20.15	91.77	261.13	32,557,418	6.4
1998	303.02	50.83	24.81	89.75	242.45	33,728,063	6.5
1999	214.66	42.75	31.78	92.02	202.27	30,468,148	5.3
2000	210.57	41.22	32.20	83.23	198.46	32,668,977	5.9
2001	182.20	39.77	35.44	97.87	181.62	32,596,772	6.0
2002	135.44	31.71	42.47	106.07	145.09	46,616,029	8.1
2003	123.39	28.30	44.77	109.75	132.21	60,347,806	9.7
2004	104.24	24.01	48.96	116.97	118.92	65,590,260	9.9
2005	100.90	22.87	49.78	121.35	116.01	73,379,887	10.0
2006	98.88	22.38	50.28	120.51	115.84	77,158,564	9.7

1-2. 주요 경영분석지표(제조업)

(%)

년도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세무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이자보상 비용	금융비용 부담률	차입금 평균이자율	재료비대 매출액
1961	..	9.04	..	5.11	5.31
1962	..	10.19	..	7.26	9.09	314.38	3.38
1963	..	11.35	..	9.11	9.77	405.56	3.02
1964	..	12.47	..	8.58	7.48	273.66	4.89
1965	..	11.52	..	7.90	7.90	320.86	3.91
1966	16.93	12.84	..	7.70	7.78	236.87	5.65
1967	17.01	11.01	..	6.74	6.77	227.21	5.19
1968	16.05	11.08	..	5.96	5.33	212.65	5.90
1969	13.57	10.42	..	4.31	3.67	133.46	7.81
1970	10.67	10.37	..	3.27	2.49	113.36	9.15
1971	4.41	8.95	..	1.18	0.99	90.80	9.86	13.35	62.80
1972	14.21	9.58	..	3.94	3.77	135.31	7.08	12.00	61.99
1973	30.04	10.35	..	7.49	7.90	224.39	4.61	8.53	66.41
1974	22.73	7.74	..	4.81	5.66	173.54	4.46	10.50	71.31
1975	16.40	7.20	..	3.42	3.88	149.08	4.95	11.28	68.73
1976	14.88	7.47	3.93	3.86	4.61	153.33	4.87	11.93	67.85
1977	11.75	6.81	3.50	3.54	4.38	142.02	4.87	13.09	63.11
1978	12.47	7.66	3.87	3.98	4.98	158.70	4.83	12.41	62.96
1979	8.75	7.44	2.84	2.72	3.37	124.96	5.95	14.38	61.80
1980	-7.32	7.28	-0.17	-0.18	-0.23	98.46	7.39	18.69	63.52
1981	-5.19	7.58	-0.05	0.01	0.02	94.64	8.01	18.37	61.95
1982	0.22	7.40	0.84	0.87	1.03	113.02	6.55	15.97	59.33
1983	9.60	7.64	2.61	2.68	3.27	147.55	5.18	13.64	58.96
1984	6.81	7.36	2.26	2.72	3.41	147.36	5.00	14.42	60.48
1985	5.84	7.81	2.02	2.47	2.97	146.91	5.31	13.44	59.99
1986	10.88	7.93	3.12	3.63	4.47	162.21	4.89	12.50	59.44
1987	10.71	7.24	3.11	3.58	4.44	157.44	4.60	12.50	59.86
1988	10.24	6.82	3.36	4.05	4.92	148.43	4.60	12.96	57.97
1989	6.42	6.02	2.78	2.50	2.72	118.37	5.08	13.61	57.38
1990	5.53	6.53	2.44	2.34	2.43	127.49	5.12	12.25	52.32
1991	5.62	6.64	2.30	1.78	1.78	116.73	5.69	12.98	51.38
1992	3.66	6.64	1.70	1.53	1.45	105.18	6.31	12.34	49.38
1993	4.22	7.04	1.97	1.70	1.59	118.68	5.93	11.19	48.64
1994	7.56	7.65	2.91	2.74	2.64	135.58	5.64	11.39	48.28
1995	11.03	8.33	3.88	3.60	3.59	149.58	5.57	11.68	47.12
1996	2.02	6.54	1.11	0.99	0.93	112.13	5.84	11.22	48.30
1997	-4.21	8.25	-0.51	-0.34	-0.30	129.09	6.39	10.59	48.07
1998	-15.86	6.11	-3.54	-1.84	-1.52	68.28	8.95	13.51	49.38
1999	0.04	6.62	1.59	1.68	1.38	96.06	6.89	11.54	48.96
2000	-5.80	7.40	-0.52	1.29	1.24	157.22	4.70	10.49	49.96
2001	0.02	5.52	1.15	0.35	0.35	132.55	4.16	9.44	49.76
2002	17.31	6.74	7.75	4.69	5.08	260.29	2.59	7.65	49.85
2003	9.56	6.87	5.19	4.68	5.15	367.09	1.87	6.82	51.19
2004	15.61	7.56	8.07	7.79	9.38	575.79	1.31	5.93	52.40
2005	12.87	6.12	6.55	6.50	7.81	525.42	1.16	5.98	53.78
2006	10.37	5.34	5.79	5.69	6.64	439.33	1.21	6.27	53.81

1-2. 주요 경영분석지표(제조업)

(%)

년도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총자산 회전율(회)	재고자산 회전율(회)	매출채권 회전율(회)
1961	17.50
1962	30.80
1963	39.50
1964	31.10
1965	28.60
1966	45.79
1967	44.40
1968	49.00
1969	27.15
1970	18.80
1971	25.10	24.10	27.74	0.84	5.85	7.28
1972	33.33	21.66	17.53	0.96	6.42	8.59
1973	59.92	43.44	28.02	1.05	7.10	12.00
1974	57.23	42.31	33.42	1.18	6.15	14.07
1975	40.98	36.61	36.28	1.14	5.84	12.38
1976	38.58	26.98	29.32	1.19	6.29	10.97
1977	31.57	28.26	26.10	1.28	6.73	11.05
1978	36.51	33.57	36.56	1.25	6.83	10.60
1979	30.47	33.17	33.54	1.24	6.74	10.16
1980	37.23	38.65	27.05	1.27	6.68	9.17
1981	33.94	19.98	22.23	1.24	6.26	9.05
1982	12.29	18.69	23.04	1.19	6.13	7.57
1983	17.80	15.18	9.86	1.22	6.74	7.48
1984	17.92	14.76	12.62	1.25	7.21	7.25
1985	9.83	13.02	13.06	1.20	6.90	6.76
1986	16.84	15.20	18.57	1.23	7.13	6.97
1987	22.56	20.44	18.43	1.24	7.40	7.34
1988	15.81	15.81	18.31	1.22	7.27	7.74
1989	7.00	24.03	26.23	1.09	6.78	7.16
1990	18.81	23.79	18.95	1.04	6.96	6.48
1991	17.41	22.55	20.86	1.00	6.96	6.08
1992	10.34	12.27	11.00	0.95	6.85	5.69
1993	9.94	11.19	13.21	0.93	7.23	5.51
1994	18.23	16.85	13.15	0.97	7.44	5.52
1995	20.44	19.32	19.01	1.00	7.66	5.70
1996	10.26	15.01	18.18	0.95	7.39	5.50
1997	11.02	22.39	13.65	0.90	7.51	4.94
1998	0.71	3.47	17.15	0.82	7.98	4.93
1999	8.02	2.81	-0.01	0.82	8.97	5.83
2000	15.20	-0.80	2.41	0.96	10.17	6.92
2001	1.69	-1.81	-1.54	0.98	10.10	7.07
2002	8.26	3.14	-2.22	1.08	11.09	7.49
2003	6.12	6.94	1.67	1.10	10.50	7.34
2004	17.10	7.96	4.78	1.20	10.82	8.02
2005	5.87	9.43	6.22	1.20	10.94	7.74
2006	6.26	8.07	5.97	1.17	10.77	7.47

1-3. 제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대기업)

(%)

년도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현금예금 (백만원)	현금예금 구성비
1981	451.10	51.10	18.10	93.60	273.80	1,431,865	4.8
1982	377.60	46.60	20.90	95.50	247.40	1,644,634	4.6
1983	360.60	44.30	21.70	95.50	235.10	2,437,371	5.8
1984	339.50	42.20	22.70	97.50	222.00	2,551,535	5.8
1985	344.70	48.10	22.50	103.00	224.80	2,611,025	5.2
1986	355.70	47.40	21.90	99.30	234.80	3,005,215	5.2
1987	333.10	43.70	23.10	98.60	231.10	3,303,254	4.8
1988	283.90	39.60	26.00	102.80	212.50	4,142,486	5.2
1989	239.90	38.40	29.40	103.70	192.50	5,378,219	5.4
1990	273.84	45.18	26.75	99.50	207.94	7,290,753	5.7
1991	288.12	44.84	25.77	95.55	216.51	9,170,128	5.7
1992	302.53	47.80	24.84	93.06	224.63	10,866,669	5.9
1993	273.50	47.67	26.77	94.97	214.84	10,493,033	5.3
1994	282.88	45.72	26.12	95.51	217.41	14,789,338	6.1
1995	268.29	45.98	27.15	96.23	210.20	16,829,133	5.9
1996	301.56	49.31	24.90	92.25	237.65	16,329,278	5.1
1997	390.00	56.45	20.41	90.86	268.23	21,892,535	5.6
1998	295.38	52.92	25.29	86.10	251.23	22,569,784	5.5
1999	208.94	44.46	32.37	84.95	214.53	16,247,165	3.8
2000	224.59	43.64	30.81	70.96	224.70	18,304,612	4.6
2001	201.63	41.96	33.15	84.90	213.11	18,386,319	4.8
2002	128.88	31.20	43.69	98.47	154.61	30,062,688	7.5
2003	113.49	25.85	46.84	105.50	137.47	39,297,072	9.3
2004	91.68	20.41	52.17	116.96	120.41	46,097,891	10.1
2005	86.13	19.08	53.73	120.60	117.31	48,083,722	9.7
2006	85.49	18.13	53.91	118.11	117.92	48,084,634	9.0

1-3. 제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대기업)

(%)

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금융비용 부담률	차입금 평균이자율	재료비대 매출액
1981	8.00	-0.43	-0.51	92.11	8.69	18.30	63.06
1982	7.93	0.77	0.88	113.80	6.97	16.08	59.91
1983	8.03	2.63	3.07	145.93	5.51	13.71	59.69
1984	7.82	2.71	3.22	145.93	5.36	14.45	61.60
1985	8.27	2.32	2.64	145.65	5.68	13.29	61.29
1986	8.28	3.55	4.12	158.91	5.21	12.27	60.77
1987	7.68	3.69	4.15	153.40	5.00	12.14	61.39
1988	7.19	4.34	4.85	146.57	4.91	12.70	58.78
1989	6.18	2.49	2.54	116.02	5.33	13.41	58.71
1990	6.75	2.22	2.13	124.80	5.41	11.80	52.98
1991	7.28	1.88	1.73	119.13	6.11	12.68	51.90
1992	7.44	1.86	1.63	109.49	6.79	12.18	50.15
1993	7.95	1.87	1.57	122.06	6.51	10.99	49.37
1994	8.62	3.06	2.68	139.69	6.17	11.23	48.02
1995	9.75	4.40	4.02	159.85	6.10	11.53	46.26
1996	7.31	0.98	0.85	115.37	6.34	10.95	48.38
1997	9.72	-0.67	-0.55	138.83	7.00	10.26	48.34
1998	6.53	-2.91	-2.12	62.52	10.45	13.45	50.29
1999	7.38	1.01	0.72	86.88	8.49	11.93	49.43
2000	8.21	0.26	0.23	146.05	5.62	10.83	51.05
2001	6.03	-0.58	-0.53	121.07	4.98	9.89	50.92
2002	7.54	5.42	5.35	255.42	2.95	7.77	49.99
2003	8.16	5.96	6.11	428.83	1.90	6.97	53.28
2004	9.43	10.23	11.66	793.42	1.19	5.82	53.77
2005	7.16	8.06	8.96	694.99	1.03	5.82	56.09
2006	5.98	7.01	7.68	571.82	1.05	6.13	57.12

1-3. 제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대기업)

(%)

년도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총자산 회전율(회)	재고자산 회전율(회)	매출채권 회전율(회)
1981	33.87	18.31	20.86	1.17	6.19	8.85
1982	12.50	19.54	24.57	1.14	6.08	7.49
1983	17.04	14.73	9.40	1.17	6.72	7.40
1984	17.21	14.23	11.66	1.19	7.20	6.99
1985	10.20	12.77	12.90	1.14	6.96	6.48
1986	15.06	14.26	18.65	1.16	7.09	6.66
1987	21.66	20.46	18.40	1.12	7.21	6.91
1988	16.42	15.27	18.34	1.12	7.11	7.46
1989	8.57	25.01	27.87	1.02	6.66	7.06
1990	19.51	23.87	17.99	0.96	6.84	6.22
1991	17.54	23.24	21.07	0.92	6.88	5.70
1992	11.67	12.83	11.43	0.88	6.79	5.32
1993	11.23	10.95	13.60	0.84	7.18	5.10
1994	18.96	16.90	13.46	0.88	7.39	5.15
1995	22.25	20.51	21.28	0.91	7.61	5.32
1996	11.27	16.47	20.89	0.86	7.31	5.15
1997	12.92	25.27	15.17	0.81	7.49	4.64
1998	1.97	5.10	19.57	0.73	8.06	4.62
1999	6.58	0.12	-2.16	0.71	9.30	5.66
2000	16.68	-4.74	-0.98	0.86	11.08	7.25
2001	0.84	-4.36	-3.28	0.91	11.38	7.77
2002	7.21	0.95	-4.14	0.99	12.08	8.51
2003	6.55	7.06	0.37	1.02	11.73	8.46
2004	19.85	8.75	4.74	1.14	11.94	9.32
2005	5.85	8.66	6.02	1.11	11.48	9.10
2006	6.50	7.35	5.47	1.10	11.56	8.72

1-4. 제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중소기업)

(%)

년도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현금예금 (백만원)	현금예금 구성비
1981	453.20	41.40	18.00	101.9	216.6	455,331	7.4
1982	433.00	42.50	18.70	101.0	217.6	468,169	6.7
1983	357.80	38.90	21.80	107.40	173.30	432,179	8.0
1984	366.00	37.40	21.40	103.30	183.10	591,493	9.0
1985	369.60	39.40	21.30	107.20	185.50	811,336	8.6
1986	326.00	38.30	23.50	109.00	166.70	1,009,537	9.8
1987	375.00	39.30	21.10	104.60	194.60	1,354,516	9.0
1988	357.70	38.60	21.80	104.50	195.90	1,734,374	9.4
1989	347.00	38.80	22.40	104.00	189.70	2,000,146	9.8
1990	338.61	42.29	22.80	99.24	198.62	2,911,756	8.8
1991	413.22	43.07	19.48	94.56	235.98	3,150,567	8.5
1992	418.53	44.23	19.29	91.55	244.39	3,329,694	8.7
1993	388.13	43.69	20.49	91.95	234.69	4,802,210	8.2
1994	394.18	40.25	20.24	92.00	233.16	5,660,809	8.4
1995	380.60	39.98	20.81	92.88	224.36	6,954,498	9.5
1996	387.43	41.49	20.52	90.88	234.01	8,049,509	9.3
1997	418.40	46.76	19.29	94.24	235.95	10,664,883	9.1
1998	334.37	43.01	23.02	100.49	206.47	11,158,279	10.2
1999	232.38	37.82	30.09	107.63	164.24	14,220,982	9.6
2000	179.71	35.04	35.75	114.57	140.71	14,364,365	9.1
2001	144.74	34.55	40.86	123.96	120.90	14,210,452	8.8
2002	152.08	32.89	39.67	119.29	120.91	16,553,342	9.5
2003	147.57	33.46	40.39	116.57	119.35	21,050,734	10.5
2004	138.65	31.92	41.90	116.97	114.84	19,492,368	9.4
2005	140.90	30.79	41.51	122.44	112.49	25,296,165	10.7
2006	132.59	30.92	42.99	124.03	110.61	29,073,930	11.0

1-4. 제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중소기업)

(%)

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금융비용 부담률	차입금 평균이자율	재료비대 매출액
1981	6.01	1.67	2.68	109.63	5.48	18.77	57.77
1982	5.28	1.25	1.78	108.56	4.87	15.38	57.00
1983	5.39	2.97	4.86	162.83	3.31	12.95	54.82
1984	5.19	2.74	4.65	158.47	3.28	14.13	55.11
1985	5.97	3.05	4.72	154.21	3.87	14.40	54.87
1986	6.52	3.95	6.48	181.71	3.59	14.04	54.00
1987	5.98	3.27	5.78	174.62	3.42	14.27	55.43
1988	5.73	3.18	5.21	155.77	3.68	14.12	55.56
1989	5.47	2.51	3.60	128.38	4.26	14.53	52.85
1990	5.94	2.66	3.60	136.63	4.35	14.10	50.51
1991	4.78	1.48	2.01	107.19	4.46	14.29	49.89
1992	4.10	0.47	0.61	85.71	4.78	13.13	46.96
1993	4.97	1.32	1.64	107.88	4.61	11.86	46.99
1994	5.26	1.94	2.51	121.29	4.34	12.01	48.90
1995	4.61	1.49	1.97	110.11	4.19	12.30	49.37
1996	4.62	0.99	1.23	100.89	4.58	12.24	48.08
1997	4.98	0.40	0.47	99.06	5.03	11.80	47.47
1998	5.15	0.55	0.65	92.65	5.56	13.80	47.35
1999	5.23	2.92	3.40	132.63	3.94	10.22	48.08
2000	5.83	3.28	4.04	198.46	2.94	9.40	47.86
2001	4.54	2.16	2.51	175.56	2.58	8.07	47.51
2002	5.29	3.39	4.44	273.70	1.93	7.32	49.60
2003	4.64	2.49	3.13	255.93	1.81	6.57	47.60
2004	4.11	3.29	4.41	265.96	1.54	6.11	49.85
2005	4.36	3.87	5.38	313.22	1.39	6.18	49.87
2006	4.25	3.45	4.53	282.85	1.50	6.45	48.20

1-4. 제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중소기업)

(%)

년도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총자산 회전율(회)	재고자산 회전율(회)	매출채권 회전율(회)
1981	34.23	28.93	30.93	1.60	6.53	9.89
1982	11.44	14.52	14.43	1.42	6.30	7.91
1983	22.32	18.85	14.58	1.64	6.87	7.96
1984	21.45	18.48	20.81	1.70	7.29	8.84
1985	8.38	14.41	14.04	1.55	6.68	8.16
1986	24.68	20.77	17.95	1.64	7.27	8.62
1987	25.24	20.36	18.62	1.76	8.00	8.95
1988	14.06	18.17	18.13	1.64	7.78	8.71
1989	1.97	19.47	16.58	1.44	7.21	7.54
1990	16.92	23.47	23.44	1.36	7.30	7.30
1991	17.02	19.67	19.83	1.36	7.24	7.55
1992	6.31	9.64	8.67	1.30	7.07	7.30
1993	7.13	12.01	11.73	1.25	7.33	6.73
1994	16.47	16.66	11.90	1.29	7.57	6.67
1995	15.90	14.89	9.53	1.32	7.78	7.01
1996	7.82	9.90	7.26	1.25	7.58	6.63
1997	7.02	13.61	8.07	1.17	7.54	5.78
1998	-2.01	-2.18	7.01	1.17	7.82	5.78
1999	10.79	11.44	8.61	1.17	8.41	6.19
2000	12.45	10.94	15.00	1.23	8.76	6.38
2001	3.38	4.81	4.25	1.17	8.29	6.01
2002	10.21	8.58	3.89	1.31	9.67	6.17
2003	5.39	6.68	5.16	1.26	8.90	5.99
2004	12.32	6.26	4.87	1.34	9.22	6.38
2005	5.90	11.09	6.73	1.39	10.14	6.17
2006	5.85	9.56	7.23	1.31	9.64	6.01

1-5. 업종별 주요 경영분석 지표

(%)

	매출액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제 조 업	6.1	17.1	5.9	6.3	1.7	4.8	6.2	6.0
음 식 료 담 배	2.9	7.5	-1.2	1.4	1.0	-0.1	0.8	1.2
섬 유 의 복	-3.2	3.2	-1.5	-2.3	-0.8	-3.1	-4.8	-4.5
목 재 종 이	-1.9	3.8	0.4	3.7	-0.1	0.2	0.4	-0.5
석 유 화 학	5.9	20.4	13.3	10.0	-0.5	-1.0	0.4	4.3
비금속광물제품	5.4	3.4	-4.7	-0.8	0.0	6.4	-1.9	0.1
금속제품	12.5	28.1	7.4	5.9	-2.0	5.5	8.4	9.5
기계·전기전자	7.9	21.9	1.5	5.2	5.3	12.5	15.6	10.7
(산업용기계)	6.1	18.4	9.4	5.3	1.4	2.1	8.9	10.6
(전기전자)	8.2	23.1	-0.4	5.0	6.2	14.6	17.2	10.7
운송장비	7.8	14.6	13.2	10.5	4.5	6.4	7.0	5.6
(자동차)	8.9	15.5	12.3	8.4	5.7	8.1	8.0	4.9
(조선·기타운송장비)	4.3	11.5	16.5	17.3	2.0	2.6	4.8	7.4
가구및기타	10.6	10.1	-0.4	1.4	4.5	0.0	4.4	8.1
비제조업	1.7	9.0	2.5	5.6	0.9	2.8	2.7	4.2
전기가스업	8.5	9.1	11.3	10.2	1.1	3.0	1.2	2.4
건설업	16.4	8.9	1.6	3.3	-1.9	13.6	11.3	8.5
서비스업	-3.1	9.0	1.9	5.9	1.1	1.9	2.6	4.5
(도소매업)	-7.0	8.1	0.2	5.5	5.4	4.8	4.7	5.8
(운수업)	8.3	18.1	5.5	3.6	-0.8	2.4	5.1	7.2
(통신업)	-0.3	7.6	3.7	4.6	-4.1	-5.3	-5.0	-0.9
(사업서비스업)	8.0	5.3	3.1	9.5	7.0	8.9	5.0	8.9
(오락문화운동산업)	9.5	10.3	9.4	9.9	6.3	5.5	2.8	5.0

1-5. 업종별 주요 경영분석 지표

(%)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4.7	7.8	6.5	5.7	6.9	7.6	6.1	5.3
음식료담배	4.5	4.7	7.2	8.4	8.3	8.3	7.3	7.5
섬유의복	-0.4	0.7	1.4	1.5	2.7	1.8	2.1	2.4
목재종이	3.4	4.3	3.3	4.2	5.5	4.5	4.5	4.7
석유화학	4.9	9.2	7.9	6.3	6.6	8.5	7.0	5.6
비금속광물제품	10.4	10.8	6.8	7.6	12.6	11.3	8.3	6.8
금속제품	7.0	11.3	10.2	8.0	9.1	10.8	10.1	7.6
기계·전기전자	4.0	9.5	6.4	5.4	7.4	9.4	6.5	5.5
(산업용기계)	4.1	5.6	5.1	4.7	5.7	5.8	5.0	5.3
(전기전자)	4.0	10.5	6.8	5.6	7.8	10.4	6.9	5.4
운송장비	6.2	5.4	5.0	4.7	6.0	3.5	3.2	3.8
(자동차)	6.8	6.1	5.8	4.5	6.2	3.2	3.8	3.8
(조선·기타운송장비)	4.5	2.8	2.3	5.2	5.2	0.1	1.4	3.6
가구및기타	3.5	2.9	3.1	2.2	4.6	3.2	3.5	3.4
비제조업	4.8	6.1	5.9	5.4	5.9	5.8	5.6	5.1
전기가스업	12.6	12.3	10.0	7.8	11.5	9.5	7.6	6.3
건설업	4.4	4.8	6.0	6.1	5.3	5.1	6.5	6.2
서비스업	3.9	5.7	5.4	4.9	5.3	5.5	5.0	4.6
(도소매업)	3.4	4.3	4.1	3.4	4.1	3.8	3.3	3.3
(운수업)	2.0	7.9	5.2	4.6	4.3	5.9	4.7	2.8
(통신업)	10.6	10.8	11.6	10.4	16.0	15.1	14.9	13.8
(사업서비스업)	2.3	3.8	5.7	6.3	3.1	4.2	5.5	6.0
(오락문화운동산업)	13.0	13.4	13.8	13.7	14.4	12.7	14.5	12.8

1-5. 업종별 주요 경영분석 지표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제 조 업	123.4	104.2	100.9	98.9	28.3	24.0	22.9	22.4
음 식 료 담 배	129.6	124.6	100.8	89.9	32.9	30.6	27.7	26.1
섬 유 의 복	182.3	145.2	151.6	146.8	38.8	36.0	32.8	31.7
목 재 종 이	140.3	127.7	120.3	109.1	33.6	31.8	31.6	29.4
석 유 화 학	116.4	99.7	96.6	98.6	32.1	27.2	24.5	24.0
비금속광물제품	98.9	83.4	84.3	81.5	28.6	24.5	25.4	25.8
금 속 제 품	113.7	84.2	77.9	74.7	30.0	26.1	24.4	24.2
기 계 · 전 기 전 자	109.9	84.1	82.0	81.0	26.3	20.8	19.8	19.7
(산 업 용 기 계)	133.2	122.4	129.7	128.5	27.1	24.4	24.7	26.2
(전 기 전 자)	105.0	76.2	73.0	71.9	26.1	19.8	18.6	18.1
운 송 장 비	141.1	145.0	150.7	151.3	18.4	15.8	17.3	16.8
(자 동 차)	116.2	117.7	118.3	118.2	18.2	16.9	18.9	19.9
(조선·기타운송장비)	226.0	234.5	269.1	257.7	19.0	13.5	13.8	10.9
가 구 및 기 타	127.3	119.7	136.0	149.9	30.2	27.2	32.0	34.4
비 제 조 업	140.9	126.5	122.7	112.6	29.9	27.5	25.5	23.9
전 기 가 스 업	70.4	66.0	66.8	69.0	27.8	24.6	22.9	24.1
건 설 업	165.0	165.8	143.7	121.8	22.8	24.1	23.8	22.0
서 비 스 업	170.1	144.7	139.9	125.6	32.4	29.3	26.8	24.4
(도 소 매 업)	180.5	153.0	145.7	133.5	27.9	26.3	24.9	23.8
(운 수 업)	285.4	197.6	195.9	178.2	54.7	40.1	42.0	40.3
(통 신 업)	158.9	137.1	104.9	90.7	41.6	38.8	28.6	24.4
(사 업 서 비 스 업)	98.7	89.7	93.0	97.6	13.2	14.7	14.9	13.3
(오락문화운동산업)	144.5	137.3	128.7	117.6	16.4	20.7	18.5	13.3

1-6. 현금흐름 관련 주요 경영분석 지표(제조업¹⁾)

(백만원, %)

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 (A)	당기 순이익	투자활동 현금흐름 (B)	유형자산 증가(순)	재무활동 현금흐름 (C)	차입금 증가(순)	현금 증감액 (A+B+C)	현금흐름 보상비율	투자 안정성 비율
1995	6,669	3,021	-16,424	11,914	10,700	8,838	944	38.3	56.0
1996	4,462	670	-15,933	12,141	11,678	10,796	207	28.7	36.8
1997	3,418	-679	-14,654	10,365	13,192	17,910	1,956	23.2	33.0
1998	8,588	-5,009	-11,540	5,796	3,231	8,811	281	44.1	148.2
1999	11,544	-111	-7,523	4,844	-4,392	-931	-371	59.9	238.3
2000	10,475	-3,865	-9,136	6,850	-940	-1,580	399	49.2	152.9
2001	8,493	-653	-5,949	4,918	-2,127	-1,403	417	56.0	172.7
2002	12,698	8,394	-7,363	4,810	-4,758	-3,965	577	77.6	264.0
2003	11,605	5,196	-8,638	6,048	-1,902	3,634	1,064	72.8	191.9
2004	14,283	9,259	-10,993	7,794	-3,153	-1,182	137	102.0	183.2
2005	10,862	7,275	-9,867	8,354	142	1,133	1,136	86.4	130.0
2006	11,772	6,323	-11,724	8,890	236	1,402	285	89.1	132.4

주 : 1) 총자산 70억원이상의 외부감사 대상업체 중 제조업체

2) 업체당 평균

1-6-1. 영업활동 현금흐름 추이(제조업)

(백만원)

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현금유출 없는 비용	현금유입 없는 수익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부채 변동
1995	6,669	3,021	33,696	30,049	..
1996	4,462	670	20,565	16,773	..
1997	3,418	-679	11,929	1,941	-5,891
1998	8,588	-5,009	15,696	4,223	2,123
1999	11,544	-111	17,755	8,216	2,115
2000	10,475	-3,865	21,218	4,501	-2,377
2001	8,493	-653	14,122	3,515	-1,461
2002	12,698	8,394	14,560	8,640	-1,617
2003	11,605	5,196	11,486	2,752	-2,326
2004	14,283	9,259	10,891	4,373	-1,494
2005	10,862	7,276	10,581	3,987	-2,752
2006	11,772	6,323	10,961	3,730	-1,781

1-6-2. 투자활동 현금흐름 추이(제조업)

(백만원)

년도	투자활동 현금흐름	유동자산 증가(순)		투자자산 증가	장기투자 증권증가(순)	유형자산 증가(순)	유형자산 구입
			단기투자 증권증가(순)				
1995	-16,424	555	-185	2,934	1,279	11,914	12,737
1996	-15,933	-43	133	2,692	1,165	12,141	13,206
1997	-14,654	665	-92	2,536	1,769	10,365	11,232
1998	-11,540	1,513	914	3,344	3,408	5,796	7,074
1999	-7,523	743	176	1,837	2,431	4,844	6,732
2000	-9,136	-411	-674	2,217	2,233	6,850	8,149
2001	-5,949	-497	-261	949	930	4,918	6,307
2002	-7,363	1,593	642	619	510	4,810	6,629
2003	-8,638	770	75	1,285	1,156	6,048	7,226
2004	-10,993	1,124	108	1,696	1,491	7,794	8,913
2005	-9,867	-666	-294	1,854	1,415	8,354	9,366
2006	-11,724	175	-1	2,203	2,003	8,890	10,056

1-6-3. 재무활동 현금흐름 추이(제조업)

(백만원)

년도	재무활동 현금흐름	차입금순증가(순)		자본증가(순)	배당금 지급
			장기차입금증가(순)		
1995	10,700	8,838	10,729	949	428
1996	11,678	10,796	12,274	1,115	460
1997	13,192	17,910	12,268	804	437
1998	3,231	8,811	10,917	1,953	289
1999	-4,392	-931	2,167	6,517	443
2000	-940	-1,580	3,451	1,655	769
2001	-2,127	-1,403	6,402	942	817
2002	-4,758	-3,965	2,752	-70	905
2003	-1,902	3,634	2,672	29	1,133
2004	-3,153	-1,182	3,004	-319	1,489
2005	142	1,133	4,011	903	1,756
2006	236	1,402	4,253	341	1,689

1-7. 주요국의 경영분석지표

(%)

	년도	제조업				전산업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일본	독일
자기 자본 비율	1996	23.97	39.44	34.1	22.3	22.96	19.9	16.9
	1997	20.15	39.41	34.9	23.1	19.06	19.9	17.4
	1998	24.81	38.62	36.6	23.4	22.91	19.2	17.6
	1999	31.78	37.83	36.5	23.7	29.84	22.3	17.5
	2000	32.20	38.84	38.5	22.7	31.14	25.7	17.2
	2001	35.44	38.56	38.1	28.0	33.83	25.2	26.2
	2002	42.47	37.41	39.0	29.3	40.87	27.4	27.6
	2003	44.77	39.25	40.7	28.7	43.23	28.3	27.8
	2004	48.96	41.45	42.3	28.2	46.73	29.8	27.6
	2005	49.78	42.29	42.7	..	47.42	30.1	..
	2006	50.28	43.20	48.71
부 채 비율	1996	317.11	153.55	193.2	348.0	335.61	402.3	491.0
	1997	396.25	153.93	186.4	333.5	424.64	402.9	474.1
	1998	303.02	158.91	173.6	326.6	336.41	420.3	466.7
	1999	214.66	164.35	174.0	322.3	235.13	347.7	470.3
	2000	210.57	157.48	159.7	341.2	221.10	289.3	481.1
	2001	182.20	159.36	162.4	256.4	195.58	296.6	279.8
	2002	135.44	167.34	156.2	241.0	144.66	265.2	260.9
	2003	123.39	154.79	145.4	247.7	131.31	253.6	257.9
	2004	104.24	141.23	136.1	254.2	113.99	235.1	257.1
	2005	100.90	136.46	134.2	..	110.86	232.7	..
	2006	98.88	131.47	105.30
고 정 비율	1996	236.99	165.37	134.8	199.9	235.93	251.7	248.5
	1997	261.13	165.98	133.0	190.5	285.49	254.4	241.2
	1998	242.45	173.64	130.9	189.1	254.77	268.9	241.8
	1999	202.27	177.90	133.7	187.0	208.33	241.9	244.0
	2000	198.46	173.93	128.9	199.6	204.07	209.5	251.2
	2001	181.62	177.92	136.7	170.0	189.24	220.0	177.5
	2002	145.09	184.50	133.2	164.8	152.53	204.2	174.6
	2003	132.21	176.50	128.5	174.9	139.85	198.6	175.9
	2004	118.92	167.42	121.1	173.1	128.35	187.2	191.7
	2005	116.01	159.54	119.5	..	123.67	184.5	..
	2006	115.84	156.74	120.19
유 동 비율	1996	91.89	137.94	130.0	145.3	93.99	107.8	127.0
	1997	91.77	134.94	129.8	146.2	93.02	108.5	127.2
	1998	89.75	129.17	134.9	144.0	92.11	109.6	126.3
	1999	92.02	126.98	134.0	143.4	94.43	109.9	126.0
	2000	83.23	125.19	132.3	132.1	88.97	110.4	120.8
	2001	97.87	122.08	128.5	137.8	99.56	107.7	136.5
	2002	106.07	123.29	128.6	139.9	105.22	111.4	136.6
	2003	109.75	126.07	131.8	134.6	110.05	111.8	135.8
	2004	116.97	128.60	135.3	135.7	116.53	115.4	130.8
	2005	121.35	131.97	134.3	..	122.42	113.0	..
	2006	120.51	135.96	123.60

1-7. 주요국의 경영분석지표

(%)

	년도	제조업				전산업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일본	독일
매출액 영업이익 률	1996	6.54	7.40	3.6	..	5.03	2.4	..
	1997	8.25	7.61	3.5	..	5.60	2.3	..
	1998	6.11	7.52	2.5	..	4.22	1.8	..
	1999	6.62	7.73	2.9	..	3.87	2.1	..
	2000	7.40	7.65	3.8	..	5.59	2.6	..
	2001	5.52	4.35	2.7	..	5.13	2.2	..
	2002	6.74	5.46	3.2	..	5.73	2.4	..
	2003	6.87	5.31	3.9	..	6.39	2.8	..
	2004	7.56	6.62	4.5	..	6.75	3.1	..
	2005	6.12	6.46	4.5	..	5.86	3.2	..
	2006	5.34	7.09	5.24
매출액 순이익 률	1996	0.53	6.17	1.5	5.5	0.53	0.6	3.6
	1997	-1.03	6.29	1.3	6.5	-0.83	0.6	4.2
	1998	-4.35	6.04	0.3	6.6	-2.85	0.0	4.2
	1999	0.01	6.30	0.4	6.2	-1.66	0.2	4.0
	2000	-1.97	6.14	1.2	2.8	-0.77	0.6	0.8
	2001	0.01	0.85	0.1	3.3	0.48	0.0	2.5
	2002	6.27	3.46	0.9	3.0	4.74	0.5	2.8
	2003	3.82	5.33	1.6	2.2	3.76	1.0	2.3
	2004	6.17	7.01	2.2	2.4	5.41	1.2	2.4
	2005	5.27	7.43	2.6	..	4.88	1.5	..
	2006	4.45	8.29	4.23
총자산 영업이익 률	1996	0.93	8.07	3.9	..	1.08	2.7	..
	1997	-0.30	8.18	3.7	..	-0.22	2.5	..
	1998	-1.52	7.63	2.5	..	-1.15	1.9	..
	1999	1.38	7.73	3.0	..	-0.26	2.3	..
	2000	1.24	7.47	3.9	..	0.93	2.9	..
	2001	0.35	3.99	2.5	..	1.05	2.4	..
	2002	5.08	4.81	3.1	..	4.90	2.6	..
	2003	5.15	4.74	3.8	..	5.20	3.0	..
	2004	9.38	6.11	4.7	..	8.16	3.4	..
	2005	7.81	6.23	4.8	..	7.34	3.6	..
	2006	6.23	6.78	5.98
총자산 순이익 률	1996	0.50	6.72	1.6	16.9	0.58	0.7	11.9
	1997	-0.93	6.76	1.4	10.4	-0.87	0.6	7.1
	1998	-3.59	6.14	0.3	10.4	-2.80	0.0	7.1
	1999	0.01	6.30	0.4	9.3	-1.56	0.2	6.5
	2000	-1.90	6.00	1.2	4.2	-0.81	0.6	1.4
	2001	0.01	0.78	0.1	4.7	0.51	0.0	4.1
	2002	6.78	3.05	0.8	4.0	5.44	0.5	4.3
	2003	4.21	4.77	1.6	2.8	4.12	1.1	3.4
	2004	7.43	6.47	2.3	3.2	6.29	1.3	3.4
	2005	6.32	7.16	2.8	..	5.77	1.8	..
	2006	5.20	7.93	4.83

1-7. 주요국의 경영분석지표

(%)

	년도	제조업				전산업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일본	독일
총 자 산 회 전 율	1996	0.95	1.09	1.08	3.0	1.10	1.12	3.3
	1997	0.90	1.07	1.07	1.6	1.05	1.12	1.7
	1998	0.82	1.02	1.00	1.6	0.98	1.04	1.7
	1999	0.82	1.00	1.01	1.5	0.94	1.08	1.6
	2000	0.96	0.98	1.02	1.5	1.05	1.11	1.6
	2001	0.98	0.92	0.95	1.4	1.06	1.07	1.6
	2002	1.08	0.88	0.96	1.3	1.15	1.06	1.5
	2003	1.10	0.89	0.99	1.3	1.10	1.09	1.5
	2004	1.20	0.92	1.03	1.4	1.16	1.11	1.4
	2005	1.20	0.96	1.06	..	1.18	1.14	..
	2006	1.17	0.96	1.14
유 형 자 산 회 전 율	1996	2.26	3.61	3.60	..	2.82	3.18	..
	1997	0.22	3.68	3.59	..	2.79	3.17	..
	1998	2.00	3.61	3.30	..	2.53	2.88	..
	1999	1.85	3.66	3.34	..	2.20	2.89	..
	2000	2.16	3.84	3.52	..	2.37	3.09	..
	2001	2.18	3.67	3.25	..	2.34	2.93	..
	2002	2.44	3.58	3.31	..	2.61	2.92	..
	2003	2.58	3.79	3.48	..	2.60	2.99	..
	2004	2.92	4.39	3.79	..	2.82	3.15	..
	2005	2.98	4.86	4.06	..	3.05	3.34	..
	2006	2.99	4.94	3.05
금 융 비 용 부 담 률	1996	5.84	..	1.0	1.3	4.68	1.3	1.4
	1997	6.39	..	0.9	1.2	4.87	1.2	1.4
	1998	8.95	2.0	0.9	1.3	6.55	1.3	1.4
	1999	6.89	2.2	0.8	1.3	5.41	1.0	1.4
	2000	4.70	2.4	0.7	1.4	3.97	0.9	1.5
	2001	4.16	2.3	0.7	1.4	3.51	0.9	1.2
	2002	2.59	2.0	0.7	1.4	2.18	0.8	1.2
	2003	1.87	1.9	0.7	1.2	1.82	0.8	1.0
	2004	1.31	1.7	0.5	1.1	1.40	0.7	1.1
	2005	1.16	1.6	0.6	..	1.27	0.7	..
	2006	1.21	1.6	1.27

2-1. 상장·등록법인¹⁾의 주요 경영분석지표(전산업)

(%)

분기	매출액 증가율 ²⁾	총자산 증가율 ³⁾	유형자산 증가율 ³⁾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총자산 세전 순이익률	이 자 본 상 비	금 융 비 용 부담률
2003.1/4	-1.0	1.6	-0.2	9.0	8.5	..	387.4	2.3
2/4	-4.0	-0.1	1.2	7.5	5.4	..	339.9	2.2
3/4	-6.3	1.8	0.0	8.2	8.5	..	393.7	2.1
2004.1/4	14.3	3.1	0.5	10.9	12.6	12.1	674.1	1.6
2/4	19.8	1.2	1.1	10.2	10.3	10.1	655.1	1.6
3/4	21.3	1.9	0.5	9.4	9.9	9.5	627.5	1.5
2005.1/4	4.3	2.1	0.9	8.4	9.8	9.2	616.2	1.4
2/4	2.4	0.6	0.9	7.6	8.3	7.9	560.6	1.4
3/4	4.8	2.3	1.0	8.0	8.4	8.0	591.8	1.4
2006.1/4	6.9	1.5	1.1	6.8	8.7	8.2	513.8	1.3
2/4	7.0	1.3	1.3	6.4	6.3	6.0	467.5	1.4
3/4	7.8	3.4	1.1	6.9	7.7	7.3	507.4	1.4
2007.1/4	7.4	1.7	0.2	6.9	7.9	7.4	538.0	1.3
2/4	9.9	2.6	1.0	6.5	8.2	7.8	501.7	1.3

분기	차입금 평균 이자율	차입금/ 매출액	재료비/ 영업 총비용	인건비/ 영업 총비용	부 채 비 율	차입금 의존도	자 기 본 율	유 동 비 율
2003.1/4	7.0	0.3	129.0	29.6	43.7	98.0
2/4	6.5	0.3	116.1	28.9	46.3	95.6
3/4	6.1	0.3	111.6	28.2	47.3	96.6
2004.1/4	5.7	0.3	51.9	10.6	106.0	26.9	48.5	102.6
2/4	5.7	0.3	51.7	10.3	102.5	26.4	49.4	107.4
3/4	5.6	0.3	54.2	10.2	98.1	25.5	50.5	112.5
2005.1/4	5.3	0.3	52.4	10.6	96.2	23.9	51.0	113.1
2/4	5.5	0.3	50.6	10.3	93.0	23.4	51.8	115.4
3/4	5.5	0.3	51.3	10.6	90.2	23.6	52.6	120.0
2006.1/4	5.6	0.2	53.7	10.4	88.5	22.1	53.1	120.4
2/4	5.9	0.2	50.4	9.7	87.2	22.3	53.4	120.7
3/4	5.9	0.2	50.6	10.1	87.8	22.0	53.3	121.6
2007.1/4	5.6	0.2	52.9	10.6	90.2	21.6	52.6	115.8
2/4	5.8	0.2	52.3	10.2	86.2	21.2	53.7	120.4

주 : 1)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및 금감위등록법인(금융및지주회사제외)
2) 전년동기대비, 3)전기말대비

2-2. 상장·등록법인¹⁾의 주요 경영분석지표(제조업)

분기	매출액 증가율 ²⁾	총자산 증가율 ³⁾	유형자산 증가율 ³⁾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총자산 세전 순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금융비용 부담률
2003.1/4	8.3	2.5	0.2	8.8	8.0	..	412.0	2.1
2/4	3.7	-0.3	-0.5	7.3	7.9	..	394.5	1.8
3/4	3.0	2.8	0.1	8.0	8.5	..	462.2	1.7
2004.1/4	17.3	4.2	1.3	11.7	13.5	14.5	877.8	1.3
2/4	24.4	1.9	1.3	11.6	12.3	13.6	934.6	1.2
3/4	25.4	2.4	1.2	9.4	10.4	11.2	795.7	1.2
2005.1/4	4.9	2.6	1.9	7.9	9.2	9.5	739.0	1.2
2/4	1.7	1.2	1.5	7.5	8.6	9.1	690.8	1.1
3/4	4.3	2.7	1.7	7.6	8.2	8.6	679.2	1.1
2006.1/4	6.1	1.5	1.7	5.9	8.0	8.1	546.1	1.1
2/4	6.3	1.5	1.9	6.2	6.7	7.0	535.8	1.2
3/4	7.6	3.5	1.7	6.0	7.0	7.4	518.1	1.2
2007.1/4	7.5	2.3	1.1	6.6	7.7	7.8	612.1	1.1
2/4	10.4	3.7	0.6	6.4	8.8	9.3	605.8	1.1

분기	차입금 평 이자율	차입금/ 매출액	재료비/ 영업 총비용	인건비/ 영업 총비용	부 채 율	차입금 의존도	자 기 본 금 비율	유 동 비율
2003.1/4	7.2	0.3	124.1	28.7	44.6	103.4
2/4	6.8	0.3	101.6	25.1	49.6	103.9
3/4	6.2	0.3	99.0	25.3	50.3	106.7
2004.1/4	5.9	0.2	62.3	9.9	96.7	23.9	50.8	109.9
2/4	5.9	0.2	62.8	9.7	93.9	23.0	51.6	113.8
3/4	5.7	0.2	64.6	9.5	88.9	21.7	53.0	119.0
2005.1/4	5.5	0.2	62.8	9.8	87.4	20.2	53.4	117.2
2/4	5.7	0.2	62.0	9.4	85.5	20.1	53.9	118.7
3/4	5.7	0.2	62.3	9.7	82.7	20.4	54.8	122.0
2006.1/4	5.9	0.2	63.3	9.4	81.3	19.0	55.2	121.1
2/4	6.3	0.2	60.9	9.2	80.4	19.5	55.4	120.4
3/4	6.3	0.2	60.2	9.3	81.5	19.3	55.1	121.6
2007.1/4	5.9	0.2	61.8	9.8	83.8	18.7	54.4	116.6
2/4	6.0	0.2	63.2	9.8	80.4	18.8	55.4	123.3

주 : 1)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및 금감위등록법인(금융및지주회사제외)

2) 전년동기대비, 3)전기말대비

3.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업종별 모집단 및 조사업체수(2006년기준)

업종코드	업종명	모집단	조사업체
	전산업	66,513	5,101
B05	어업	59	19
C10	광업	220	32
D	제조업	24,691	3,120
D15	음식료품	1,471	227
D15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593	56
D152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43	18
D153	곡물, 전분 및 사료 제조업	370	44
D154	기타식품	399	79
D1541	빵류 및 곡분과자	89	26
D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100	21
D1549	기타 식료품	210	32
D155	음료	66	30
D1553	증류주, 발효주 및 맥주	28	17
D1554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38	13
D16	담배	4	3
D17	섬유제품	2,084	170
D171	제사 및 방직업	254	34
D172	직물 직조업	833	64
D179	기타 섬유제품	997	72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1,313	103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445	65
D192	가방, 핸드백 및 가죽 제품 제조업	279	35
D193	신발	166	30
D20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349	39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11	67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17	111
D221	출판업	348	55
D2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69	56
D23	코크스, 석유제품 가공업	81	17
D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1,493	349
D241	기초화학물	618	103
D2413	기초유기화학물(비료 제외)	268	48

종류	업종명	모집단	조사업체
D24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51	15
D241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299	40
D242	의약품	217	91
D243	기타 화학제품	606	143
D2431	살충제 및 기타 농약	31	18
D243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149	40
D2433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167	40
D2434	기타 화학제품	259	45
D244	화학섬유	52	12
D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393	139
D251	고무제품	147	45
D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13	9
D2519	기타 고무제품	134	36
D252	플라스틱제품	1,246	94
D26	비금속광물 제품	1,423	182
D261	유리 및 유리제품	126	28
D26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116	27
D26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품	832	94
D2631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66	22
D26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	766	72
D269	기타 비금속광물 광물제품	349	33
D27	제1차 금속	1,131	218
D271	제1차 철강산업	548	109
D272	제1차 비철금속	344	56
D273	금속 주조업	239	53
D28	조립금속제품	1,905	144
D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929	76
D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및 금속처리업	976	68
D29	기타 기계 및 장비	2,697	313
D291	일반목적용 기계	1,187	103
D2916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158	24
D2917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029	79
D292	가공공작기계	441	53
D29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876	122

업종코드	업종명	모집단	조사업체
D2931	농업용 기계	67	17
D2933	건설 및 광산용기계장비	51	12
D293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758	93
D295	기타 가정용 기구	193	35
D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388	60
D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1,097	167
D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220	41
D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449	50
D313	절연선 및 케이블	125	27
D319	기타 전기장비	303	49
D32	전자부품, 영상, 영향 및 통신장비	2,541	320
D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1,739	176
D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605	107
D323	방송수신기 및 영상, 음향기기	197	37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31	79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02	165
D341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	51	16
D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1,551	149
D35	기타 운송장비	366	49
D351	선박 및 보트건조업	296	28
D359	철도, 항공기 및 기타 운수장비	70	21
D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808	87
D361	가구	290	39
D369	기타 제조업	518	48
D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41	46
E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77	47
E401	전기업	17	16
E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60	31
F	건설업	12,390	355
G~R	서비스업	29,076	1,528
G	도매 및 소매업	21,136	527
G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905	47
G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8,317	342

업종 코드	업종명	모집단	조사업체
G52	소매업(자동차 제외)	1,914	138
G521	종합소매업	724	57
G5211	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683	31
G5219	백화점	41	26
G528	일반소매업	1,190	81
G5280	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1,041	51
G5281	통신판매업	149	30
H551	숙박업	133	53
I	운수업	2,900	222
I60	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393	109
I602	육상여객 운송업	723	62
I603	도로화물 운송업	670	47
I61	수상운송업	294	45
I62	항공운송업	32	8
I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1,181	60
J642	통신업	125	33
L70	부동산 및 임대업	572	43
M	사업서비스업	3,339	454
M72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1,135	237
M722	소프트웨어 자문 및 제작업	775	133
M724	DB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71	45
M729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189	59
M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84	165
M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589	69
M745	광고업	258	38
M7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7	58
M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20	52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583	154
Q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410	100
Q872	방송업	234	59
Q873	영화 및 공연산업	176	41
Q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73	54
R90	하수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288	42

4. 기업경영분석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주요항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정보와 회계기준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재인식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회계 및 감사기준의 국제화,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들이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1999년 9월 정부로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을 위탁받은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준칙,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과 해석적용사례 및 질의회신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 비교 하여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규정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우선 검토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형태로 제정·공표하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2006년 12월 현재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등 27개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하였고, ‘연결재무제표’ 등의 기준서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해설」에서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중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참고가 될 만한 주요 기준서를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목록

- <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제 2호> 중간재무제표
- <제 3호> 무형자산
- <제 4호> 수익인식
- <제 5호> 유형자산
- <제 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제 7호> 금융비용자본화
- <제 8호> 유가증권
- <제 9호> 전환증권
- <제 10호> 재고자산
- <제 11호> 중단사업
- <제 12호> 건설형공사계약
- <제 13호> 채권·채무조정
- <제 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제 15호> 지분법
- <제 16호> 법인사회계
- <제 18호> 조인트벤처 투자
- <제 19호> 리스
- <제 20호> 특수관계자 공시
- <제 21호> 재무제표작성과 표시 I
- <제 22호> 주식기준보상
- <제 23호> 주당이익
- <제 24호> 재무제표작성과 표시 II
- <제 101호> 금융지주회사
- <제 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 103호> 간접투자기구
- *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 간 재 무 제 표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요 약)

이 기준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간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하며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요약 또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중간기간말과 직전 회계연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당 회계연도의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중간재무제표에는 주식으로 회계정책 및 추정의 변경, 기업결합 및 사업의 중단, 주식과 채권의 발행 등 직전 회계연도 후에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중요한 변동과 관련된 거래나 회계사건을 기재한다.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재무제표에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와 최종 중간기간의 회계추정변경 내용 및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하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중간기간 중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을 때는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회계변경의 효과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었던 중간기간에 모두 반영하며 이전 중간재무제표는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는다.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할지라도 다른 중간기간 중에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지 않는다.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지출은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구분표시,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작성대상기간별로 한다.

회계정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회계연도 중의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은 이 기준서로 대체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중간재무제표는 이 기준서에 따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중간재무제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현금흐름표도 작성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각 중간기간별 재무정보와 누적중간기간의 재무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 중간기간(분기 혹은 반기)을 연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파악하여 중간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인식과 측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절적, 일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할지라도 전액 발생한 중간기간의 수익으로 기록하며 다른 중간기간으로 부터 미리 예상하여 혹은 다음 중간기간으로 이연하여 기록할 수 없다.
-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재무제표에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와 최종 중간기간의 회계추정변경 내용 및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 형 자 산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1. 12. 27.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2. 12. 19.

(요 약)

이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등이 포함된다.

유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분리하여 개별 유형자산으로 식별해야 할지 아니면 구성항목 전체를 단일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제공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각률과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총지출을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별로 배분하여 개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안전 또는 환경상의 규제 때문에 취득하여야 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으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중요하다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

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유형자산의 사용가능 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이를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감소된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소멸을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을 통하여 감소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

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유형자산은 과목별로 (가)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나)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 (라) 복구비용의 내용, 금액 및 회계처리방법 (마) 금융비용자본화에 의해 자본화된 금액 등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주식으로 기재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이종자산을 교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 교환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아 현금 등이 교환에 포함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는 감액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 가 증 권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2. 1. 25.

(요 약)

이 기준서는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

취득한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가)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나)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은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이러한 측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거나 유사 기업의 시장성있는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가액”이라 한다)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감액손실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회수가능가액)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이다. 대차대조표에 보고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은 감액손실 금액을 차감한 후의 회수가능가액으로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일 마다 회수가능가액을 분석하여 감액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여기서 회수가능가액은 유가증권발행자의 순자산율,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을 말한다. 매도가능증권 중 채무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가)에서(나)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나)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당해 채무증권의 감액손실

매도가능증권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나)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당해 지분증권의 감액손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다.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나)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분류변경을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 (2)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된 매도가능증권의 만기액면가액과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하며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경우란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 그 권리가 만료된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한다.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가)와 (나)의 차이금액에,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이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가)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

(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 취득과 동시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의 차이금액에,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가) 유가증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나) 양도한 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새로 인수한 채무의 공정가액의
합계 금액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공정가액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포함한 공정가액 추정상의 주요 전제조건,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 유가증권의 내용 및 장부가액,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중요한 담보약정 내용, 만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상의 만기일에 관한 정보, 실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 내용, 총이자수익금액, 감액손실과 회복의 내용, 감액손실을 인식한 채무증권에 대한 미수이자금액, 재매수계약의 내용, 분류변경에 관한 정보 등을 주석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 공정가액 평가의 확대 : 유가증권의 공정가액 측정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만기보유증권과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예외적으로 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도 그 유가증권과 유사한 증권이 시장성이 있다면 그 유사한 증권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이라도 공신력 있는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한다.

○ 유가증권과목 분류 기준 :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 빈번한 것이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경영자가 유가증권 취득시의 실제적인 보유 의도와 능력에 따라 보유증권을 분류하도록 하고, 그 분류에 따라 평가방법과 회계처리를 다르게 정하였다. 과목 분류에 관계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 평가차액의 처리 방법 :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 고 자 산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2. 8. 9.

(요 약)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저가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비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매출가격환원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 있다. 조별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 그 내용,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기준 및 평가 내용,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의 종류와 금액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저가법).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비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 취득단가의 결정방법: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시가의 결정: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 평가손실의 환입: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 분 법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4. 2. 13.

(요 약)

이 기준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투자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투자차액은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을 말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투자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지분변동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 이 경우 미실현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한다.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유사한 상황에

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을 투자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투자회사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한다. 다만, 투자회사가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우선주, 장기성채권(대출채권 포함, 매출채권 및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채권 제외)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계속하여 반영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회사의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투자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제거한다.

(나) 종속회사주식의 추가취득시 취득대가와 종속회사 순자산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은 누적기타포괄손익(예: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 (다) 투자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누적기타포괄손익(예:지분법자본변동)에 포함한다.
- (라)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와와의 차액을 누적기타포괄손익(예:지분법자본변동)에 포함한다.
- (마) 투자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 (바) 종속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단25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 종속회사에 속하지 않던 피투자회사(지분법피투자회사 포함)가 투자회사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종속회사로 되는 경우 기업인수 및 합병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제거한다.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을 투자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 투자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도록 회계처리한다.